

세계선교 핵심관점

(Perspectives 주교재 요약 해설집 2022)

According to Textbook 4th Edition



바나바스김경환 박사 • 김용식 박사 • 김정용 박사 공동 편저
(Dr. Barnabas K. Kim • Dr. Yong S. Kim • Dr. Jung Yong Kim)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들어가는 말

20년 이상 선교를 함께 해 온 복음의 동지요, 스승이요, 멘토이며 허물없는 친구이기도 한 김용식 박사님 (Dr. Yong S. Kim, PhD), 그리고 우리 김미션 유일의 파송선교사인 전문인 선교사 김정용 박사님 (Dr. Jung Yong Kim, PhD) 과 함께 이 책을 재정리 재편집하게 됨을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74년 7월 역사적인 스위스 로잔 선교대회 (The 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직후, 캘리포니아주 패사디나의 미국세계선교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 USWCM 현 Frontier Ventures) 에서 랄프 윈터 박사 (Ralph D. Winter)가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션)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는 그 이름이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입니다. 직역하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월드 크리스천 운동의 (선교 적) 관점들’**입니다. 이 세미나가 횡수를 거듭하면서 그 주 교재 역시 조금씩 보충 편집되어 오다가 1999년 가을에 제 3판 (Third Edition)이 편집되고, 그 3판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 국제 예수 전도단 (YWAM) 이 책임 번역 감수한 한국어판 교재 <미션 퍼스펙티브>가 2000년 가을, 한국에서 최초 출판 보급되었습니다. USCWM 에서는 2009년 가을에 다시 영어 원본 제 4판 (Fourth Edition) 을 출판, 한국에서는 2010년 봄 한국어 4판이 출판되었으며, 이 4th Edition 은 지금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었고, www.perspectives.org 에 의하면, 2022년 현재 프랑스어 번역이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경환) 1997년 봄, 국제오웬선교회 선교사로 둘로스선교선 (MV Doulos) 을 승선하기 직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OM KAM (국제오웬 미주한인본부)에서 진행된 타문화 적응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로 이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영어코스를 수료하였습니다. 그 때는 아직 영어 원 교재도 제 2판 (Revised Edition) 을 사용하던 시절이었고, 한국어 번역판은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그 당시 인텐시브 세미나를 통해 제가 받은 도전은 너무나도 커서 실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후 제가 2004년도에 마친 목회학 박사학위 (D Min in Missions)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조차도 능가할 만한 놀라운 세미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때 만약 내가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듣지 않은 채 선교지로 나갔더라면’ 하고 가정해 볼 때 마다 아찔한 생각이 정도로 이 세미나는 제 삶과 사역의 방향을 목회에서 선교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둘로스 3년 사역 후 국제오웬 미주한인본부 (OM KAM) 대표를 맡게된 2001년 11월 이후부터 이 엄청난 퍼스펙티브스/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를 미주 한인들에게 보급해야겠다는 꿈과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당시 USC WM (미국세계선교본부) 의 허락과 격려, 그리고 한국어판 교재를 수년간 수 백권씩 우송해 준 한국예수전도단의 협조로 2002년 봄, 남가주 (Southern California 곧 LA/OC 지역)에서 첫 한국어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로고스교회 (당시 담임 강준민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서 동시에 개강하여 200명 이상이 16주 동안 매주 뜨겁게 공부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숨가쁘게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 (LA/OCx10회, NY x3, ATLx2, DC/VA, SD, SF, SJx2, NJx3, Baltimore x2, 시카고, 시애틀, 뫼닉스 x2, TX 칼리자스테이션, 샌 안토 니오 x2 등)과 해외 지역들 - 한국, 몽골 x2, 브라질 x2 (상빠울, 아마존), 러시아 3 (모스크바,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방글라데쉬, 필리핀, 대만, 인도차이나 5회 (하노이, 호치민, 라오스의 비엠티안 2회, 캄보디아), 중앙 아시아 타직스탄과 키르키즈스탄,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리고 캐나다 등 전 세계를 순회 방문하면서 이 세미나를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4,500여 명이 이 세미나를 수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World Christian)** 으로 제 2의 헌신 (Second Commitment)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10월 초 뉴욕 Long Island 의 아름다운교회 (황인철 목사) 에서 세미나를 진행 한 후, 우리는 국제오웬 미주한인본부라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사역에서 독립하여, 2010년 가을, 이 세미나를 온 세계에 흩어져있는 한인 커뮤니티마다 가서 보급하려는 목적과 이 세미나를 통해 헌신된 평신도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교의 도구 (means) 로 미연방에 등록된 비영리 선교 단체 KIM Mission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을 창설하였습니다. 김미션은 2011년 봄, 다시 본부를 LA 에서 아리조나 주의 뫼닉스 (Phoenix, AZ)로 이전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시도하였는데, 자비량과 미국주류사회 선교 전략으로 병원선교사역을 위함 이었습니다. 병원 채플린훈련 기초과정 2년을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미육군 예비군 군목인 김 미션 대표 김경환 목사를 1년 간 (2013-2014) 샌 안토니오 미국방부 산하 군통합 병원에서 풀타임 채플린 레지던트로 훈련을 받도록 인도 하였고 (전국 예비군 채플린 가운데 유일하게 선발되

어 현역 군목들과 함께 훈련), 이때 우리는 다시 본부를 텍사스주의 샌 안토니오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션의 본부를 텍사스 남부지역의 중심 도시인 샌 안토니오로 옮기도록 인도하신 데는 장기적,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6년 간, 저는 2011년에 시작한 병원사역 전문 채플린 자격 (BCC, Board Certified Chaplain)을 취득하기 위해 (2017 최종 합격) 미군통합병원 파트타임 예비군채플린, 지역 일반병원 주말 파트 타임 채플린, 그리고 때로는 월마트 매장 파트타임 직원으로, 우버/리프트 택시 운전, 그리고 베이비 시터 일과 한국어개인교사 등으로 일하면서 눈물겨운 자비량과정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주께서 저를 다시 텍사스 미군 최대 전투 기지인 포트 후드 (Fort Hood, TX) 에서 미 육군 현역 풀타임 채플린으로 1년간 근무할 수 있게 인도하셨고, 이 기회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애리조나주 주립 투산 교도소 풀타임 채플린 1년을 거쳐 2022년 2월, 드디어 모든 병원 채플린직 가운데 최고, 최상의 조건인 미국연방정부 공무원직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VAMC) Chaplain 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로 11년 만에 안정적인 풀타임 자비량 선교의 바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두가 퍼스펙티브스 세미나 진행과 동시에 병행하여 온, 끝없는 노력과 주 예수님의 인도, 공급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영적 히브리인 (Spiritual Hebrews), 곧 영적 노마드 (Nomads) 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착 개념이 아닌 이동 개념의 거룩한 사역이요 삶 그 자체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World Christians** 은 복음의 유목민들 (Evangelical Nomads) 이며 우리의 생활방식 역시 유목민처럼 기동성 있고 단순 겸소해야 (the nomad’s simple and austere lifestyle) 합니다. 물론 우리는 원시적인 유목민이 아닌 디지털 유목민, 유비쿼터스 유목민들 (digital and ubiquitous nomads) 입니다. 전 세계를 한 눈 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식견과 관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 접근과 신속 협력이 가능한 최첨단 초고속의 융통성, 접근성을 갖춘 소달리티 (Sodality, 헌신된 선교 개인 및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소수 정예 소달리티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인 모달리티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성숙시키십니다. 소달리티 사역 결과로 건강한 모달리티로 성장한 지역교회는 또 다시 헌신된 제 2의 소달리티를 파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성숙을 위해 사용하는 선교의 메커니즘이요 모달리티 지역교회와 소달리티 선교단체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입니다 (5과, 6과 내용 참조).

이 세미나의 원 제목 그대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양성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이제 전 세계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에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약 역대상 12장 32절에,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가 이 백 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men of Issachar,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 200 chiefs, with all their relatives under their command;)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 교회와 민족은, 우리가 처한 시세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길로 앞장서 달려나갈 만한 제 2의 결단과 제 2의 헌신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을 훈련, 양성해 내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최초 10년 간 OM KAM 을 통해 진행한데 이어, 지난 2010년 이후에는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네트워크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을 통하여, 전적으로 이 일에 헌신한 여러 동역자님들과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 미션은 순전히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통해 준비되고 훈련된 동역 자들로 구성되는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소달리티, 곧 선교동원 단체입니다. 이 교재의 공동편집자 가운데 한 분인 김미션 파송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김정용 박사님 (에티오피아 국립 아다마 공과대학 교수, Ph. D.) 도 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김정용 장로님이 에티오피아 국립 Jimma 공과대학 교수로 계시던 2016년 가을, 우리가 짐마 지역을 방문하여 함께 첫 에티오피아 세미나를 인도하였고, 지금도 새로운 임지인 국립 아다마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퍼스펙티브스 세미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몇해 동안 이 세미나를 기획, 진행하고 직접 강의하는 동시에 수많은 선교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배우고 깨달은 것은, 아무래도 이 세미나의 주 교재가 너무 방대하여 아무나 접근, 소화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보급을 위해 주강사로 동역하시는 김용식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평신도 동역자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의논

하는 가운데 주교재를 요약하고 해설을 추가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강의용 소책자를 엮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재의 최초 요약해설집 제 1 판은 지난 2005 년 가을에 1,000 권을 출판하였고, 2008 년 가을에는 다시 자료들을 수정가감하여 “세계선교 핵심관점” 3,000 권을 출판하였습니다. 2010 봄/여름에는 퍼스펙티브스 영어판 원 교재 제 4 판이 한국어로 번역됨에 따라, 이전 3 판까지 내용과는 상당 부분이 수정가감된 점을 감안하여 이 “세계 선교 핵심관점” 역시 대대적인 내용 업데이트를 단행하였고, 2015 년에는 다른 단체들의 한국어 퍼스펙티브스 세미나와 구별을 위해, 우리 세미나 타이틀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로 수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파일로 보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타이틀로 2015 년 봄에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2015. 4.22-5.5), 그 해 가을에는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세미나를 2 회 (현지 지도자 세미나 & 한인선교사 협의회 세미나) 진행했습니다 (이 때도 김용식 박사님은 섬기시던 상빠울루 영광교회의 선교 후원 재정까지 들고 날아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미주에서는 처음으로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 보급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미주와 세계 각 대륙의 디아스포라 코리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난 20 년간 총 68 회 진행해 오면서 우리는 각 세미나 수요자들 가운데 열정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평신도 강사진으로 세워 세미나가 진행되는 곳마다 함께 가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선교에 헌신하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세미나를 보급하겠다는 열정으로 헌신한 평신도 지도자들만 약 50~60 여 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각 지역 세미나 혹은 전 미주 지도자 세미나, 그리고 해외 세미나가 진행 될 때마다 하루, 이틀 씩, 혹은 세미나 전체 기간인 3~7 일간 오셔서 본부 스태프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세미나를 자비량으로 섬기고 간증하며 강의까지 맡아 헌신합니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며, 각자가 수준높게 준비한 전문 강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요약 해설집에는 ‘잇사 같 지파의 시세를 아는 리더들 같은’ 김 미션 동역자들이 제공한 여러 자료들,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전략적인 의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지역 교회 Missional Church 를 이끄는 목회자, 안식년 중인 선교사, 그리고 관련과목 교수님들이 이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주 강사진에 동참하여, 지금까지 연인원 약 250 여명의 강사들이 이 세미나에 강의해 주셨는데, 이분들의 선교 현장경험과 통찰력 또한 이 강의 교재안에 풍성히 녹아 있음을 저는 특별히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번 강의 교재 재판집 작업에 누구보다 더 많은 도움과 최종 감수를 해 주신 분이 김용식 박사님이십니다. 김 박사님의 변함 없는 열정과 협력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어강의교재 샘플 (보충자료 5, p.118) 을 제공해 주신 김정용 박사님과, 지난 25 년간 저와 동역하시며 그 중 20 년을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행 해 오신 김미션 이사장 임이근 장로님 내외분 (스페인), 차기 이사장 이원구 장로님 (서울), 초대 이사장 최도문 장로님 (달라스), 이광현 장로님 (뉴저지), 임소영 장로님 (뉴욕), 손동우 장로님 (뉴욕), 이순권 장로님 (샌안토니오), 강동철 안수집사님 (보스턴) 등 모든 부이사장님들과 서덕희 권사님 (뉴욕), 윤천경 권사님과 육진영 권사님 (샌안토니오) 등 기도이사회원 한분 한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책자 “세계선교핵심요약해설집 2022”의 또 다른 특징은, 주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 “한국선교 초기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혜와 선교 전략들”, 그리고 “21 세기 세계 선교의 21 가지 주요 경향들” (21 Key Trends for the 21st Century World Mission) 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지난 20 년간 이 세미나를 진행해 오면서 제작한 강의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전과목 교재를 2006 년 가을 최초 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교재와 슬라이드 자료는 저작권 문제를 감안하여 세미나 교재로만 사용하며 비매품으로 보급). 마지막으로, SNS 를 통한 전략적인 유비쿼터스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지난 2018. 11 월 부터 1 년 동안 퍼스펙티브스 전체 15 과와 보충강의를 총 88 회의 유튜브 영상 강의로 제작, 업로드하였으며 현재까지 수백명의 선교관심자들이 전 세계에서 유튜브 강의를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아래 김미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2022 년 6 월,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예수님의 작은 종 바나바스김경환 선교사

Barnabas K. Kim, DMin in Missions, BCC, MDiv.

President,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1020miracle@gmail.com

목 차

들어가는 말	3
목차	6
Lesson Summaries	7
제 1 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적 관점).....	9
제 2 과 선교, 하나님의 영광 (성경적 관점).....	15
제 3 과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경적 관점)	21
제 4 과 열방을 위한 명령 (성경적 관점).....	27
제 5 과 복음을 자유롭게 함 (성경적 관점).....	33
제 6 과 세계 기독교 운동의 확장 (역사적 관점).....	40
제 7 과 선교 역사의 여러 시대들 (역사적 관점).....	49
제 8 과 세계 기독교 운동의 개척자들 (역사적 관점).....	55
제 9 과 남은 과업 - 미전도 종족 (전략적 관점).....	63
제 10 과 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문화적 / 전략적 관점).....	68
제 11 과 사랑의 다리가 되어 (문화적 / 전략적 관점)	73
제 12 과 기독교적 지역 사회 개발 (전략적 관점)	75
제 13 과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 (전략적 관점).....	80
제 14 과 최전방 교회 개척 (전략적 관점).....	86
제 15 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협력 (전략적 관점)	93
보충자료 1 한국교회 초기 선교역사를 통해 배우는 선교지혜와 전략 (역사적 관점) -----	96
보충자료 2 21 세기 세계 선교의 21 가지 특징들 (21 Key Trends for the 21 st Century World Mission)	107
보충자료 3 세계 선교 개관 (World Mission Survey)	114
보충자료 4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받을 상급을 노래한 <i>Thank You!</i> Song -----	116
보충자료 5 Simplified Lesson English Note (Example) -----	118

Perspectives - Lesson Summaries

Biblical

#1.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God's purpose is three-fold: against evil—kingdom victory; for the nations—redemption and blessing; and for God—global glory in worship. God's purpose revealed in promise to Abraham. Exploring God's purpose for the nations: Blessing to the nations described.

#2. The Story of His Glory

Exploring God's purpose for Himself: How God has been steadily unfolding a plan throughout all nations and generations to bring about His greater glory, ultimately drawing to Himself the worship of all the peoples. Passion and prayer for God's glory.

#3. Your Kingdom Come

Exploring God's purpose regarding evil: How God has accomplished a defeat of evil powers in order to open a season of history in which the nations can freely follow Christ. The kingdom of God as the destiny of all history. Christ's mission seeks a hindering of evil to bring about a sign of the coming peace of the kingdom of God. Our prayers contend with evil in order to bring about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with Christ's kingdom in view.

#4. Mandate for the Nations

Jesus shows great strategic interest in Gentiles; wise strategic focus by initiating a global mission on a few disciples among the Hebrew people.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ways of God's sending in relational power. Dealing with the ideas of pluralism (all religions the same) and universalism (all persons saved).

#5. Unleashing the Gospel

The first followers of Jesus: obedient in costly, foundational ways. The climactic act of the book of Acts is the freeing of the gospel to be followed by Gentiles without Jewish traditions as a requirement. A foundational act of God which speaks to the situations where the gospel is hindered today. Strategic suffering and apostolic passion.

History

#6. The Expansion of the Christian Movement

The story of God's purpose continues relentlessly from Abraham's day until the present moment. An overview of the largest and the longest-running movement ever in history—the world Christian movement. How the gospel surged through the peoples and places of the world. Important insights for our own day.

#7. Eras of Mission History

The greatest explosion of growth ever has taken place in last 200 years in three "bursts" of activity. Why we could be in the final era of missions. The global harvest force comprised increasingly of non-Western missionaries.

#8. Pioneers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Today we anchor the race by continuing what others have begun. It's a day of finishing. All the more reason to learn the wisdom and the heart of ordinary people who did extraordinary things in earlier generations. Reading the writings of William Carey and other leaders to discern what these people have left to us. Exploring the contribution of women in missions throughout the centuries.

#9. The Task Remaining

God's pressed His purpose forward until the present hour of amazing opportunit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unreached peoples" to assess the remaining task. Recognizing the imbalance of mission resources shapes strategic priorities. The basic minimal missiological achievement in every people group opens the way for working with

God against every kind of evil so that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declared and displayed with clarity and power. The need and opportunity of urban mission.

Culture

#10. How Shall They Hear?

Cultur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of the gospel. Communicating the gospel with relevance at the worldview level helps avoid syncretism (blending of cultural error with God's truth) and also enables powerful movements of the gospel. Sensitive missionaries will look for ways that God has preserved or prepared people to hear the gospel, often finding redemptive analogies for God's truth.

#11. Building Bridges of Love

The incarnation as a model of missionary humility. How missionaries can enter appropriate roles in order to form relationships of trust and respect to develop a sense of belonging, and thus to communicate with credibility for understanding. Explore the intricacy of identification in another culture. Explore the even greater complexity of presenting identity with integrity in a globalized, terrorized, pluralized world. Recognizing the dynamics of social structure in order to initiate growing movements of ongoing communication throughout the society.

Strategy

#12.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A survey of world need. Dynamic balance of evangelism and social action. Hope for significant transformation as a sign of Christ's Lordship by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Exploring the charge that missionaries destroy instead of serve cultures. Healing the wounds of the world between the peoples.

#13. 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es

Look beyond institutional features of churches to understand churches as dynamic movements of Christ Himself being followed. Such a view of churches as organic, living things opens up the practicality of seeing them multiply rapidly as movements and also flourish in society bearing the fruit of social transformation. Churches as counter-communities, acting as salt and light, bringing change to their cultures. How movements multiply by connecting with entire families and larger social structures.

#14. Pioneer Church Planting

The hope of planting churches among unreached peoples. How the breakthrough of the gospel in an unreached people requires that the gospel be "de-Westernized". The difference of contextualizing the message, the messenger and the movement. Distinguish and appreciate people movements, church planting movements and insider movements.

#15. World Christian Discipleship

What it means to integrate life for Christ's global purpose as a "World Christian". Into the great story for His glory: a Person-driven life as a way of pursuing a purpose-driven life. The basic practices of world Christians: going, sending, welcoming and mobilizing. The essential disciplines of World Christian discipleship: community, giving, praying and learning. Simplifying your lifestyle as if in "war-time". Exploring the practical ways of pursuing God's purpose. Business and mission. Short-term mission. Welcoming international visitors. Wisdom in working with local churches and in partnership with Christian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Updated Oct 16, 2009, with 4th Edition Summaries (www.perspectives.org)

제 1 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성경적 관점(The Biblical Perspective)

1.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현대 세계 선교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로잔언약** (The Lausanne Covenant: 1974 년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세계적인 복음주의 교회 및 선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The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의 결정 협약.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양극단으로 치달던 기독교 세계에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함. 웹사이트 lausanne.org 참고) 의 기초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스토틀 목사 (John R.W. Stott) 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다” 라는 전제 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창세기 12 장에 나타난 명령 (지시, Mandate) 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명령이란 용어로 소개된 mandate 는 단순한 명령 commandment 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곧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내리는 명령**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대표적인 맨데이트 Mandate, 곧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문화 명령 (Cultural, Social Mandate)** 이요, 그 다음은 **복음 명령 (Evangelistic Mandate)** 이다. 문화 명령은 창 1:28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 인류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라 하시며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요, 복음 명령은 창 3:15 과 3:21 에 원시복음 proto-gospel 형태로 예시되고 창 12 장 아브라함 언약에서 명시된 대로, 그 문화명령을 위임받은 인류가 타락한 뒤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천국시민으로 회복시키라고 주신 명령**이다. (* 마태복음 28:18-20 예수님의 선교명령과 연결)

하나님은 처음에 자신의 위임령을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시는 대신 약속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객체요,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알 수 있다. 곧 **명령을 내리시되 실제로 그 명령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 당신이신 것이다.** 창 12 장 복음 명령 역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가 훨씬 더 강조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명령 형태로 주신 약속) 을 점차 더 완전하게 성취시키신다. 존 스토틀 목사는 **삼중적 성취 (A Triple Fulfillment)** 에 대해 말한다.

-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 그의 육신적 자손인 이스라엘백성의 역사를 통해 즉시,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안에서 중간적으로, 혹은 복음적으로 (an intermediate or gospel fulfillment) 완전하게 표현되어 드러나고 보여졌다. 아브라함 Abraham 의 육신적 자손들이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종말 때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an ultimate or eschatological fulfillment).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심에 따라 지금도 그 약속은 요원의 불길처럼,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지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 the God of History, 언약의 하나님 the God of the Covenant, 축복의 하나님 the God of Blessing, 자비의 하나님 the God of Mercy, 그리고 선교의 하나님 the God of Mission’으로 인정하게 된다.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¹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 10)

한편 저명한 구약학의 권위자 월터 카이저 박사(Walter C. Kaiser, Jr.) 는 퍼스펙티브스 주교재 제 1 과에 소개된 그의 아티클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 (Israel’s Missionary Call) 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2. 성경적 관점의 핵심 본문인 창세기 12:1-4: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라 (Proclaim His Plan!)

퍼스펙티브스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15 과 전 과정의 흐름 속에서 반복하여 강조되는 본문이 바로 창 12:1-4 이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니 바로 다음과 같다.

- 창 1 장-11 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이며 창 12:1-4 말씀은 성경말씀의 **핵심주제**이고, 창 12:5 이하부터 계시록 22 장 21 절까지 전체 성경 내용은 바로 [창 12:1-4] 핵심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다.
- 창 1 장-11 장 내용: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세 가지 실패 (반역, Rebellions)**
 - (1)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곧 마지막 날 창조하실 인간들을 위협하였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창 1:28 에 나타난 바 “문화 명령”의 성취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 온 천지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함
 - (2) 하지만 인간들은 불순종과 타락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 (3 장): [첫번째 실패/반역]
 - (3) 인류는 타락 이후 두 종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과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며 산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창 6) 의 타락과 오염으로 하나님의 원래 문화명령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주어진 특권과 복을 남용했다: [두번째 실패] 하나님은 노아 홍수라는 첫 심판을 통해 악해질 대로 악해진 인간들을 심판하셨으나, 의의 후사로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6-9 장).
 - (4) 창 10 장은 그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가 어떻게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해 졌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70 족속이 소개된다. 이 70 족속은 곧 장차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번성하게 될 온 인류를 의미한다.

- (5) 창세기 11 장은 이 70 족속이 어떻게 다시 세번째 하나님께 반역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온 땅으로 흩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언어의 장벽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언어의 차이는 장차 문화적인 차이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엄청난 장벽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 이 언어적 차이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다시 세상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세번째 실패/반역]

인간들의 세 차례에 걸친 실패/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실패에 각각 은혜로운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담은 말씀을 주셨다 (창 3:15, 21 원시 복음; 창 9:27 무지개 언약 The Noahic Covenant; 창 12:1-3 아브라함의 언약: 갈 3:8, 14 참조). 그 가운데 선교적 관점을 담은 본문이 바로 창 12:1-3 (4) 말씀 (The Abrahamic Covenant):

- 창 12 장 1-4 내용: “¹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²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³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구원) 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⁴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이 본문의 내용은 요약하면 크게 두 부분 곧 **Top Lines** 과 **Bottom Line** 으로 나뉘어진다.

[Top Lines vs Bottom Line]

- **Top Lines (4 가지 복을 약속하심):**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2.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3.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4.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 **Bottom Line (이 복을 주시는 목적):** “내가 복이 되게 하기위해서 (so that you may be a blessing),” 곧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이다. (*창 22:18; 28:14, 갈 3: 8~9 에서 사도 바울이 재해석.)
- 위의 네 가지 축복 약속 중 어느 하나라도 아브라함 자신의 세력이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이루어질 민족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치지 말고,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 (Channel of Blessings)가 되라”**고,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축복하신 것이다.
- 창 12 장 5 절 이하 계 22 장 21 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언약의 핵심내용]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확인해 주실 뿐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수 많은 사람, 수 많은 민족, 국가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핵심 목적”을 망각 혹은 무시함으로써 실패를 반복하였는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언약 -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 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 성실하시고 자비로운 일을 베푸셨는가를 자세히 보여준다. 물론 그 하나님의 열심의 대상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동일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 그것은 곧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 **“I have been BLESSED to be a BLESSING!”**

- 이제 이어질 퍼스펙티브스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의 1-15 과 전 과정 역시 이 창세기 12:1-4 내용을 증명, 확인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의 목적이 무엇인지 재발견 하도록** 도전하고 깨우치기 위해 전개 되어질 것이다.

3. 두 가지 추가적인 핵심 본문들 (출애굽기 19:4-6 그리고 시편 67 편)

창세기 12:1-4 본문에 이어 구약의 두 본문, 즉 출 19:4-6 과 시편 67 편 역시 우리로 하여금 세계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해주는 핵심본문들이다.

- (1) **출애굽기 19:4-6 : 하나님의 제사장직에 참여하라 (Participate in His Priesthood).** 이 본문은 모세의 그 유명한 “**독수리 날개 설교**”이다. 독수리가 그 어린 새끼를 날개로 업어 운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을 회상하는 4 절 내용에 이어, 5 절 첫 부분에서는 **“Now therefore (이제 그러므로; 한글개역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음)”** -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출애굽하였으니 그 당연한 결과로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 소유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my treasured [special] possession 나의 특별히 아끼는 소유; 보석, 주식, 채권 등을 의미. 말 3:17 jewels),⁶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a kingdom of priests; kings & priests; kingly priests; royal priests),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and a holy nation).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 베드로전서 2:9-10 말씀을 통한 해석: “⁹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하게 하려 하심이라. ¹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허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허를 얻은 자니라.”

- 중재자, 선교사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명하고 기대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를 거부하고 선민의식만 스스로 고취시켰다. 혈통적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 거부**로 이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 이 역할을 감당하라 명하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세계 역사의 여러 시대를 통해 이 [복의 도구/통로로서 제사장 역할]을 여러 시대와 민족에게 맡기시고 명하셨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시대와 민족으로부터

쫓대를 옮기자 다음 시대, 다른 민족에게 똑 같은 사명을 맡기는 역사를 반복해 오셨다. [*제 6 과 내용중 구속사의 10 시대 참조]

- (2) **시편 67 편: 하나님의 목적을 입증하라 (Prove His Purpose)** 시 67 편은 **빠페르 노스페르 (Pater Noster: 우리 아버지!)** 혹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란 별칭이 뜻하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그 뜻이 일치한다. 1 절 말씀은 바로 민수기 6:24-26 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에서 나온 것이다. - “²⁴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²⁵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²⁶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 그런데 시 67:2 절 이하에 보면 “²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³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반복된 기도가 이어진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시 67:1 절 곧 민수기 6:24-26 의 축복을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한하고 그 복을 만방 중에 알리기를 거부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편 67 편을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을 만방 중에 알리고 전파하라고 명하신다.

이 시편은 또한 오순절 때 부른 노래이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써 성령님을 부어주셨으며, 여기서 풍성한 추수는 곧 성령님으로 인한 모든 족속, 민족과 방언으로부터의 영적 수확을 상징한다 - 오순절의 목적!

4. 세계 복음화와 성경 (The Bible in World Evangelization)

존 스토틀 목사님 (1921~2011) 은, ‘성경이 없다면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책임을 부여하고 선포할 복음을 주며, 그 복음을 선포할 방법을 말해주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주장한다.

-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선교) 에 대한 명령 (Mandate for World Evangelization) 을 준다 (창 3:15; 12:1-4; 시 2:8; 사 42:6; 49:6; 마 10:6; 15:24; 24:14; 28:18,19; 눅 13:29; 행 1:8).
 - 성경 전체는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가득하다.
-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 (Message for World Evangelization) 를 준다 (딤후 6:20; 딤후 1:12-14; 고전 4:1-2; 15:11; 갈 1:6-8).
 - 복음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것은 ‘주어진’ 것이지만 또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맞게 문화적으로 각색해야 한다. 곧 계시에 충실하면서도 상황화라는 과제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
-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모델 (Model for World Evangelization) 을 제공한다 (갈 3:8; 히 1:1; 요 1:14; 벧후 1:21).
 - 성경은 그 자체가 복음이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사실상 복음전도를 하고 계시다. 복음의 결정체인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동일화’의 모델이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항상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야 한다.

- 1974 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대회에서 르네 빠디아 박사 (Rene Padilla)는, “일부 유럽 및 북미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문화 기독교’, 서구의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에 의해 왜곡된 기독교 메시지 라고 말하여 비난을 받았지만 그의 말이 옳다.
-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능력 (Power for World Evangelization)을 부여해 준다** (요일 5:19; 마 12:27-29; 눅 11:20-22; 골 2:15; 롬 1:16; 고후 4:4-6; 고전 2:1-5; 고후 12:9-10).
 -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 한 영혼의 회심과 증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마귀 사탄인 용 사이의 권력투쟁의 절정이다. 우리는 연약하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강하다 We are weak but He is strong!
- **성경 없이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전도자가 성경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성경은 그 거룩한 능력에 의해 거룩함의 근원을 나타낼 것이다. 성경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 (Let It Loose in the World! - How? 5 과 참조)**

5. 피조물을 돌보는 것과 선교 (Creation Care and Mission)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소유하고 누리시며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인간은 그 피조물 가운데 영장이요, 그 피조물을 돌보며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 (창 1:28 문화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세상 피조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남용하며 급속히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친히 “축복까지 하신”(창 1:22; 물고기 모든 어류와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 피조물들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존엄하다. 하지만 인간 (아담) 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 세계는 죄의 결과인 형벌을 함께 받아 원래 창조 직후의 기능과 광채 splendor (고전 15:40, 41) 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 곧 인간에게 징벌의 수단 (갓가지 자연재해, 재앙의 근원, 거침돌과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조물의 원래 창조 목적 아님).

이 모든 피조물은 지금도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²²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²³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롬 8:18-23).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럽혀진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 (골 1:20). 우리가 주님의 날에 다같이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런 모양으로 변화할 때, 모든 우주와 피조물 역시 창조 당시의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역시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자연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야 한다.

-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맑은 하늘, 구름 한 자락, 그리고 시냇물 소리와 새 소리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피조물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한 경험이 있는가? 반려 동물들도 장차 천국에서 함께 만나 주님께 영광돌리게 될 것이다.
-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보호와 환경보존, 지구온난화 방지,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제 2 과 선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The Story of His Glory)

성경적 관점(The Biblical Perspective)

1. 선교의 정의

퍼스펙티브스 주교재 편집자 가운데 한 사람인 스티븐 호튼(Steven Hawthorne)은, “선교란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며,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

- **영광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고백)하는 것이다. 성경전체를 통해 영광은 참된 예배의 중심에 자리한다. -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시 86:9).
 -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러져야할 영광이 다른 신과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것을 싫어하시며 미워하시며 질투하신다.
 -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in Christ):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다 (요 1:14).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온 세계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오는 것이라고 요약하셨다 (요 17:4, 6).
- **하나님의 이름 (The Name of God):** 선지자 이사야는,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열방이 “그 이름이 높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하라고 명한다 (12:4). 선교는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일이다.
 -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말 1:11)
- **예배 (Worship):** 하나님은 전세계적으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사람들로 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열방에 영광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원하시며, 동시에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신다. 예배는 구원보다 더 원대한 목적 (a purpose beyond salvation) 으로, 이는 곧 선교와 구원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참된 예배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다가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이것이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우상과 신들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출애굽 직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 가지 재앙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예배를 가로채오던 애굽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judging the gods of Egypt) 이었다 (출 12:12; 15:3, 11, 14; 18:11).
-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잔인한 양상을 띠었던 주된 이유 역시 하나님이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를 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신 4:15-24; 6:13-15; 7:1-8). 그것은 예배 문제였다.
-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예배하러 오는 모든 열방을 맞아들이시는 것이었다. 시바의 여왕을 비롯한 솔로몬 당시 모든 열방과 열왕들이 와서 성전으로 나아온 것은 장차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대하 6 장; 시편 66 편; 96 편; 사 56:7).

2.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이다.

존 파이프 목사(John Piper; Bethlehem Baptist Church in Minneapolis, MN)는 선교와 예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선교는 세상에서 두번째로 위대한 활동 (The second greatest activity in the world)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활동은 예배이다. 선교는 도구요 예배는 목적이다.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선교는 장차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없어질 것이지만 예배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보다 예배가 최우선 이 되어야 한다.

예배는 선교의 힘이다 (The power of mission is worship).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만 능력있는 선교가 가능해진다. 예배가 충만한 교회로부터 진정한 능력있는 선교사가 헌신되고 배출될 수 있다. 그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다시 그 충만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한 자가 훌륭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이 들림받는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교회가 선교 자체를 멈추고 예배 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뜻은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곧 온 열방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뜻이다. 만민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순간, 그 **예배야말로 선교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3.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선교의 원동력이다.

선교지의 사람을 보고 그들을 향해 느끼는 동정심 혹은 인간적인 박애정신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는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친다. 처음엔 사랑과 헌신의 동기가 되었던 선교지 사람들이 나중엔 짐이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한 사람 -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사역의 원동력인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이 약해질 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벧전 1:8)으로 선교사는 자신을 재충전 하며 험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그러므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통,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이 영광인 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광스런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파송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David Livingstone) 선교사의 고백처럼, **선교는 희생도 아니요 고통스런 일도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특권이요 복음을 위한 고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의 영광이다!**

희생이 아니라 특권 (No Sacrifice, But a Privilege)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것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우리가 결코 상환할 수 없는 그 큰 빚의 아주 작은 일부를 갚아드린 것뿐인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것을 특권이라고 말해 주기 바랍니다. 질병, 고통, 위험 그리고 문명의 이기없이 살아야 하는 불편함 등등... 이 모든 것은 이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을 하지 않았습시다... 내가 시작한 일을 여러분이 수행해 주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David Livingstone, 1813~1873)

4.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그리고 두 가지 힘 (Two Forces)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낳은 위대한 선교학자 데이빗 보쉬(David J. Bosch)는 **‘미시오 데이’(Missio Dei, God’s Mission)** 곧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한다. 선교의 창시자도 하나님이지요, 최초의 선교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며, 선교를 마무리 지으실 완성자도 오직 하나님이지다. 보쉬는 말한다. **“신약에서 선교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상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과 만난 결과이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선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조나단 루이스 박사(Jonathan Lewis)는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선교의 두 가지 메카니즘 혹은 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팽창력 혹은 원심력:**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흩어져 감으로써 복음이 전파된 선교의 방식, 곧 선교의 ‘가라(Go)’ 구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감, 전쟁과 기근을 피해 이방으로 흩어짐, 신약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감 등.
- **흡인력 혹은 구심력:**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성과 권능을 듣고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복음이 전파된 선교의 방식, 곧 선교의 ‘오라(Come)’ 구조. 일례로, 다윗의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이방인의 수가 15 만 3 천 6 백 명이나 되었다.
- 선교의 원심력과 구심력에 대한 더 자세하고 확대된 개념 설명은 6 과에서 다루게 될 **‘자발적으로 감, 비자발적으로 감, 자발적으로 옴, 비자발적으로 옴’** 이란 **선교의 4 가지 메카니즘**을 참조하라.

5. 요나서 연구를 통한 세계선교 명령의 성경적기초 (The Biblical Foundation for the Worldwide Mission Mandate - the Book of Jonah)

요하네스 페어까일 박사(Johannes Verkuyl, 네덜란드 암스텔담 자유대학 교수, 인도네시아 선교사 역임)는 **요나서를 통해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이해시키고 있다.

요나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삶이 선교에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연적 성향들이 철저히 변화되고 삶 전체가 완전히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나서 저자는 이방인들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없고, 후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었던 한 선교사** 요나를 “사도들과는 정반대인 한 사람”으로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러한 웅졸한 태도에 대해 경고함과 더불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종으로 기꺼이 변화되고자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요나를 통해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 세계 선교를 위해 나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놀라운 간섭과 그 폭발적인 결과를 발견하게 된다.

요나 한 사람뿐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은 자기 일에 골몰한 나머지, 더 이상 세상으로 눈을 돌려 선교적인 관점으로 열방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명령하신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거부해 온 것이다. 이 요나서의 메시지는 세상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요리조리 피하려고 애쓰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회중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이스라엘에 국한시키려 하는 이스라엘의 편협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싸우셔야 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세상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자기 중심주의와 싸우셔야 한다.

요나서의 여덟 장면에 대한 간단한 개관 (A Short Review of the Book's Eight Scenes)

- **첫 번째 장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구약은 보통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오라(Come!)”고 호소하지만, 요나서는 신약 시대의 제자들처럼 (마 28:18-20 참고) “가라(Go!)”는 명령을 받는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뻔뻔스럽고 오만하고 야만적이며 호전적인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요나에게 명하셨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선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신다.**
- **두 번째 장면:** 요나가 이 명령을 이해하지도, 용납하지 못하고 반대방향으로 도망치자 하나님은 강한 폭풍을 보내신다 (1:4-16). 요나는 그 폭풍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고백한다. 이에 요나가 그렇게도 미워하고 무시하던 이방인 사공은 요나의 목숨을 건지는 일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요나가 두 번째 요청하자 사공들은 그제서야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바다는 일순간 잔잔해지고 이방인들은 요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선지자 요나보다도 훨씬 마음이 열려있었다.**

- **세 번째 장면:** 1:17 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등장한다. 그 물고기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입을 열어 요나를 삼키며, 적절한 때 요나를 바닷가(혹은 니스웨가 매우 가까운 강가)에 토해 놓는다.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으로부터 도저히 도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선교사가 적절한 도구가 되도록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준비시키신다.** 때로는 풍랑이나 물고기 같은 자연 미물도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기적도 동원하신다!
- **네 번째 장면:** 2:1-10 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 달라고 간청한다. 이방인들에 대해 한치의 자비심도 없던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이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은 즉각 반응하신다. 죄인, 거역자, 파괴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겠다고 고백 헌신하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데려다 주신다!
- **다섯 번째 장면:** 3:1-4 에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진리 -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를 삶 자체로 인정하는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신다. 70 인역 성경에서는 3:1-2 이하에서 ‘케뤼그마(kerygma: 선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요나는 니스웨가 아무리 경건치 않다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다. 요나의 메시지는 약속이자 위협의 메시지요, **복음이자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요나의 외침은** 겨우, 억지로(reluctant) 나오는 목소리였다. 차라리 아무도 자신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결국 니스웨가 다 망해 버렸으면~ 하는 태도.
- **여섯 번째 장면:** 하지만 **반응은 놀라웠다!** 3:5-10 에서 니스웨는 회개하라는 요나의 요청에 즉각적이고 놀랍게 반응한다. 교만하고 포악한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통회한다. 회개하는 니스웨의 잔인한 왕의 모습은 유다의 불순종한 왕들과 대조적이다. 그들은 모든 악마 같은 일과 무시무시하고 억압적인 정치적 불의를 중단한다. 그리고 참회하는 가운데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섬긴다. 이처럼 이방 세계 특히 지금의 무슬림 지역들까지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기만 하면 크고 비밀한, 엄청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선교지이다.** 하나님은 진노의 계획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루터 (Martin Luther)의 말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왼손은, 축복과 자유의 오른손으로 대체된 것이다.”
- **일곱 번째 장면:** 4:1-4 은 선교 명령을 이행할 때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이방인 사공들도, 물고기도, 난폭한 니스웨의 왕과 일반 시민들도 아닌 **“요나 자신”** - 곧 **완강하게 반항하며 편협한 마음을 가진 교회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요나는 니스웨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멸망당하지 않자, 자신의 단기선교의 수고로 인해 전해진 메시지가 뜻밖의 열매를 거둔 데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분노한다. 요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구원 역사의 일부로 생각한다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죄였다.** 이는 곧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영혼에 대한 동정심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들 모두의 죄이기도 하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는 목숨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던 그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다. 요나의 분노는 **언약의 목적** -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 - 을 인정하는 일을 고집스럽게 거부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 **마지막 여덟 번째 장면:** 4:5-11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머리가 둔한 선교사 요나에게 몇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려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요나는 폭풍우, 사공들, 물고기, 니느웨의 종족 집단적 회심 등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해 보이신다.** 그것은 기적의 나무이다. 박넝쿨 하나가 순식간에 짝이 나서 요나를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보호해 주지만, 벌레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시들어 죽어버린다. 요나는 마구 약이 오른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다듬어지지 아니한 선교사 학생에게 다시 오셔서 이 나무를 교재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신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는 어떠한가? 내가 복음 들고 가야할 곳은?
- **결론: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니느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방인, 즉 어떤 종교, 어떤 문화,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든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요나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 질문으로 끝나는데, 그 질문이란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셨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이다. 그 답은 아무도 모른다. 이방인들은 변화되었으나 정작 선교사 요나는 변화되지 못한 채로 이 책은 끝난다.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들의 순종이라는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다. 자끄 엘루 (Jacques Ellul)는 그가 쓴 <요나의 심판 (The Judgment of Jonah)>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요나서에는 결론이 없으며, 요나서에 나오는 마지막 질문에는 대답이 나와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를 깨닫고 그저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만이 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인가?

신약교회는 요나서 메시지에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시다 (마 12:39-41; 눅 11:29-32).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심은 물론, 요나가 이루지 못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다. 요나보다 더 큰 이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큰 목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요나는 택함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들과 복은 받기 원하면서도 그 책임은 거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조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 많은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사랑의 방식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Thomas Carlisle).

제 3 과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성경적 관점(The Biblical Perspective)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8)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모든 족속을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는 것이다.

1.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

나라의 의미: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지리적인 영토나 그 영토에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왕의 지위나 권위, 주권을 의미한다. 특히 구약에 8:1;대하 12:1;렘 49:34;대하 11:17;단 8:23 절 등을 보면 나라라는 말은 주로 인간의 통치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기초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그 영토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는 기도문이다. 즉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어 모든 의의 원수, 하나님의 신적 통치에 저항하는 원수들을 패배시켜 달라는 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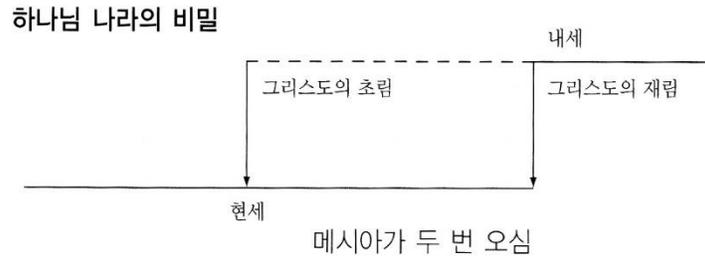
전쟁 중이신 하나님 (God at War)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40 일간 광야에서의 금식기도에 이어 **사탄과의 일전**이었다! (마태 4 장, 누가 4 장)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성육신, 道成人身)은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쳐들어 오심이었다. 사단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 영광이 모두 자기 것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다 (눅 4:5-6). 예수님은 사단이 이 세상에서 통치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여 이 불법적인 폭군에게 예배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고 **꾸짖어 내치신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주를 지배하는 세력, 공중권세 잡은자, 어둠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이었다. 주님의 그 전쟁은 곧 이 온 세상을 쥐고 있는 ‘무장한 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장해제 시키는 일이었다 (눅 11:21, 22). 예수님은 사단과 그 휘하의 귀신들이 통일된 나라를 형성하고 있음을 잘 아셨다. 존 뉴포트 John Newport 는 그들을 사단이라는 한 사령관의 지휘 하에서 단 하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빈틈없는 죽음의 조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도 사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70 명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돌아온

후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신다 (눅 10:17). 저명한 종말론 신학자 조지 엘든 래드 (G. E. Ladd) 는 그의 책 *Jesus and the Kingdom* (pp.145) 에서 이 본문은 제자들이 귀신 쫓는 사역에 성공한 것이 곧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갖게 된 권세를 행사함으로써 악의 나라 전체가 정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2. 조지 엘든 래드 (G. Eldon Ladd) 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Kingdom)”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래드 박사는 이 아티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 그림 참조)로 임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삼중적 승리]를 안겨 주셨다고 설명한다 - 곧 사망, 사탄과 죄에 대한 승리이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은 모든 원수를 멸하려는 것이었다 (고전 15:24-26). 이 일은 사실상 미래에 (예수님 재림 때) 다가올 일이지만 또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다. 우리 주님은 재림 시에 완성하실 일을 죽으심과 부활로써 이미 시작하셨다. 사망은 폐하여지고 멸망 당했다 (딤후 1:10). 사탄 역시 멸망 당했다 (히 2:14). 그리고 로마서 6:6 에 보면 죄의 몸은 폐하여지고 사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멸망 당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멸하고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동일한 단어 **destroy**(쳐 부수다, 무너뜨리다, 이기다) 가 이 삼중적 승리에 대해 세 번 사용된다.



* 말세의 범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다시 오실 그날) 까지 기간을 뜻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신비스럽거나 깊거나 어둡거나 심오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으나 지금은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계획하셨고 사람들로부터는 감추어졌으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새로운 계시에 의해 나타난 것을 뜻한다. 예로 **메시아는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이다.**

1) 구약의 관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권능의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하나의 격변하는 사건이라고 보았다. 즉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평강과 권능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단 2 장).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시는 날에 모든 다른 (사탄과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 통치는 끝이 나고 열국의 통치에 나타난 인간의 교만한 주권을 깨뜨릴 것이다.

2)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함 (*Already But Not Yet*)

구약의 관점과는 달리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 즉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 (**Already**)과 더불어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Not Yet**)이라는 두 단계로 보았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요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 될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다시 임하여 모든 지상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낼 것이다.

이 두 기간 사이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마 13 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세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예상치 못한 상태로 임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사이에 신성한 생명이라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조용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씻어내면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인가?

마 24:14 절을 보면 주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실제로 종말의 때가 되면 악이 강화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 역사한다. 그제야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때까지 교회는 세상에 남아 있는 악과의 전투를 감당해 나가고 우리는 여전히 피를 흘리게 된다 (고난과 핍박과 순교).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에 의해 일어난 궁극적인 승리가 미래에 충만히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선교에 헌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죽어서 천국 갈 순간을 기다리기 보나, 죽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며 마 24:14 의 성취를 위해 전심전력해야 하지 않을까.

마태복음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론 성경 신학자 조지 래드는 마 24:14 말씀 해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를 설명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적절하게 증거 되어 모든 종족이 그 복음에 반응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려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마태복음 24 장 14 절은 성경에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하는 유일한 구절이다. **세계 복음화는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위한 명백한 조건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다니엘 7:13-14 ¹³“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¹⁴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종말의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할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다. **“Go Ye Therefore”(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면, **우리가 죽음을 보기 전, 곧 우리 세대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복음 전파, 세계 선교에 속히 동참하라!

3. 하나님 나라의 선교(The Mission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와 사단과 사망에 대한 승리의 메시지**이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 이미 하신 일과 계속하고 계신 일을 알려 준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다. 이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 밑에 있는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아직 어둠의 세력 아래 놓여있는 지역과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을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와 결박으로부터 건져내는 영적 전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도록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는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며 교회의 순종에 엄청난 의의를 부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셨다. 인간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의 성취 여부에 따라 이뤄진다.**

하나님 선교를 맡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은 자신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 간의 싸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이방을 구속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대해 그들에게 분명한 그림을 주셨다.

(1) 주의 날

- 1) **하나님의 심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여기던 열방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임할 것을 경고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방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려는 열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1:10-11). 이스라엘은 반면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못했다 (말2:1-3;4:1-6).
-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의 경고:**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단숨에 과멸시키는 구약의 전통적인 환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앞으로 임할 엄청난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 3)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도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역사의 전환점이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다. 요한과 일반 사람들은 말라기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유력한 제사장들과 통치권자들 그리고 로마제국까지도 맞서 싸울 메시아로 인식을 하였다.
- 4) **뜻밖의 메시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 대신 학대받는 자들을 치유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라고 외쳤다.

이러한 사역이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귀한 사역이라고 증거하였다.

(2) 놀라운 종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한 것처럼 통치자들을 정복하지 아니하셨다. 대신 예수님은 종에 대해 언급하는 이사야 본문에 있는 **다른 모델들을** 제시하셨다 (사 42:1-12; 49:1-6; 52:13-54:12 본문을 읽어보라).

(3) 인자(人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인자 (Son of Man)라는 메시아적인 칭호를 인용하셨는데 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왕이신 인자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단7:13-14).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는 칭호를 취함으로써 히브리 민족 즉 배타적인 의미에서의 유대 나라와 동일화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족속들을 포함하는 전체 인류와 동일화**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이며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아셨다.

4. 기도: 현상에 대한 탄식과 저항 (Prayer: Rebelling Against the Status Quo)

예수님의 제자들은 중보기도로 우리가 속한 모든 현상(現狀)에 도전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인되는 곳(현상)에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고, 예배와 송축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시되는 곳(현상)에서 그 통치가 시행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곳(현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아버지께 간청해야 한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현상들, 그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 반대하고 올바른 것을 요청하는 '소송 행위'가 바로 기도요, 우리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끈질기게 감당해야 한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 조차도 감동시킨 끈질긴 과부의 강청처럼 말이다(눅 18:1-8).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사례 - 칼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은 들으시며 세상은 변화된다 (God Listens and the World Changes) - 마약과 반군의 나라인 남미의 콜롬비아 칼리시(Cali, Colombia)에서 일어난 교회 지도자들과 교단 교파를 초월한 연합중보기도의 위력. 악명 높은 마약과 범죄의 도시가 1995년 한 사람 중보기도자 홀리오 목사님의 열정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인해 1월부터 시작된 목사 연합회 주관 매주 연합중보기도회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 매주 3만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밤새도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생하던 살인과 온갖 범죄가 그 도시에서 사라지고,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900명의 경관들이 경찰에서 해고되었으며, 마약 카르텔 보스들이 모두 체포됨. 홀리오 목사님은 범죄자들의 총탄에 희생되었지만, 계속되는 교회 연합 철야기도를 통해 반부패 수사가 펼쳐지고 칼리시는 경제적으로 25% 이상 성장. 칼리의 교회들은 엄청난 영적 폭발로 성장. 동시에 콜롬비아 전역에서 2년간 200명 이상의 목사들이 게릴라들이나 준군사 조직에 의해 살해, 순교당한 댓가가 치러짐. 유튜브를 통해 **Transformations I & II. Full Documentary - The Power of Unity, Prayer and Fasting** 이란 제목의 동영상 2편을 검색하여 반드시 볼 것을 권한다. 영적 화합과 협력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배우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낙스 목사(John Knox)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 마태 18:20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 야고보서 5:16b

5. 전략적인 기도

(1) 사회적 영적 세력들

우상숭배와 견고한 진이라는 두 가지 문화 복합체가 종종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는 곳을 붙잡고 있어서 복음 선포와 심지어는 지역 사회 개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만든다.

이 두 가지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도사역, **특히 연합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중보기도가 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앞서 화해와 회개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단과 교파, 교회 간의 화해와 협력, 지역간의 화해, 역사적으로 대립하고 미워하던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 서로 원수같이 여기던 지역 사람들 간의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중보기도 - 복음을 위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이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예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응답하신다.

(2) 강력한 기도는 마술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투에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가 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3)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기도는 미전도 종족 전도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없는 지역은 특히 견고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전략적인 중보기도는 숙명론적이고 절망적인 사고방식을 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신된 기도자들이 정확한 최신 정보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선교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 4 과 열방을 위한 명령 – 대 위임령

(Mandate for the Nations)

성경적 관점(The Biblical Perspective)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중 어떻게 선교를 추구하는 삶을 사셨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선교의 요점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lso send you! 요 20:21)** 라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대 위임명령이 담겨있다.

(마가 16:15-19, 마태 28:19-20, 사도행전 1:8 참조)

- 위임령(Mandate)은 명령(Commandment)과 다르다. 직접적인 명령보다 위임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도록 명하되 그 일에 합당한 권위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위임령을 주시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그리스도는 다시 당신의 이름 권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대위임령을 주시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하 만국과 그 영광”(마 4:8) 곧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선교 수행 전략은, “소수의 지도자(제자들) – 유대인들 – 이방인들 – 모든 열방 – 종족집단”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이 계획은 성령님에 의해 계속 확장 수행되고 있다. * 열 두 사도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것과 같이, 칠십인 전도대는 모든 족속, 이방 나라들을 상징한다.
- 하나님의 열방 구원 계획은 분명하지만, 그 계획이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정신 없는 신학자들은 이른바 **“만민 구원설”** 개념과 **“구원의 다원주의”**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이단사설들이야말로 오직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구원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 곧 세계선교의 대 명제를 거부하고 희석시키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사설들이다.

1. 예수님과 이방인들 – 모든 종족을 위한 한 사람 (A Man for All Peoples)

마태복음 4 장과 누가복음 4 장(16 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설교에는 장차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인가를 짐작케 하는 이름들이 나타나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구태여 구약 엘리야 시대의 대 흉년 중에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던 **사렙다 과부**와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또 다른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언급하심으로써 장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셨다. “모든 종족을 위한 한 사람”이란 Don Richardson 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뜻함.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To the Jews First)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역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에게는 창세기 12 장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적인 측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약속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졌다. 예수님의 때까지도 하나님은 유대인, 유대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열두 제자를 첫 전도 사역을 위해 내보내실 때도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의 고을에도 들어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6)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와 영감을 받아 직접 사도로 임명 받은 바울까지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롬 1:16; 2:10)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듯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기간 중에 벌써 이방인들에 대한 지대하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심으로써, 장차 복음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되리란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예시하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과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감안하시고 **이방인 우선 구원, 그리고 유대인 나중 구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순서)**이란 엄청난 역설적인 전략을 매우 조심스럽게 내비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놀라운 구원계획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것임을 잘 아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에게 사실상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역설을 속히 스스로 깨닫고 이방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쉽게 깨닫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후에도 제자들은 무척 느리고 힘겹게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 **이방인 우선, 유대인 나중의 원리**는 후에 사도 바울의 사상과 그의 실천적 선교사역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다마스쿠스 도상에 나타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 어쩌면 앞선 열 두 사도가 이 사실을 어서 (제 때에)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이방인을 위한 별정직 사도로 사울을 세우셨을 수도 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쓴 지극히 선교적인 서신 로마서가 그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방인들과의 접촉

누가복음 10 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전도대를 파견하실 때는 70 인(72 인)이 둘씩 짝을 지어 나갔다. 창세기 10 장에 열거된 노아의 후손들이 70 인이요, 랍비 전통에서도 바벨탑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들의 총 숫자를 칠십이라고 언급했다. 열두 제자는 이스라엘의 압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면, 70 인 전도대는 후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궁극적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훈련차 보내심을 받은 것이었다**(Cornell Goerner).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를 통해 놀랄 만큼 여러 번 이방인들과 접촉한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공생애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이 아닌, 그 당시로선 이방인 지역에 더 가까운 갈릴리 지방 (특히 가버나움)에서 보내신 것도 갈릴리 지방이 헬라인, 로마인, 시리아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사는, 다민족, 다언어 사회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의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면,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방에서의 다양한 이적과 기사를 듣고 허다한 무리가 요단강 건너 데가볼리, 멀리는 수리아(그 당시 거대 이방 도시였던 다마스쿠스), 그리고 물론 예루살렘 등 유대 쪽의 여러 지방으로부터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마 4:23-25).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셨고 매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그것도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역으로 보내셨던 것이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Don Richardson).

가다라 지방 귀신들린자를 고쳐주심(마 8:28-34), 열 명의 한센 병자 가운데 돌아와 감사한 이방인 (눅 17:12-19),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요 4:5-42), 딸이 고침 받은

가나안 여인 (마 15:28)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다. 이 이방 여인의 경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의식하셔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는 편견을 부수기 원하셨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눈을 찡긋하시면서(twinkle, twinkle)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자, 예수님의 이런 온유하고 장난기 어린(playful) 표정을 본 여인은 금새 주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답하기를,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심(마 8:8-12),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요 12:22) 을 보고 주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23),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이 말은 ‘every single people’이란 뜻이 아니라, ‘all peoples’ 곧 ‘모든 족속들’이란 뜻이다) 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 12:32) 라고 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듯 나아가신다.

마지막 주간 (The Final Week)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만의 메시야가 되기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새롭고 다인종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민족, 곧 새로운 이스라엘(영적인 이스라엘)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으며 마지막 주간에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다.

-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 입성하신 뜻** – 스가라서에 나오는 왕, 곧 나라들에 화평을 말할 것이며,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메시아로서의 왕이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슌 9:9-10. 말 3:11; 4:5; 마 11:14 참조).
-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시며**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은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드시고 열방이 성전에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으나,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 점점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전을 유대인만의 선택된 장소로 만들었다. 예수님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유대인 장사치들과 성전출입비 전용 동전을 전문적으로 고리로 교환해 주고 돈 버는 환전업자들을 대신 끌어들여 그 뜰을 채우고 이권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제물로 드려진 양이나 소를 빼들려 일반인들에게 되파는 장사치도 있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을 드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유대인들을 향해 의분을 터뜨리며 **“내 집은 만민(모든 족속,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막 11:17; 대하 6:32,33)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 성전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고 다른 용도로 왜곡시킨 것을 주님은 꾸짖으셨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의분이었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 21:43).
- **세상 종말에 대하여** 언제 세상 종말이 오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오해하지 말라. 종말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3)

-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 26:12-13).
- **최후의 만찬**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많은 족속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28)

지상명령(Go and Make Disciples)

- **부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panta ta ethne*, 판타 타 에프네: 모든 종족/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눅 24:45-48).
- **지상명령**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 **또 다른 약속**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2.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함 (Lost) – 만민구원설에 관한 선교적 변증론 (Dr. Robertson McQuilkin, Columbia Biblical Seminary www.ciu.edu 전 총장)

- **A. 보편주의라고도 부르는 만민구원설의** 시발점은 3세기 신학자 오리겐 (Origen) 이라고 할 수 있다. 만민구원설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시므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이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은**, 성경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로 분리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속죄와 구원과 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보편주의자들은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인정주의”에 의존하는 대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 전파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있거나 없거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왜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는 일을 교회의 일차적 임무로 삼으셨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지옥, 즉 구원받은 사람과 잃어버려진 사람들 간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눅 16:19-31). 더불어 주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마 7:13-14).

- **B. 더 광대한 소망 이란 이론** 만민 구원설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드러나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 **반론 2** 만약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종교는 진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영역이란 말인가? 진지함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
- **C. 새로운 더 광대한 소망 이란 이론** 구원의 지식이 없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빛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일반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해서 모두 구원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그들은 적어도 죽을 때, 혹은 죽은 후에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론. 이는 좀 더 보수적인 신만민구원설이다. 이들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거부한 사람만이 영원히 잃어버려지게 되리라 (지옥 형벌에 처해지리라) 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범죄에 가깝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더 큰 정죄를 받게 되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일반계시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반론 3**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허탄한, 그래서 마귀나 좋아할 주장이다. 복된 소식인 복음을 도리어 나쁜 소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펼치는 신학자들은 사실 이름만 신학자이지, 진리를 왜곡하는 신학 연구로 생계와 명예를 유지하는 철저하고 가증한 불신자들이다. 이들을 향해 성경은 선포한다. -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3:18, 36)
-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죽은 내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답변** Robertson McQuilkin 박사의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관한 이론을 수립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잘못된 소망을 실은 이론이나 글은 그 읽는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요, 참되시고 의로우실 것이다 (창 18:25, 계 16:7).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내세 운명에 관해서도 왈가왈부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리인, 곧

심부름꾼으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주고, 포로에게 특사를 선포하며,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라는 임무를 받았다.

- 결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3. 그리스도의 유일성/탁월성 VS 다원주의에 관하여 (Dr. Ajith Fernando)

- 다원주의란 어떤 하나의 사고체계를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할 수 없는 철학적 가정을 말한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곧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구원 교리를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 다른 사상에도 구원에 도달하도록 하는 어떤 길이 있다는 종교철학적 논리이다.
- 세계 여러 지역에는 여러 형태의 종교다원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 종교다원주의 주창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선교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반대한다. 첫째로, 기독교 선교가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고집불통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메시지가 사실상 다른 종교들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종교다원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수님의 유일성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월하시다는, 부끄럽지 않고 심지어 즐겁기까지 한 확신을 견고히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 진리를 찬성하고 선포하는 논증은 예수님의 성육신 Incarnation 이라는 엄청난 사실에 근거해야만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절대진리는 절대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려질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사람들이 그저 진리를 지적으로 깨닫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 진리, 생명, 곧 하나님이신 그 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 곧 복음이 배타적인 이유는, 복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희생제물로서의 죽으심이 있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 말로 다른 여타 종교들과 구분되는, 복음의 독특성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다른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E. Stanley Jones)**.

제 5 과 복음을 자유롭게 함 (Unleashing the Gospel)

성경적 관점(The Biblical Perspective)

고삐를 풀고 막힌 물길을 열어 온 천하로 복음이 마음껏 흐르게 하라.

5 과의 제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unleashing** 이란 말의 뜻은 ‘고삐를 죄어두었던 말을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풀어준다’ 혹은 ‘개의 목에 묶여진 줄을 풀어준다’ 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Unleashing the Gospel** 이란 제목의 뜻은, 여러 가지 율법적이고 비본질적인 고정관념이나 제한과 뺄어진 전통에 묶여있던 복음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란 경계를 벗어나 이방인들과 온 세계 모든 족속에게로 마음껏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새로운 관습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와 무언가 해야만 구원받는 “공로”를 쉽게 혼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신자가 만약 선교사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문화를 채택하게 되면, 그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국외자, 배신자로 취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더 이상 흘러가지 못 할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와같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 외의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질 수 없는 멍에를 지우는 것이다.

1. 전환점: 복음을 자유롭게 함

The Turning Point: Setting the Gospel Free

복음이 자유롭게 열방 곳곳에 퍼져 나가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15 장에 묘사된 예루살렘 공의회**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신 후 복음이 폭발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면서 신약교회가 일찍이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문화적 충돌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율법이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수십 세기동안 모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이상이었던 것이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5 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님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8)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가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9)…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28)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찌니라… (29) …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기뻐하더라” (30-31).

2. 모든 민족들을 위한 교회 A Church for All Peoples

To Know Him and Make Him Known 이란 교훈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콜럼비아 비블리컬 세미나리(www.ciu.edu) 선교대학원 (바나바스김경환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 원장을 역임한 Kenneth B. Mulholland 박사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지역 교회 (local church)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존 스토틀(John R.W. Stott) 박사의 사도 행전 주석 가운데 다음 부분을 인용한다.

성령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과 관련되어 있었다(순종으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성령충만한 교회는 사도적 교회, 신약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교회이다. 둘째로, 그들은 서로와 관련되어 있었다(사랑으로). 그들은 서로를 지원해 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꾸준히 교제를 지속해 나갔다. 성령충만한 교회는 사랑하고 돌보며 나누는 교회이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다(예배를 통해). 그들은 성전과 집에서, 성만찬과 기도에서, 기뻐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성령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이다. 넷째로, 그들은 세상과 관련되어 있었다(전도를 통해). 그들은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에 힘썼다. 자기 중심적이고, 따로 동떨어진 교회(자신의 편협한 관심사에만 열중하는)는 어떤 교회도 성령충만하다고 할 수 없다. 성령님은 선교하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충만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Mission:** It is the very nature of the church! Churchless Mission (교회관이 없고, 교회론이 형성되지 않은 선교단체도 문제요, Missionless Church (선교에 대한 이해와 펠스펙티브가 없는 교회) 역시 문제이다.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선교단체 만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역동적 등가의 교회 Dynamic Equivalent Church: 다양한 타문화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역동적이고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곧 수신자의 입장에서 수신자 지향적으로 전달하되 그 복음의 본질과 핵심 가치는 전혀 손상하지 않는 것을 역동적 등가(力動的 等價, Dynamic Equivalence)의 법칙이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개인, 그리고 선교사는 반드시 이 원칙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김용식 박사가 선교학 전공으로 Ph. D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국 풀러신학교 (fuller.edu) 세계 선교대학원의 찰스 크래프트 교수 (Charles H. Kraft, Fuller Seminary, 전 나이지리아 선교사)가 그의 책 <기독교와 문화 Christianity in Culture>에서 주창한 현대 교회와 선교지 교회 (선교사역)의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의 기본 원리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인간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다. 이것은 곧 수신자 지향적 계시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 자신과 복음(천국)을 인간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전해 주시기 위한 역동적인 방법이였다. 우리 (교회, 선교사, 개개인 성도 모두)도 역시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등가等價),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고삐를 풀어 온 세상의 각각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지닌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

3. 사도적 열정 Apostolic Passion

국제예수전도단(YWAM)의 존경받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인 플로이드 맥클링(Floyd McClung)은 ‘열정 passion’과 ‘사도적 apostolic’이란 말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는 강력한 초대라고 규정하며 하나님은 바로 그 ‘열정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열정’이란

말의 라틴어 어원인 ‘passere’에는 ‘고통’이란 의미가 담겨있다. ‘열정’은 어떤 일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통스러우리만치 집중하고 안타까와하며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사도적 열정이란 말은,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살기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불타는 사람들,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차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닌 자질이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사도적 열정을 유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열정을 주실 때 -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려는 소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증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다음 네가지 요소가 우리 삶 속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a. 사도적 포기 Apostolic Abandonment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치른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 바울이 맺은 사역의 열매는 원한다. 바울은 죽었다. 모든 것에 대해 날마다 죽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의지가 굳고 완고한 이 사람은 자기가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자신이 육신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계시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죽었고 자신을 포기했다. 우리도 기도하자 - “주님, 저의 이기적인 야망과 자아에 대해 죽지 않으려는 마음을 모두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을 포기하면 주님은 그 작은 것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b. 사도적 초점 Apostolic Focus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고 부르셨고 축복하셨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면서 원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제일 우선적인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을 일으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c. 사도적 기도 Apostolic Praying

뉴욕 맨하탄 타임 스퀘어 교회를 개척하여 1 만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시킨 데이빗 윌커슨 (David Wilkerson) 목사님은 뉴욕시 거리 봉사사역을 위해 자원한 한 성경학교 학생에게, “거리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한 달간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하고 오라, 왜냐하면 온갖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영적 전쟁터인 거리에서 사역하려면 최소한 하루 두 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나가야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영적 전쟁인데 하물며 복음 들고 선교현장을 누비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도적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눈물로...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여” 기도했다고 말한다. 사도적 초점에 맞추어 드리는 사도적 기도는 영적 전투의 핵폭탄이다.

d. 사도적 의사 결정 Apostolic Decision-Making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열정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 행 20 장과 21 장에 보면 바울이 고난을 받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면서도, 참된 선지자들의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이야기가

나온다. 왜 그는 자신의 직관을 거슬러서 행동했을까? 선지자들이 열심히 권하고 친한 친구들이 눈물로 간청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바울은 더욱 큰 우선 순위, 더욱 큰 동기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 이었다. 사도적 의사 결정은 열방과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는 열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는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길까요?” 라고 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온갖 사소한 욕구들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당신이 만약 사도적 열정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4. 교회와 사도단 (The Church and the Apostolic Band)

초대교회는 대부분 소규모 ‘가정교회들’이었다. 그런 가정교회들은 전체 도시 구석구석으로 신속하게 배가해 나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존 교회들의 테두리를 넘어 타문화권까지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셨을 때, 또 다른 교회 구조가 생겨났는데 이를 “사도단”이라 불렀다. 이 책의 주 편집자인 랄프 윈터 박사(Ralph D. Winter)와 풀러 신학교 세계 선교대학원 학장을 역임한 아더 글래서 박사 (Arthur Glasser)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라는 관점으로 보고, 이 두 구조란 곧 **양육 중심의 회중 (교회) 구조 (Modality 모달리티) 와 기동성 있고 특수한 목적 중심의 선교단 (Sodality 소달리티) 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 두 구조는 곧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효율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회중 구조와 사도단 (선교단체) 구조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회중구조(모달리티)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 1 헌신, 제 1 결단**) 양육받고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은 **제 2의 헌신, 제 2의 결단을 통해** 사도단(소달리티: 선교단체)에 가입하여 선교지로 파송되거나 혹은 선교에 헌신된 삶을 살게된다. 이 소달리티의 복음 전파와 양육의 결과로 선교지에서는 소규모의 ‘가정교회’로부터 비롯되는 또 다른 회중구조 (모달리티)가 형성되고, 이 모달리티에서 양육 훈련되고 제 2의 헌신을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시 소달리티로서 (개인, 소그룹, 혹은 선교단체의 일원으로) 복음들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사도단은 타문화에 복음을 접목시키는 Cultural Hybrid (두 문화 를 하나로 융합하여 최상, 극대화 함) 역할을 감당했다.**

초대교회와 사도바울의 사도단(Apostolic Band) 사이의 관계에서 보듯이, 파송(후원) 교회로서 모달리티는 선교단체(혹은 선교사 개인) 인 소달리티의 가치와 필요성, 역동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전략 수립, 방향 설정, 사역 실행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시에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제 2의 헌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사도단 (선교단체) 은 그 독특한 은사와 인적 자원, 그리고 전도 기술을 꾸준히 개발함과 동시에 모달리티인 지역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율적이되 정직성과 성실성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을 잘 유지해야 한다. 모달리티 없는 소달리티가 있을 수 없고, 소달리티가 없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있는 모달리티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이 두 구조는 **의미심장하고 거룩한 공생 관계구조**이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사도단과 그 사도단이 설립한 교회들 간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 애썼다. 몇몇 교회들은 바울을 잊어버리고 바울의 전도적, 선교적 노력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 어떤 교회들은 바울을 반대하기도 했고, 혼합주의적인 사상, 거짓 가르침, 추잡한 율육 등에 놀랄 정도로 쉽게 넘어갔다. 또 다른 교회들은 너무 연약해서, 바울은 마치 유모가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그 교회들을 돌보고 바라 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했다. 하지만 빌립보교회 같은 활기 있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빌립보교회는 바울을 사랑하고 희생적인 선교 헌금과 온갖 필요들을 채워주고 공급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했으며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대표로 파견하여 바울을 돌보고 곁에서 돕도록 하기도 했다.

아떠 글래스 Arthur Glasser 교수는 특히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바울 자신과 그의 사도단이 서바나(스페인)와 서부 지중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에 제 2의 안디옥교회로, 곧 사도단의 선교의 **새로운 작전 및 후원 기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롬 15: 22-24) 고 강조한다. 바울은 로마교회가 장차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 동참할 숙련된 사람들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재정후원 및 기도후원을 해 주게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커다란 이교도 도시 로마에 흩어져 있는 강력한 가정교회 집단(로마교회)으로 하여금 로마 저 너머 스페인 지역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일깨워주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다.** 롬 10:11-15 말씀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회와 선교, 고정된 회중 과 기동성 있는 선교 단체의 역동적인 협력과 조화가 곧 하나님 구속적 선교의 이중구조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인 것이다.

5. 사도적 고난, 고난의 전략

사도적 고난(Apostolic Suffering)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고난을 당했다. 그는 심지어 빌립보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매를 맞았다. 왜 그랬는가? 그의 희생을 각오한 행동에는 분명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후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단지 믿게 되는 은혜 뿐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빌 1:29-30)라고 말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란 특권을 사용하여 교묘히 빠져 나가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공개적으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교회는 그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빌 1:5-6). 복음 안에서 하는 이 눈물겨운 교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간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 (빌 3:10).

루마니아가 차우세스쿠 공산독제 치하에 있을 때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 조세프 쏬(Josef Tson)은 “고난과 순교 -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략” 이란 아티클을 통해 루마니아 교회와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순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성도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고 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고문을 당하신 끝에 죽음을 당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 1.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 2. 사탄의 패배 3.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짐. “그리스도의 사신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이상한 기적, 곧 이를 바라보던 불신자들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쥘은 증언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교로 사탄은 승리가 아니라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고난의 전략 (The Strategy of Suffering) - 죽으면 죽으리라!

아더 글레서 박사(Dr. Arthur Glasser, 풀러신학교 세계 선교대학원)는 선교 (전도) 를 위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기본 원리요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곧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회중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끔 (골 1:24) 고난받는 사람들과 고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난은 사람들의 눈을 복음으로부터 가리려는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가 겸손과 인내,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써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달게 받을 때, 그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원수 마귀를 낙심케 하는 전략은 없다. (딤후 1:8,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 새뮤얼 즈웨머(Samuel Zwemer)는, “**세계의 미점령지는 오순절의 승리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갈보리의 고난을 거쳐야 한다**” 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구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체제와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이슬람 체제 속으로 수많은 성경책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보급해 온 **Open Doors International** (오픈도어 선교회) 대표인 브라더 앤드류 (Brother Andrew)는, 복음을 위해 순교 당한 수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를 증언한다. 고난은 열정적인 기도 (금식, 중보, 강청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열매 맺게 된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 모범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자기 백성 (고난 받는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태도 - 이다. 느헤미야는 고난 받는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identification)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리고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해 간구할 때, 우리는 또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는 일사각오의 자세가 필요하다 -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 구원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요, 두 번째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었다.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Tetelestai!) 하시는 순간 “단번에”(히 9:26) 이루어졌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채워지지 않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에서 요구되던 모든 것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 위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겪으신 고난과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설새없는 사역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배고픔, 불편함, 끊임없는 적대감 (요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영적인 반대와 학대 (spiritual abuse)를 경험하셨다. 그러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섬기려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려 할 때 겪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십자가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고난을 감내하는 자의 삶과 사역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 디모데후서 1:8,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6.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에 관한 보충 설명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랄프 윈터 박사는 교회가 성경에서 발전되는 형식들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 구조 내에서 발견되는 형식들을 따름으로써, 선교를 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스스로 확장되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비록 표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변화되었지만 역시 전체를 통틀어 볼때 '교회' 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기본적인 구조, 즉 회중구조와 선교구조를 의미한다. 윈터는 역사상 여러 다른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규정하도록 돕기 위해 '모달리티' (Modality) 와 '소달리티' (Sodality)라는 사회학적 용어를 도입한다.

- 모달리티 구조는 총괄적이고 양육 중심적 구조로 된 단체이다 (예를 들어 교회 회중이나 세속도시).
- 소달리티 구조는 이차적 결정, 과업 중심적 구조로 된 단체이다 (예를 들어 선교회나 군대)

민간 사회나 종교 단체에 이러한 두 구조가 모두 존재한다. 또한 성경에도 두 구조가 모두 나온다. 두 구조 모두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에 매우 필요하다. 소달리티 구조는 교회를 양육하고 확장시킨다. 모달리티 구조는 선교단을 강화하고 후원한다. 그리고 두 구조는 중요한 공생관계로 함께 협력한다.

- 1세기 이전과 1세기 동안의 구속적 구조** 회중 구조는 당시의 회당 유형을 따랐다. 한편 선교 구조는 유대 랍비들의 선교 운동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곧 대단히 역동적인 선교단이 되었다. 그것은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하던 바울의 소그룹들과 비슷한 것이었다.
- 로마 문화 내에서의 초기 발전** 지역 회중 구조는 각 지역 관할권을 가진 감독들을 승인했는데, 이는 로마 행정 장관의 관할 구역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관할 구역을 '감독 관구' (diocese)라고 불렀다. 당시 등장한 선교구조-수도원운동-는 로마의 군사훈련 형식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개신교도들은 대부분 수도원이라고 하면 의례 금욕적인 수도사들이 세상에서 벗어나 모여 있는 곳이라고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수도원 운동이야말로 세상에 복음의 축복을 가져오는데 큰 몫을 감당했다. 대표적인 예가 수도원의 성경 및 각종 경건서적 필사의 공로이다.
- 중세의 통합.** 교회 구조가 살아남는지의 여부는 대체로 수도원 운동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전념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몇몇 선교운동은 수도원에서 생겨났다. 하지만 수도원이 부유해지자 지역 통치자들이 수도원의 주도권을 요구하며 장악하였고, 그에 따라 수도원은 영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 개신교의 회복.** 개신교는 복음을 중시하고 찬양하면서도 그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는 참담할 정도로 실패하였다. 거의 200년동안 사실상 선교적 노력이 전혀 없었다. 개신교 운동의 과오는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시대의 폐습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수도원과 같은 소달리티 구조를 무조건 폐기처분한 것이다. 그들이 수도원의 존재가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선교적 구조를 보존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 윌리엄 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수단Means을 사용’하라고 요청했다. 그가 말하는 ‘수단’이란 곧 조직적인 선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케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기 전에 먼저 선교회를 구성했다. 일단 개신교가 교파 교단 중심이든, 초교파적이든 선교회라는 소달리티 조직을 결성하고나자 개신교 선교는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 e. **현대의 오해.** 개신교 선교는 처음에 교단적 뒷받침이 없이 시작되었다. 한 때는 독립적이었던 구조들이 점차 정리되었으며 결국에 가서는 교단 지도자 들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선교가 건강하게 확장되기도 했지만 또한 선교의 확장에 문제가 생겨났다. 그 결과 ‘믿음선교’ (Faith Missions) 라는 선교 구조가 시작되었다. 믿음선교는 한 마디로 교단과 교회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시작된 초교파적 선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교단으로부터의 정해진 재정후원과 행정적인 간섭을 받는 대신 오로지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행정과 사역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선교운동이다. ‘믿음선교’로 인해 두 번째로 비교파적 기구들이 등장 했다.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내지 선교회(CIM, 후에 OMF), C. T. Studd의 WEC 그리고 국제OM도 처음 시작은 Faith Mission이었다. 매우 존경받는 몇몇 교단 교파 지도자들이 어떤 교단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몇몇 선교 기구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교 기구들은 별로 확고한 지지나 후원을 받지 못했다. 때로 소달리티 구조의 적법성에 관해 비판과 의심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선교지에 새로 설립된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만한 선교기구를 만들도록 권장되지 못했다. 지금은 ‘제3세계’ 선교사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 선교사 들은 파송교회나 선교지 교회의 후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다.

“천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주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 Melville Cocks 선교사의 묘비 (이집트 카이로의 한 뒷골목에 있는 그의 무덤)

제 6 과 세계 기독교 운동의 확장

(The Expansion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역사적 관점 (The Historical Perspective)

6 과에서는 지난 4,000 년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한 지역과 한 종족으로부터 다른 지역과 다른 종족으로 계속 확장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래 다섯 차례의 400 년 주기마다 복음이 여러 지리적인 지역들과 문화적 영역들에게 파고 들어갔는지를 살펴보고, 역사상 핵심적인 선교 지도자들과 선교 운동들, 그리고 그들의 선교 전략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랄프 윈터 (Ralph D. Winter)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격: 구속사에 나타난 10 시대”라는 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10 시대(Epochs)에 걸쳐 4,000 년간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에 가장 중요한 드라마라고 본다.

창세기의 처음 열한 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거기에는 1) 영광스럽고 ‘좋았던’ 태초의 창조, 2) 반역적이고 파괴적인 악의 등장, 그리고 3) 그 반역에 휘말리고 그 악한 권세 아래 놓이게 된 인간에 대한 설명이 있다. **창세기 12 장부터 성경 끝부분까지는 [악의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격을 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여 악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다섯 시대와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의 다섯 시대로 구분이 된다. 이 10 시대를 모두 연결해 주는 주제는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요일 5:19)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특별한 복을 주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은 다른 열방과 나누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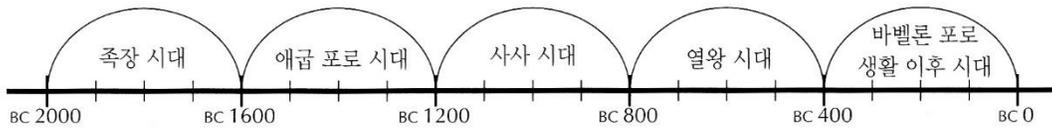
I. 4,000 년간 펼쳐지는 이야기의 전반부 (The First Half of the 4,000-Year Story)

창세기 12 장에 나오는 이 구속사는 BC 2000 년 무렵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 440 년간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아시아-아프리카의 지리적 중심부로 이야기가 옮겨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 (족장들의 시대)에 모든 열방들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라는 중요한 명령 (창 12:1-3)을 아브라함에게 두 번 (18:18; 22:18), 그리고 이삭 (26:4)과 야곱 (28:14-15)에게 각각 한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증거는 미약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요셉은 분명 애굽에 큰 복이 되었다.** 바로 마저도 요셉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다고 인정했다 (41:38). 그렇다고 하여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도적으로 선교를 하게 된 것도 아니고 형들이 헌금을 모아 요셉을 애굽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각각 400 년 정도인 그 다음 네 기간은 (2) 애굽의 포로시대, (3) 사사시대, (4) 열왕시대, (5) 바벨론 포로 생활 및 분산시대였다. 이 다섯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 확장시키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성실하신 섭리의 연속이요, 각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로부터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바라시는 인내의 시간들이었으며, 인간들의 편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축복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한 시대 한 시대가 안타까이 반복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인간 각 시대의 미흡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시대를 허락하시고 오래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헤 바실레이아 투 떼우, *he basileia tou theou*)**을 이루어 나가셨다.

구속사의 10시대 : 전반부 BC 2000년-0년



하나님은 가능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필요한 곳에서는 **비자발적인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요셉, 요나, 그리고 에스더와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라 등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 것 등은 바로 하나님이 비자발적인 수단을 통하여라도 **축복을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간 여자 아이는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나눌 수 있었고, 나오미는 자기의 아들들 및 그들의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나누었다. 다른 한편으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 수리아사람 나아만, 그리고 스바 여왕은 모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끌려 **자발적으로 왔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네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하셨다: 그것은

1) 자발적으로 나아감, 2) 선교적 의도가 없이 비자발적으로 나아감, 3) 자발적으로 나아옴, 4) 비자발적으로 나아옴이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교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해오셨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그 일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고 협조하지 않기도 했다. 선교하도록 부름받은 나라들이 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 덕분에 많은 종족 집단들이 실제로 복음을 접했다. 그 집단들 중에는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 불레셋 사람들, 앗수르 사람들, 시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바사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메데 사람들, 엘람 사람들, 로마 사람들 등이 있다.

***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의 4 가지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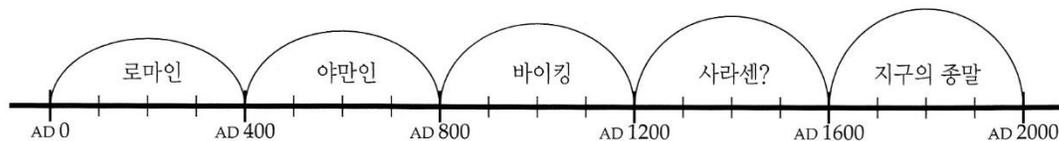
메카니즘	구 약	신 약	초대 교회에서 1800년까지	현대 선교 시대
자발적으로 감 원심적 (팽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소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부근의 다른 나라들에 전파함 •바리새인들이 바다와 육지를 건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들 •바벨론, 로마, 구브로 등에 거주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패트릭(St. Patrick)이 아일랜드로 감 •켈트족 유랑민(peregrini)이 영국과 유럽으로 감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들이 중국, 인도, 일본, 미국으로 감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으로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리엄 캐리와 제1세대 선교사들 •허드슨 테일러와 제2세대 선교사들 •제3세대부터 현재까지
비자발적으로 감 원심적 (팽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굽에 종으로 팔린 요셉이 바로에게 증거함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룯에게 증거함 •요나 내키지 않아 하는 선교사 •히브리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잡혀 감 •바벨론에 포로로 간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간 사람들에게 증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 기록한 땅에서 나와 로마 제국 전역과 그 너머까지 가지 않을 수 없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율리파스(Ulifas)가 고트족에게 종으로 팔림 •추방된 아리아족 감독들이 고트 지역으로 감 •바이킹들에게 잡혀 간 그리스도인들이 바이킹들을 개종시킴 •이주자들과 청교도들이 미대륙으로 추방되어 인디언들에게 선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세계에 파병되었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돌아와서 150개의 새로운 선교 단체를 시작함 •우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도피함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북쪽보다 덜 기독교화된 남쪽으로 피난하고, 후에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등에 근로자로 나감
자발적으로 옴 구심적 (흡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궁정으로 찾아옴 •룯이 모압에서 유다로 가기로 선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음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보냄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도움을 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트족이 기독교화된 로마를 침략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알게 됨 •바이킹이 기독교화된 유럽에 침략하여 그 집착을 통해 궁극적으로 신앙을 갖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화된 서구에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 유학생들, 사업가들이 유입됨
비자발적으로 옴 구심적 (흡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방인들이 고레스 대제에 의해 이스라엘에 정착함 (왕하 17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마 군대가 '이방인들의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침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들을 데려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주의에서 피해 나온 난민들 •보트 피플, 쿠바인들이 강제로 추방됨 등

(*수정: 위 마지막 왼쪽 '이방인들이 고레스 대제에 의해'를 '앗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로 바로잡습니다.)

II. 이야기의 후반부 (The Second Half of the Story)

다음 2,000 년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다른 열방들이 복을 받았고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나를 확인 해주는 기간이다.

구속사의 10시대 : 후반부 AD 0년-2000년



제 1기 로마인 선교시대 로마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를 국교화 하기까지 했지만 그 복음의 축복을 자신들만 누리고 야만족인 켈트족과 고트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축복의 통로] 역할에 나태하고 실패한 것이다. 고트족이 로마를 침략하기 전, 복음이 처음으로 로마에서 공인되고 융성하던

짧은 100년 (AD 310-410년 사이) 동안 만약 로마가 열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선교활동에 적극 힘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누릴 줄만 알았지 그 축복을 유통해야 하는 진리 곧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망각한 채 소중한 세월을 허송해버렸다. 그에 대한 징벌로서 당시 로마인 자신들이 야만인이라고 비웃던 고트족 (오늘날 프랑스)과 켈트족(스페인, 독일, 영국 등 서유럽 지역 종족)이 로마를 침범했으며,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 전체 (라틴, 서로마제국)가 함락되었다. 그런데 그 야만인 고트족(나중에 반달족으로 불림)은 로마 당시 기독교 이단사상으로 분류되었던 아리우스주의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사상)을 가진 아리우스파 기독교인들에 의해 복음을 먼저 들었다. 이러한 비공식적이고 비정통 기독교 신앙이지만 그 신앙을 받아들인 야만인들이었기에 그래도 그들은 로마를 점령한 뒤에도 로마시를 파괴하지 않고 생명과 재산, 특히 교회의 생명과 재산을 매우 존중하였다.

제 2기 야만인 선교시대 고트족이 들어와서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곧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력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멀리 북쪽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역사의 주관자 이신 하나님은 또 다시 새로운 민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시대를 바꾸신다.

제 3기 바이킹 선교시대 이것 역시 징벌에 가까운 역사였다. 한정된 지역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주하던 바이킹들이 기독교화된 켈트족과 고트족 야만인들을 침략했는데 그 당시엔 켈트족과 고트족은 이미 기독교화되고 기독교 문명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야만족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이킹족이 야만인이라 불리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명화된 켈트족과 고트족(오늘날 서부유럽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자, 오히려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던 바이킹족이 ‘자발적으로 몰려오도록’ 하였고, 그 무자비한 바이킹족에게 ‘비자발적으로 끌려간’ 켈트족과 고트족의 여인들과 성직자들이 노예로 또는 강제로 바이킹의 아내와 하녀가 되어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우여곡절 끝에 바이킹들이 복음을 깨닫고 거의 집단적인 종족 개종운동을 거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이 무렵 바이킹들은 통치자(왕)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강제적이고 집단적, 획일적으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단 시간 안에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먼 훗날인 근현대에 와서 북유럽 기독교가 급속히 세속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후에 바이킹족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비롯된 십자군 전쟁 등에서도 보듯이 이들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나머지 복음과 축복을 전하는 대신, 기독교의 힘을 “십자군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다른 세계에 과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이는 이 시대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거둬냄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분위기와 국가 정책에 휩쓸려 기독교화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한 결과였다.

제 4기 사라센 선교시대는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사라센들에게 십자군 전쟁으로 알려진 일종의 유사 선교를 행했으나 대 실패로 끝났다. 이 시기에 수많은 유럽의 각 종족들이 기독교를 마치 유행처럼 받아들였고 악세사리화하기 시작했다. 중세 카톨릭이 기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극도의 타락에 이른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한 마디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그 축복을 독점하고 그를 이용하여 다른 민족을 착취하며 교회 안에 엄청난 계급을 형성하여 권력화한 시대였던 것이다.

제 5기 땅 끝까지 1600 년에서 2000 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유럽인들이 세계 도처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45 년경 유럽인들은 비서구 세계의 99.5%를 사실상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뒤죽박죽인 혼합된 동기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상업적 관심과 영적 관심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장애물이면서 또한 축복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식민 정책**을 통해 전쟁과 질병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비서구 세계 전체가 갑자기 발전되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물론 세계 동반구와 서반구 간에 것처럼 큰 격차가 존재했던 적도 일찍이 없었다.

고트족이 로마를 침입하고 바이킹들이 유럽에 발호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강해진 비서구 세계인들이 유럽과 미대륙을 침입할 것인가? 분명 서구인들은 비서구인들이 각성하여 갑자기 서구의 통제권 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주기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가?

제 1기: 로마인 선교 (Winning the Romans, AD 0-400 년)

- A. **메커니즘.** 이 시기에 복음은 네 가지 메커니즘 모두를 통해 진보되었다. ‘자발적으로 가는’ 유형은 바울의 선교단에서 볼 수 있다. ‘비자발적으로 가는’ 유형은 핍박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것에서 볼 수 있다.
- B. **진보.** 복음은 사회 계층 구석구석에 전달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무역로를 통해서도 전달되었다. 초기 몇 세기 동안 기독교는 유일하게 민족주의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지니지 않은 종교였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과 로마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졌다. 그런데 기독교가 일단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자, 로마의 정치적, 문화적 흔적을 지니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서 로마제국 밖의 지역, 특히 로마를 멸시하거나 두려워하던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복음의 진보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윈터 박사는 이단으로 여겨질만한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라고 제안한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아주 조금 다르지만,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기독교를 지지할 수 있게 해준 갖가지 취향의 기독교 신앙들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적대적이었던 지역들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이단으로 여겼을 만한 것, 이를테면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많았다 (비록 아리우스의 신학 은 60년간 로마에서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 C. **융성함.** 윈터 박사는 글 뒷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땅이 문화적으로 ‘융성’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310년에서 4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재물과 권력의 일부를 ‘사용’했다라면 로마 사회의 운명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며 복음은 보다 급속히 진보되었을 것이다.

제 2기: 야만인 선교 (Winning the Barbarians, AD 400-800 년)

- A. **메커니즘.** 야만족들이 로마 제국에 침입했으며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복음화되었다. 이 시기는 ‘자발적으로 선교하는’ 때였다. 이 시기 후에 최초의 수도원들이 세워졌다. 대부분의 수도원 전통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믿음을 유지 하고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일부 몇몇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가는’ 유형을 따르는 명백하게 선교적이었다. 이들 중 유명한 것은 켈트족 혹은 아일랜드족 ‘페레그리니’

(Peregrini: 방랑전도자 또는 유랑민 이란 뜻) 및 그들의 뒤를 이은 앵글로 색슨족들로, 그중에는 콜럼반 (Columban), 보니페이스 (Boniface), 페트릭 (Patrick) 등이 있다.

- B. **진보.** 고트족, 비시고트족, 반달족, 앵글로 색슨족 등과 같은 야만족들은 서유럽 및 중앙 유럽 대부분을 침략했다. 로마는 제국의 절반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야만족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 C. **응성함.** 게르만 야만족의 후예인 살마뉴 (Charlemagne)는 교육과 경제 발전이 부흥이 되도록 하여 지도자 없이 혼란에 빠진 유럽을 일시적으로 구해내었다. 살마뉴는 당시 수도원들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유럽 전역에 믿음을 전파하고 유지해온 수도원 선교 센터들을 더 강화시켰다. 살마뉴의 영향으로 ‘캐롤링거 왕조의 르네상스’가 일어나 중세의 ‘암흑기’를 둘로 나누었다. 기독교 신앙을 확장시키기는 했지만 그 나라를 공격해 온 북쪽 출신의 바이킹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노력은 너무 늦고 미미했다.

제 3기: 바이킹 선교 (Winning the Vikings, AD 800-1200 년)

- A. **메카니즘.** 바이킹 정복자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 정복당했다. 다시 한번 ‘자발적으로 오는’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종으로 팔린 수도사들이나 강제로 정복자들의 아내와 첩이 된 그리스도인 여성들에 의하여 결국 북방의 야만인들이 회심하였다. 많은 시간과 수고와 희생의 결과였다.
- B. **진보.** 복음은 스칸디나비아와 다른 북유럽으로 퍼져나갔다.
- C. **응성함.** 교황 그레고리에 의한 그레고리 개혁 (Gregorian Reform)이 클루니 (Cluny), 수도회 (Cistercian), 그리고 연합 영적 운동들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교가 왜곡되어 표현**되었다.

제 4기: 사라센 선교 (Winning the Saracens, AD 1200-1600 년)

이 시대는 여러 면에서 앞의 시대들과 다르다.

- A. **메카니즘.** 일단 바이킹들이 ‘복음의 반격’에 항복하자 북유럽은 집단적이고 국가적인 개종 운동으로 순식간에 기독교화 되었고, 설익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와 성숙, 그리고 그릇된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바이킹족의 호전적인 체질 그대로 **역사상 가장 왜곡된 선교**에 앞장 서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가는’ 유형을 이용해서 영토를 파괴하고 정복해 나갔는데 거기에는 많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센들이라고 불리던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확장시키는 일은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왜곡된 기독교 확장 운동과 동시에 그와 상반되는 **새로운 유형의 수도원주의(운동)**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본질상 선교적이었다. 그 결과 복음을 가지고 유럽 전역을 여행했던 **프라이어즈 (탁발 수도사) 운동**이 생겨났다. 하지만 헌신적인 수도승들로 구성된 프라이어즈가 저멀리 있는 선교 대상지 여러 나라들에 축복을 가져 갈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때 **페스트(흑사병)** 가 전 유럽을 공격했다. 이 엄청난 재앙의 시대에 발벗고 나서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던 프라이어즈는 엄청난 희생

을 당했다. 그만큼 복음의 진보는 다시 늦추어졌다. 이에 대하여 랄프 윈터 박사는, 복음의 사자들을 제거하려는 사단의 의도를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않기로 한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으로 사용하셨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복음이 늦게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 징계이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유능한 선교사들이 찾아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속히 주어졌다면 (한국처럼) 그 민족은 분명 축복 받은 민족이다.

- B. **진보.** 십자군 운동은 복음의 진보를 막았다. 곧 이어진 식민지 시대에 제국주의들의 식민지가 온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약간 진척을 보이기에는 했지만 대부분 카톨릭이었고, 개신교 신앙은 그렇지 못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개신교 국가들은 카톨릭 제국주의 국가들(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선교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 C. **용성함.** 르네상스와 그에 기인한 종교개혁이 꽃피는 시기였다. 종교개혁 때 기독교가 여러 곳에서 활기 있게 성장함에 따라 종교개혁은 기독교를 철저히 극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구교 혹은 카톨릭, 다양한 기독교는 수도원의 선교 구조가 커지면서 식민지 확장과 함께 발전했다. 새로 확립된 개신교 운동들은 신학적으로 재정비하는 일에 분주했으며, 타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구조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그릇된 예정론적 성경해석의 결과였다.

제 5기: 땅 끝까지 (To the Ends of the Earth, AD 1600-2000 년)

- A. **메카니즘.** 카톨릭의 확장은 계속되다가 갑자기 1800년 무렵 나폴레옹이 유럽을 약탈하고 르네상스의 어두운 결과인 무신론 (볼테르 등), 이신론, 인본주의 등이 점차 인기를 얻으면서 주춤하게 된다. 동시에 개신교 선교운동의 ‘자발적으로 가는’ 흐름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윌리엄 캐리라는 평신도 출신 목사를 일으키신 것이다.
- B. **진보.** 개신교 선교사들은 지구 반대편까지 나아갔다. 개신교 운동은 먼저 식민지의 확장과 함께, 혹은 그 확장과 관계 없이 **연안 지대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서 **내륙 지역**에 또 다른 물결이 밀려오므로 마침내, **땅의 모든(미전도) 족속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C. **용성함.** 서구 문명 및 그 문명의 모든 풍요함과 타락이 아마도 가장 용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윈터 박사는 하나의 질문을 제기 한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나누는 대신 갖고 있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 이전의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적 복을 잃어 버리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용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 풍성함을 복음의 진보와 확장에 재투자하라.**

선교 전략의 역사 (The History of Mission Strategy)

과거 선교사들이 사용한 선교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순응 (Adaptation):** 복음을 전할 때 지역 문화를 존중하거나 높이 평가하거나 아니면 적응하는 방법들이다.
- **문명화 (Civilizing):** 순응으로 인해 생겨난 운동들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생겨난 교회들은 그들의 지역 문화를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교사의 문화에 동조 되었는가?

- **정복 (Conquest):** 선교사들은 식민 세력이나 제국주의 세력을 따라왔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정치적 지배 아래로 데려오려 했다. 그들은 외국 정권의 통제를 촉진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 **개발 (Development):** 선교사들은 종종 인간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들을 도입했다. 때로 이러한 노력들은 문명화 사업 혹은 경제적 정복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 A. **보니페이스.** 수도원 운동의 핵심 인물인 보니페이스의 특징은 ‘**참된 보내는 선교**’에 있다. 보니페이스는 정치적 세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부족민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갔다. 보니페이스는 우리가 ‘**능력 대결**’ (power encounter)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해서 전체 부족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도록 했다. 한 예로 그는 신성한 나무들을 베어 버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움으로] 다른 신들의 무력함을 폭로함으로써 부족민들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맛보게 했다. 보니페이스는 교회들, 수도원들, 학교들을 세웠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제국주의 확장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그는 수도원을 설립하여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 뿐 아니라 농업, 방목, 가사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가지므로 사회가 안정되고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였으며 양질의 기독교적 양육을 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이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하였다]
- B. **십자군.** 불행히도 십자군들은 선교를 정복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군 운동의 영향은 오늘까지도 대부분의 이슬람권에 남아있다. 십자군은 다른 두 명의 유명한 수도사 아시시의 프랜시스와 레이몬드 룰 (Raymond Lull)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는데. 그 수도사들은 무슬림들을 폭력으로 정복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하려 했다. [예: 룰Lull은 순교하기 전 수십 년간 아랍어와 다른 언어들을 가르치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대학을 설립해 달라고 교황과 왕에게 끊임없이 간청했으며,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낼 여러가지 계획들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권했다.]
- C. **식민지의 확장.** 포르투갈, 네델란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제국주의의 팽창은 종종 선교와 연결 되었으나 방식은 서로 매우 달랐다. [선교는 정부의 한 기능이 되었다] ‘기독교화’에 우선권을 둘 것인가 아니면 ‘문명화’에 우선권을 둘 것인가에 따라 방법이 정해졌다.
- D. **17세기의 전략들.** 예수회의 선교 전략은 혁신적이었으며 중요했다. 영화 “미션 Mission”에도 나타나지만, 예수회Jesuits의 혁신적이고 담대한 실험들 과 도전들은 오늘날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선교학적 풍토들을 결정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곤 했다. 예수회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들의 영향으로 현대 일본인들은 복음에 대해 저항하게 되었다. 로버트 드 노빌리 (Robert de Nobili)와 마태오 리찌 (Matteo Ricci)의 접근 방법들은 기독교 운동을 확립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는 선교사들에게 지금도 도전과 모델이 되고 있다.
- E. **뉴 잉글랜드 청교도들.** 미국은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면서 그들을 ‘기독교화’하기 전에 특정한 도시에서 ‘문명화’하려 했던것 같다 .부족 사회에서 회심자들을 빼내오는 식으로 복음 전도를 하려다가 따로 분리된 집단이 형성 되어, 결국에는 ‘개인적인 신앙의 감화력을 전달’해 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기도하는 인디언’ (Praying Indian)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들은 그리스도인 인디언들 및 이교도 식민지 주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유럽 출신의 무법자들이 ‘기도하는 인디언’ 도시들을 불태워 버렸다. 이 당시 두드러진 선교활동들을 한 인물들은 **존 엘리엇 (John Elliot)**과 **데이빗 브레이너드 (David Brainerd)**이다.

F. **덴마크의 할레 선교회 (The Danish-Halle Mission)**. 할레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개신교 선교단체는 메시지를 상황화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대단히 혁신적인 접근법들을 사용했다. 눈에 띄는 두 지도자는 **바돌로뮤 지겐발크 (Bartholomew Ziegenbalg)**와 **프레데릭 슈바르츠 (Frederick Schwartz)**이다.

G. **모라비안 교도들 (Moravians)**. 모라비안 교도들은 지역 문화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신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기독교는 자신들의 기독교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평신도 전문인 기술자들로 구성된 자비량선교사들이었으며 모라비안 신자들로 구성된 공동부락들이 갖가지 수공업과 산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했다. 선교지에서도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줄 기술들을 가르쳤다. 한편 그들의 선교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현지인 중심의 교회 조직의 미비, 단순한 복음의 전파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학교육 등 현지인 지도자 양성을 등한시켰기 때문이었다. 모라비안교도들의 선교전략에 대한 좀더 자세한 분석은 8과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제 7 과 선교 역사의 여러 시대들(Eras of Mission History)

역사적 관점(The Historical Perspective)

네 사람, 세 시대, 두 전환기: 현대 선교 (Four Men, Three Eras, Two Transitions: Modern Mission)

I. 개신교 확장의 여러 단계들

개신교 운동 첫 200 년간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선교조직이 처음 결성되고 오랫동안 힘겨운 노력을 한 끝에야 개신교 선교사들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최초에 성공을 거둔 선교사 중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느라 여념이 없어서 다른 미접촉 지역들로 나아가지 못했다. 개신교도들은 처음으로 선교사들의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다른 문화권에 있는 어린 교회들의 실상과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시작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두번에 걸친 중대한 시기에** 새로운 선교영역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개신교 운동이 한 걸음 진보되게 한 지도자들이 일어났다.

A. 선교회(선교사)와 현지 교회 (현지인) 의 관계:

네 가지 발전 단계. 대부분의 선교활동에 선교 기관(선교사)들과 그들이 개척한 현지인 및 현지 교회 간의 관계는 **네 가지 발전 단계**를 거친다. 한 선교사가 네 사람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감당한다고 해서 **“네 사람 Four Men”**이란 표현을 한다. 이러한 단계들을 이해하면 교회들과 선교회들이 선교를 하면서 종종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갖고 있는 이유를 깨달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제한된 자원을 우선 순위에 맞게 배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선교사들은 먼저 새로 생긴 교회의 ‘성숙도를 확인’하고 미접촉 지역 복음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요구들을 비교 검토한 것을 근거로 중대한 결정들을 내린다.

- 1. 개척자단계 (Pioneer Stage):** 선교사가 어떤 종족집단과 처음으로 접촉한다.
- 2. 부모단계 (Parent Stage):** 외국인 선교사가 현지인 지도자들을 훈련시킨다.
- 3. 협력자 단계 (Partner Stage):** 현지인 지도자들이 외국인 선교사들과 동등한 상대가 되어 일한다.
- 4. 참여자 단계 (participant Stage):** 외국인 선교사들은 더 이상 동등한 협력자가 아니며, 현지인들에게 사역을 완전 위임한 후, 초청을 받을 때에만 참여한다.

(*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하라)

선교회와 교회의 관계 : 네 가지 발전 단계

1단계: 개척자(Pioneer)

다른 은사들과 더불어 지도력의 은사가 필요하다.
신자가 없으므로 선교사가 스스로 많은 일을 지도하고 또 담당해야 한다.



2단계: 부모(Parent)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하다.
어린 교회는 선교회와 성장기 자녀 관계이다. 하지만 그 '부모'는 '은정주의'를 피해야 한다.



3단계: 협력자(Partner)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측 다 변화하기가 어렵지만 교회가 성숙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4단계: 참여자(Participant)

완전히 성숙한 교회가 지도력을 맡는다. 선교회가 남아 있는 한, 선교회는 교회를 강하게 세워 마 28:19-20의 원래 목적들을 달성하도록 하는 일에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한편 선교회는 다른 곳에서 제1단계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



B. 세 시대. 윈터 박사는 개신교 선교 활동 역사에서 나타났던 세 번의 폭발적인 시대적 진보를 묘사한다. 각각의 진보는 세계의 특정한 영역 혹은 미접촉 지역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세계 복음화라는 전체 과업을 완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첫 번째 시대: 연안 지역 선교시대. 이 시대는 윌리엄 캐리가 개척한 시대로 부분적으로는 건초더미 기도회 (Haystack Prayer Meeting)와 관련된 학생 운동이 중심이 되었다. 선교구조는 전형적인 비교단적 선교회이다. 그 시대의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은 놀라운 희생정신과 선교 전략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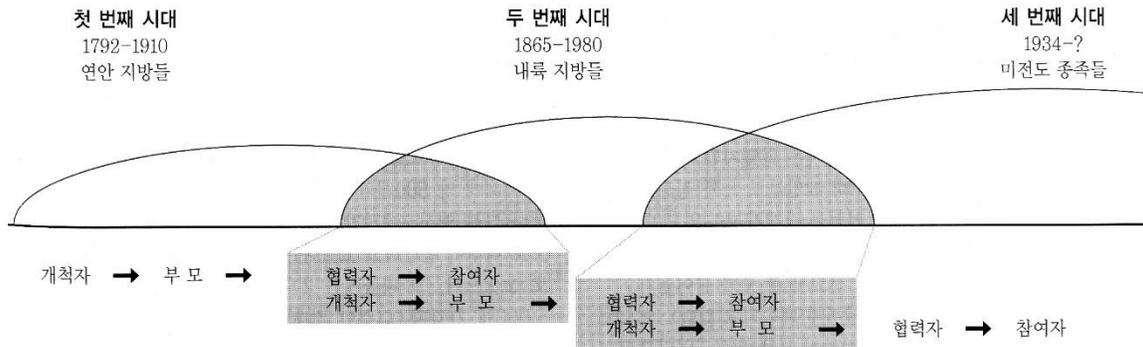
2. 두 번째 시대: 내륙 지역 선교시대. 이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가 주도한 시대이며, 후에 주로 학생 자원운동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이라는 학생운동 출신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었다. 어떤 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해 있는 선교 조직들은 '믿음 선교회' (Faith Missions)라고 불리었다. 신참 선교사들은 때로는 이전 시대에 개발된 선교학적 지혜를 대부분 무시함으로써 1세대 선교사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거의 모든 지리적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다. 1940년대가 되자 이러한 업적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새 사실'로 경축되었다. 분명 모든 곳에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가 사실상 완수 되었다고 생각했다. 일부 선교 기관들은 선교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기 시작했다.

3. 세 번째 시대: 미전도 (미접촉) 종족 전도시대. 이 시대는 카메론 타운젠드 (Cameron

Townsend)와 도날드 맥가브란 (Donald McGavran)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맥가브란은 현 시대가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지는 해’가 아닌 ‘뜨는 해’라고 주장하였다. 그 시대는 부분적으로 기독교학생회 (InterVarsity)와 관련된 학생 해외선교회 (Student Foreign Mission Fellowship) 및 다른 동원 사역이 중심이 되었다. 많은 새로운 부서들과 선교 동원 기관들이 등장했다. 비서구 선교 기관들이 수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나 이전의 선교회들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타운젠드는 번역된 성경이 없는 언어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맥가브란은 간과된 사회적 집단들을 지적했다. **이같이 두 가지로 종족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종족 집단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두 접근법은 민족 언어학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다.

C. 시대와 시대 사이에 있었던 두 번에 걸친 전환기. 미 개척지를 위한 개신교 선교 비전이 급격히 증가할 때마다 각 시기는 대략 네 단계 (개척단계, 부모단계, 협력단계, 참여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들이 서로 중복됨으로써 어떠한 전략이 적절한지에 관련해 혼란이 일어났다. 이전 시대가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귀환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한 새로운 곳이 어디인지 상상해 보게 되었다. 개척지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개척단계와 부모단계에서 선교사들이 그들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 시점이 지나면 많은 선교사들은 다른 미접촉 족속들에게로 옮겨가서 또 다른 개척사역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협력 단계와 참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섬기면서 현지교회가 자기 나름의 개척선교를 해나가도록 격려해야 한다.

개신교 선교 시대간의 두 번의 전환기



각 시대가 중복되는 동안 선교의 우선 순위에 갈등과 혼란이 오는 시기들

D. 하나의 운동. 윈터는 그 과업은 언제나 세계적인 것이었으므로 비 서구 선교회들이 그 일을 완수하는데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지적한다. 지금은 논리적으로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모든 종족 집단에 교두보를 확립하고 필수적인 선교 과업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업은 역사상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계 기독교 운동이 그 과업의 완수에 지금처럼 근접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II. 새 마케도냐: 선교의 혁명적인 새 시대가 시작되다 (The New Macedonia: A Revolutionary New Era in Mission Begins)

1974년 랄프 윈터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회의 (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은 두 번째 전환기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 윈터는 무시되었던 종족 집단들에게 새롭게 집중할 것을 요청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족에 대한 무지 (People Blindness)’라는 병폐를 인식하도록 도왔다. 윈터는 후에 사도행전 16:9에 나오는 도움의 요청을 본따 그의 글 제목을 ‘새 마케도냐’라고 붙였다.

A. **과업을 완수함.** 윈터는 세 가지로 복음 전도를 구분한다. 그것은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복음 전도자가 건너야 하는 **문화적 거리**에 의해 구별된다.

1. ‘E-등급’은 복음전도상의 어려움과 필요를 나타내고 비교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참고 도구이다.

- E-0.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깨달아지는 과정으로서의 전도 -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종족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전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예배와 설교, 그리고 교리 문답이나 전도 훈련(전도폭발III 이나 일대일 양육과 같은)과 부흥회를 통한 전도이다. 이 경우 문화적 장벽은 사실상 없다.
- E-1. 교회 밖에 있지만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 대한 전도, 단 한 가지 장벽만을 건너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교인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교회 문턱’ 경계선이다. 이러한 복음 전도는 ‘가장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전달된 복음을 이해하여 그 복음을 그들과 같은 문화권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E-0와 E-1을 동질 문화권 안에서의 ‘전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E-2. 다르지만 유사한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 두 가지 장벽을 건너는데, 그것은 교회 문턱 장벽과 별도의 교제를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문화적 거리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미국의 한인교회가 주변 홈리스나 타국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E-2부터가 사실상 타문화 선교라고 할 수 있다.
- E-3.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전도, 철저히 다르고, 어쩌면 적대적일 수도 있는 환경에 복음을 전하려는 복음전도자는 더욱 큰 문화적 간격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E-3 전도에서는 복음 전도자가 적어도 세개 이상의 장벽들을 건너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사하라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일하려면 교회 문턱벽, 언어의 장벽, 그리고 생활 방식의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다. E-3는 가장 어려운 복음 전도 (선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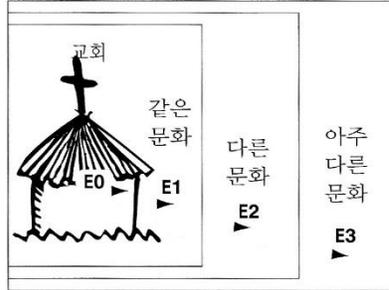
2. **지리적 거리보다 문화적 거리:** 윈터는 사도행전 1:8을 E-등급의 구분들과 대략 유사한 것으로 사용한다. 지리적 차이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종족 집단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B. 복음 전도의 주요 유형이란, 1974년 윈터가 말한 바에 따르면 “먼저 특별한 E-2와 E-3 전도를 통해 문화적 장벽들을 뛰어 넘어 강하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복음

을 전하는 조직을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는 현지 교회가 정말로 효과적인 E-1 차원에서 그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E-등급

복음 전도자와 잠재적인 회심자 간의 문화적 거리



- E0 교인들에 대한 부흥 전도
- E1 교회와 접촉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 전도
- E2 유사하지만 다른 문화권 내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전도
- E3 완전히 다른 문화권 내에서의 전도

C. 종족에 대한 무지 (People Blindness)란, 한 나라 안의 하위 집단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한된 견해를 말한다. 그러한 무지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다. 맥가브란이 제안했듯이 사회는 복잡한 종족들의 모자이크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회라는 큰 모자이크 안에 있는 각각의 종족 집단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III. 하나님의 다리

도날드 맥가브란은 앞서 언급한 개신교 선교의 세 번째 시대를 연 개척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영향력 있는 책, ‘하나님의 다리’ (The Bridges of God)의 발췌문을 살펴보자. 맥가브란의 불후의 공헌은 문화적으로 복음에서 고립된 전체 종족들을 복음화하도록 요청한 일이다.

- A. **서구의 개인주의.** 맥가브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의 개인주의는 오랫동안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종족들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종족 운동은 종종 인식되지 못했다.
- B. **종족들과 여러 개인이 함께 내리는 결정들.** 맥가브란은 ‘종족’ (People)이란 말의 의미를 규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집단적 결정의 역학을 설명한다.
- C. **종족 운동.** 종족 운동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종족 집단이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성숙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맥가브란이 원래 사용했던 말은 “**그리스도를 향한 종족운동**” (a **People Movement to Christ**)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윈터가 언급한 본질적인 선교 과업을 다른 식으로 묘사한 것이다.

IV. 큰 수확을 기대함

잘 알려진 **세계 기도정보 (Operation World)**의 원 저자 페트릭 존스톤 (Patrick Johnstone)은 그의 책 **교회는 당신 생각보다 크다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에서 세계 복음화 완수라는 굉장한 소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A. 역사에 걸친 기독교 전파.** 가장 급속한 신장이 이루어진 시기인 1800년부터 현재까지의 200년은 앞에서 말한 세계선교의 ‘세 시대’와 동일한 시기임을 주목해야 한다. 존스톤은 그의 도표 ‘기독교의 전파’에서 데이빗 바렛 (David Barrett)의 **A. B. C. 세계 모델**을 소개한다. 그것은 **복음에 노출된 개인들**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A 세계’는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모든 종족 안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아래 표는 A, B, C 세계 모델과 윈터의 E-등급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바렛은 ‘복음에 대한 노출’에서 여러 다른 요소들을 인정하는 반면 랄프 윈터 박사는 맥가브란의 뒤를 이어 **토착교회 운동이 존재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적절한 복음전도라고 간주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세계들 : A, B, C
(복음에 대한 노출)

E-등급
(필요한 복음 전도의 종류)

C 세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밝히는 모든 개인들	E-0: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혹은 아직 참된 신자는 아니지만 지역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복음 전도
B 세계: 복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거나 일생 동안 들어 볼 가능성이 있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비그리스도인들	E-1: 전도자와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전도
A 세계: ‘복음화되지 않았’ 으며(복음에 적절하게 노출되지 않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개척 노력이 없으면 계속 그런 상태로 있게 될 모든 비그리스도인들	E-2: 선교사의 문화와 비슷한 문화권 내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전도 E-3: 선교사의 문화와 매우 다른 문화권 내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전도

- B. 2,000년간의 종족 전도.** 존스톤은 또한 **인종 언어학적 종족**이라는 견지에서 이와 비슷한 세계관을 제시한다. 세 번째 시대의 선교사들이 ‘열방’에 ‘나아감’에 따라 미접촉 종족들의 수와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P-2, 혹은 P-3 비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계 복음화’이다.** 다른 한편 대부분의 인종 언어학적 종족들이 실제로는 더 작은 종족들의 무리라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미접촉 종족들의 수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 C. 세계의 종족들을 제자화 함.** 존스톤은 세계의 인종 언어학적 종족들을 주로 기독교적인 종족, 주로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 **‘선교학적 돌파’**가 이루어진 종족, 그리고

선교적 노력을 요하는 ‘개척지’로 분류한다. 아직 복음화 되지 않은 수천 개의 인종 언어학적 집단이 있지만 우리는 그 중 반 이상에서 이미 사역이 시작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V. 전 세계적인 추수 일꾼 (A Global Harvest Force)

래리 케이즈 (Larry Keyes)는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비서구 국가 출신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제시한다. 케이즈는 그들을 ‘제 3 세계 선교사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수는 이미 미국과 유럽 출신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 사실상 너무 급속히 성장해서 비서구 선교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따라 잡기도 점차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전 어느 때도 하나님은 스스로 전 세계적인 일꾼들을 일으킨 적은 없으시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추수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이다.** 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매 시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모든 단일 최대 종족 집단 안에 교회를 세우려는 유일무이한 선교 과업은 완수될 수 있다.

제 8 과 세계 기독교 운동의 개척자들

(Pioneers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역사적 관점(The Historical Perspective)

이번 8 과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200 여년 간의 세계 근대 선교 역사에 등장했던 핵심적인 인물 몇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근대와 현대로 이어지는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시대’를 섬긴 선교사들의 열심을 살펴 보면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그들의 교훈과 모범을 배우게 된다.

1. 무슬림 선교의 아버지 새뮤얼 즈웨머 (Samuel Zwemer)

아라비아 선교회를 설립하고 그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23 년간 바스라 Basrah (지금의 이라크), 바흐레인 Bahrain, 무스캇 Muscat (지금의 오만), 쿠웨이트 Kuwait 등지에서 일하고 학생 자원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 최초의 지원자 총무 (Candidate Secretary)로 일한 후 강사와 저술가로 활동. 그의 사역은 카이로에 있는 초교과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슬람권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불가능한 것의 영광 The Glory of the Impossible 새뮤얼 즈웨머의 열정은 세계의 미점령지, 곧 불가능해 보이는 선교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갔다는 데서 더욱 빛이 난다. “우리는… 진군 명령을 받았으며, 우리의 사령관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실행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린다… 선교가 전쟁이며 왕의 영광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닫힌 문들을 열고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지가 정말로 문제가 될까… 세계의 미점령지는 오순절의 승리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갈보리의 고난을 거쳐야 한다” (Zwemer). “그리 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며,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그 일을 수행합니다” (Charles Spurgeon). “당신의 종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죽고자 하는 큰 열망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자기 피와 눈물을 뿌리기 위해 밤낮으로 자기 일을 완수하기에 바쁩니다” (Raymond Lull).

역 향수병 (An Inverted Homesickness) 선교지에서 오래 살다 고국에 돌아온 선교사가 자신이 두고 온 그 선교지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향수병에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세계의 미점령지는 이와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외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린다. 포사이프 박사 (Dr. Forsyth)는 이렇게 말했다 - “내가 볼 때 옛 집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자기 고향에 대해 죽었으며, 자신들이 섬기고 구원시킨 사람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맨 사람들만큼 멋지거나 애처로운 장면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에서 쉴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쏟은 그 곳에 뼈를 묻으려 되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역향수병, 국경도 없고 편애하는 인종도 없는 나라에 대한 이 같은 열정, 집이 없으셨던 그리스도의 열정에 비하면 일반적인 애국심은 얼마나 천박해 보이는지!”

닫힌 문이 주는 교훈 (Challenge of the Closed Door) 세계의 여러 선교지 가운데 기회가 있는 곳보다는 무슬림(회교도) 나라들처럼 기회가 별로 없는 곳에 우리는 더 열심히

가야한다. 선교에서는 편의주의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열린 문은 우리를 손짓해 부르지만, 닫힌 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세계의 미점령지들에 특별히 비중을 두고 긴박하게 대처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그것 이 크고 어려운 과업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했다. 명백히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곧 그 일이 지닌 영광이었으며, 그 일이 전세계적인 일이라는 것이 곧 그 일의 웅대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2. 현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William Carey): 해안시대 선교의 개척자

1792년. 가난하고 젊은 영국인 목사이며 시간제 교사인 한 구두 수선공이 작은 소책자를 한 권 퍼내어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표명했다. 그가 바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요, 그의 책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수단들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대한 탐구”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Heathens)**였다. 이 책자가 나오던 1792년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이 그 당시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었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위 “예정론적인 견해”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팽배하고 있던 때였다. 대부분 지도자와 신학자들이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생각에 젖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평신도 구두수선공 출신 윌리엄 캐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써 예수님과 초대교회 이래 1500여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세계선교의 청사진을 세계 교회 앞에 다시 펼쳐보이셨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상식화 (일반화) 되어 있는 명제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 그리고 용기를 소유했던 윌리엄 캐리는, 새로운 선교사역을 위한 **“수단 Means”**으로써 [침례교 선교회 Baptist Missionary Society]를 설립하고 선교사로 1793년 인도를 향해 출항함으로써 그 해를 현대선교의 역사적인 시발점으로 기록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사역한 인도의 사역지 **세랍포르**는 오늘날 방글라데쉬의 항구도시인 **치타공 (Chittagong)**이다. 캐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구약 이사야 54 장 1-4 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는 유명한 좌우명을 남겼다.

그의 책은 제목을 줄여서 [탐구 An Enquir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87 페이지로 된 소책자에 불과하지만, 책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세부적인 사항들, 그 나라들의 크기와 면적, 인구 수, 종교 등에 할애되어 있다. 전체를 부분별로 정확하게 나누고 요점이 번호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조지 스미쓰(George Smith)는 1885년에 이 책에 대해 말하기를, “영어로 된 최초이자 지금까지의 가장 위대한 선교 논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책자는 윌리엄 캐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구두 수선공으로 일할 때부터, 멀리 해외로 원정을 다녀온 군인 친척이나 상선을 타고 세계를 다녀온 선원, 선장들, 그리고 가깝고 먼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모으고 모은 세계 각 나라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들을 가족으로 만든 벽걸이 세계 지도 위에 하나 하나 기록하고 붙여 놓았다가 그 내용들을 토대로 쓴 것이었다. 이 책이 1792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라.

[탐구 An Enquiry] 요약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말로만 바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모든 정당한 **수단들 Means** 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탐구:**... 많은 사람(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까지 무지와 우상숭배 가운데 잃어버려져 있는 수많은 동료 죄인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마음 편히 살고 있다.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우리 이전에 행해진 일들에 대한 간단한 개관:** ... 사도행전과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이 무렵에는 다른 많은 곳에서도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바벨론교회에 대해 말하며, 바울은 서바나로 간 것으로 여겨지며,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영국에도 간 것으로 생각된다. 안드레는 흑해 북쪽에 있는 시타이아 사람(Sythians)에게 복음을 전했다. 요한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며, 우리는 그가 아키펠라고의 밧모섬에 있었다는 것을 안다. 빌립은 아시아 북부, 시타이아, 브리기아에서, 바돌로매는 인도의 갠지스 강 이편 브리기아, 아르메니아에서, 마태는 아라비아 혹은 아시아쪽 에디오피아, 프리티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도마는 인디아에서 멀리 코로만델 해안까지 갔으며, 어떤 사람은 그가 실론(스리랑카)에서도 전했다고 한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 구레네, 모리타니아, 리디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거기서 영국으로 갔다. 그리고 유다는 주로 소아시아와 헬라에서 사역했다고 한다. 그들은 분명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고했으며, 그들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직후에 살았던 로마의 외교관 플리니라는 사람은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가 성읍들과 도시들 전역 뿐아니라 또한 시골 지역 전체에도 퍼졌다고 말했다. 이에 네로 황제는 칙령으로 기독교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지방 총독들과 통치자들에게 기독교를 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세계의 현 상황에 대한 개관:** 본 개관에서 나는 세상을 일반적인 구분에 따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네 부분으로 나눌 것이며, 몇몇 나라들의 넓이, 인구, 문명화 정도, 종교 등을 살펴볼 것이다... 24 개의 도표로 주제에 대한 제안들 제시...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대부분의 아시아쪽 섬지방 등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인구수에 대한 믿을만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이미 행해진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가:** 내 생각에 복음을 이교도들에게 전하는 일은 분명 다음 중 한두 가지 때문에 방해받을 것이다. 즉 그들이 거리적으로 우리와 멀리 있기 때문이든지, 그들의 야만적이고 미개한 생활방식,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위험성, 생필품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 아니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기 어려움 때문이다. 이 일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수단에 대한 탐구: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중 제일 가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열렬하게 하나되어 드리는 기도이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기도 안에서 모든 교단이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수단 means 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된다. 수단이란 곧 선교를 위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요, 그런 단체에서 하나의 위원회를 지명, 선교 대상에 대해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구하고, 헌금을 받으며, 선교사들의 성품, 기질, 능력, 종교관을 연구하고, 또한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교단(교회) 가운데 그러한 선교회와(선교)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선교회를 한 종파의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 일에 관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썩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고 훈계한다. 또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선포하고 있다… 바울, 엘리웃, 브레이너드 등과 같이 주님의 일에 온전히 자신을 바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물, 어떠한 추수가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격려가 된다.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수많은 가련한 이교도들. 그 중에 서도 특히 영국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천국은 얼마나 대단한 곳이 될까. 분명 이와 같은 기쁨의 면류관은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분명 그리스도의 대의와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은 값진 일이다.

윌리엄 캐리는 정말로 누구였는가? (Who Really Was William Carey?)

윌리엄 캐리는 그의 평생 인생 좌우명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결과 그는 당대에 탁월한 식물학자요, 원예학자, 기계공학자(인도에 증기기관 도입)요, 경제학자(인도에 저축은행개념 도입, 고리 대금업과 싸움), 의학자(나병퇴치), 인도 인쇄기술의 아버지, 매스컴(아시아 최초 신문 인쇄), 농업가(농업원예학회설립, 농업개혁), 문헌학자(최초 산스크리트어, 벵골어 사전 편찬으로 최고의 문학언어로 바꿈), 교육학자 (포트 윌리엄 대학 교수,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 천문학자, 수학자 (천문학 연구 도입), 도서관학자 (도서관 최초 개척), 산림학자(인도에서 임학에 대한 최초의 소논문 작성), 공공행정학자(공무원 소양교육), 인도철학자 (죄의식 없는 인도종교와 철학의 맹점 분석 지적), 역사학자 (메탈라 버린 인도 문화와 역사적 강점을 재발견하도록 도움). 언어학자 (40 개의 서로 다른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함). 그리고 복음전도자. 인도 현대화의 중심 인물이었다.

3. 허드슨 테일러 (Hudson Taylor) 내륙선교 시대의 개척자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 CIM, 현재의 OMF 전신)의 설립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개신교 선교의 새로운 선교 시대를 알리는 선구자였다. 다음은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사역으로의 부르심 The Call to Service 헌신의 시간이 있는지 몇 달 후, 중국에서 일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느낌이 왔다. 나는 이러한 부르심으로 인해 십중팔구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중국은 지금처럼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달갑지않게 생각하는 이웃 목사님으로부터 빌려 읽은 중국에 대한 메드허스트(Medhurst)의 책은 중국에서 의료선교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나는 귀중한 준비 중의 하나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체력을 다지기 위해 야외에서 더 많은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깃털로 된 침대를 치워버렸 으며, 거친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생활 편의품 중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없앤 채 살아 나가려 애썼다. 또한 기회가 닿는대로 전도지 배부, 주일학교교사,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심방하기 등 내가 할 수 있는 기독교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내과 및 외과훈련을 받기 위해 의사의 조수가 되어 수입이 생기자 나는 십일조 현금을 드리는 것을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은 수입 총액의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 숙소를 시외로 옮기고 식사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비용을 절약,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게 되었다.

[교훈] 헌신되지 않은 보통 세상 사람들 (worldly people)처럼 “삶의 규모” 곧 주택의 화장실 수를 늘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생활 속의 절약을 통한 “잉여자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단기선교를 가고, 선교 사역에 후원하라.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1860 년대를 중국에서 선교사로 섬긴 후) 하필이면 건강이 쇠약해져서 중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내게 큰 불행처럼 보였다. 중국을 떠나 영국에서 몇 년 동안 머무르면서, 서재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에서 중국 전체를 날마다 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 내륙의 광대한 지역들과도 가까워졌다. 동료 F.F. Gough 목사와 함께 문어체 Ningbo어로 된 신약판을 개정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우리는 **중국 내지를 복음화하기 위해 특별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선교회를 조직하는 일을 두고 지역교회들과 기존 선교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였다.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내의 도움으로 나는 **[중국의 영적인 필요와 요구들 (China's Spiritual Needs and Claims)]** 이라는 작은 책을 썼다. 3000 부를 친구 Berger 씨의 재정 도움으로 인쇄하여 보급하였다. 1865 년 퍼스 Perth 회의와 마일드메이 Mildmay 회의에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고, 계속해서 동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곧 동료 일꾼들이 일어났으며, 나의 집이 비좁게 되자 이웃집까지 빌려 모이고, 그 집마저도 충분치 않게 되어 인근에 숙소를 더 구했다. 곧 많은 남녀들이 준비 훈련을 받게되었고, 영혼 구령자로서의 자격을 어느 정도 시험하는 복음전도 사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책자 내용: 중국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선포되지 않는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주여, 중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나이까?” 무력감으로 인한 깊은 한탄과 절망에 찬 괴로움의 소리가 우리의 둔한 귀를 뚫고 들려 오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일으켜 중국의 구원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굴하지 않는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폭풍우를 가라앉히시고, 긴 가뭄 속에서 구름의 방향을 바꾸사 비를 내리신 것을 보았다. 또한 폭력적인 사람들의 성난 흥분과 살의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책략을 실패시키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손길을 통해 죽어가는 임종의 자리에서 살리신 것을 보았다. 나는 27 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그 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광대한 선교지를 위해 적지 않은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생활 용품과 통행권과 생활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

4. 캐머런 타운젠드 (William Cameron Townsend)-미전도 종족을 위한 성경번역선교의 개척자 (Wycliffe Bible Translators 선교회 설립자)

윌리엄 캐머런 타운젠드는 처음에는 학생신분으로 스페인어 쪽복음을 나누어주었으나, 과테말라의 인디언 부족들에게는 스페인의 성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1913 년에 신약성경을 각치켈(Cakchiquel)어로 번역했으며, 그 다음에는 다른 부족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캐머런 타운젠드 박사가 주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계기는 그가 성경 마태복음 18:12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면서였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는 이 성경 구절을 따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으며, 5000 명의 젊은 남녀가 그의 뒤를 따랐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의 이름은 최초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 (John Wycliffe)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위클리프선교회의 선교사 가운데 절반은 부족민들 사이에서 언어학적인 사역과 번역 사역을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도록 해준다. 다른 절반은 지원 인력으로 교사, 비서, 조종사, 기계공, 인쇄공, 의사, 간호사, 회계사, 그리고 각종 식료품과 일용품을 일선으로 나르는 공급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등이다. 새로 개발된 기술(묘사 중심의) 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은 이상한 각종 방언들이 지닌 장벽을 허문다. 마술, 살인, 미신, 무지, 두려움, 질병 등은 하나님의 말씀, 문맹퇴치, 의약품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들어온 가장 좋은 것을 접함으로써 무너져 버린다. 현재 성경번역이 완성된 언어는 약 1500 개이며 앞으로 남은 부족어는 약 1000 개 미만이다.

5. 세계 선교와 여성들 (Women in Mission)

사도행전과 로마서 등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는 탁월한 여성 사역자였다. 기독교가 생긴지 처음 300 년 동안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순교했다. 그 후에도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 많은 여성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 당했다. 바이킹 족이 영국과 서부 유럽을 침입했을 때 수 많은 여성들이 북유럽 (오늘날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으로 포로되어 갔는데, 이들은 후에 자기를 잡아간 사람들과 (강제로)결혼을 해서 그들을 복음화했다. 바로 바이킹족이 세계 기독교 운동으로 합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1517 년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히려 기독교 여성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교개혁자들은 여성들의 유일하게 인정된 소명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한된 사고에 가두어 버렸다. 수녀원들이 사라지면서 여성들은 남편과 가정과 자녀라는 좁은 집단 틀에 갇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 (Arther Glasser).

개신교 선교가 진척되던 초기 시절에도 선교지에 나간 여성들은 대부분이 선교사들의 아내들이었다. 처음에는 독신 여성들은 선교사의 자녀들을 돌보거나 선교사 가족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만 선교지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D.L. Moody, A.B. Simpson, A.J. Gordon 같은 지도자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발휘하여 공적 사역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88 년에 “우리는 여성들을 여러 선교지에 배치하고 있다”고 썼다. TEAM(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복음주의 동맹 선교) 설립자인 프레드릭 프랜슨 (Fredrik Franson)은 다문화권을 복음화하기 위해 여성들을 모집하여 파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 남북전쟁은 여자들의 파송 방식에 변화를 이루는 촉매가 되었다.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죽어서 여성들은 과부가 되거나 결혼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많은 사회적인 책임들을 맡게 되었고 그 다음 50 년간 선교운동의 주요세력으로서 남자들보다 더 큰 역할을 물려받았다. 기존 선교회와 위원회들이 여성 선교사 파송을 거부하자 여성들 자신이 선교회를 만들었다. 첫번째는 여성 연합 선교회 (Weman's Union

Missionary Society)였다. 많은 재정 후원자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여성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양성 목적의 여성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여성 선교회는 10 만 여 개로 늘어나 기도와 기금 모금 기반인 지역교회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전반적으로 선교에 종사하는 인원의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었으며 현재도 그러한 추세이다. 많은 선교 집행부는 일이 어렵고 위험할수록 여성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데 동의한다. 교육, 의료선교 등 특수한 영역에서 여성들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최근들어 여성들은 선교 전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는 여성 선교팀이 선교지에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2 차 대전 공군조종사 출신 여성 엘리자벳 그린(Elizabeth Greene)은 항공선교회 (Mission Aviation Fellowship) 설립자 중 하나였다. 수 백개의 다른 언어로 된 테이프와 음반들을 공급하는 복음 음반 선교회(Gospel Recordings)는 조이 리더호프 (Joy Ridderhof)의 비전과 노력을 통해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글래디스 애일워드(Gladys Aylward: 중국), 이소벨 쿤(Isobel Kuhn), 엘리자벳 엘리엇(Elisabeth Elliot), 그리고 중동에서 미친한 하녀로 사역하는 필리핀인 자매로부터 교단의 여성 간부, 그리고 한국의 주목받지 못하는 매서인(賣書人)들로부터 중국의 성경부인에 이르기까지 명단은 길고도 영광스럽게 이어진다. 하지만 여성 선교사들의 명단은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들이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6. 모라비안 교도들: 개척 선교 교회 (Europe's Moravians: A Pioneer Missionary Church)

모라비안 형제회 (Moravian Brethren)의 최초 선교사들인 옹기장이 레오나드 도버 (Leonard Dober)와 목수 데이빗 닛치만 (David Nitchmann)은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나기 60 년 전에,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최초로 중국에 상륙하기 150 년 전에 서인도 제도(West Indies)에 상륙했다. 사실 상 최초의 개신교적인 선교단이었다.

모라비안 형제회는 1732 년에 먼저 중앙 유럽 색소니 (Saxony)산지에서 조그마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 다음 20 년 동안 그들은 그린란드(1733), 북미 인디언 영토(1734), 남미 수리남(1735), 남아프리카(1736), 북극의 사모예드(1737), 알제와 실론, 스리랑카 (1740), 중국 (1742), 페르시아 (1747), 아비시니아와 래브라도(1752)에 들어갔다. 17 세기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서 반종교개혁에 대한 반발로 인한 핍박을 피해 복음주의 루터교도 귀족 니콜라스 진센도르프(Nicolas Zinzendorf)의 초청으로 버테스도르프(Berthesdorf) 사유지에 피난했다가 크리스천 데이빗 (Christian David)의 인도하에 1722 년 헤른훗(Herrnhut) 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갔다. 그들은 철저히 헌신된 섬김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준비가 되는 사람들마다 먼저 선교사로 파송받고 남은 자들은 그 선교사를 전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임명된 후 공적으로 주목과 찬양을 받고, 주님께 헌신한 것에 대해 많은 칭찬을 받는 것, 그래서 사역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회중들에게 자신이 순교자이며 박해에도 굴하지 않은 증거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보다 그들에게 회중들의 열렬한 기도에 의탁하고 조용히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Ignatius Latrobe, 모라비안 선교회 전 총무)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특징 1. 선교에 대한 순종은 본질적으로 기쁘고 자발적인 것으로, 추방당한 소그룹의 신자들 사이에서 성령의 깊은 운행하심이 일어난 결과였다. 2. 넘쳐흐르는 열심의 일차적인 동기는 그리스도를 위한 깊고도 지속적인 열정과 사랑이다. 최초의 지도자 진센도르프 백작 자신이 순수한 열정의 소유자로, ‘나에게는 한 가지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오직 그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3. 그들은 믿을 수 없이 큰 어려움과 위험들을 놀라운 용기로 맞이했다. 그들은 역경들을 선교지 사람들과 동일화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역사상 유례없는 성육신적 동일화(고전 9:22,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가 그들에 의해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다. 대부분의 초기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자비량’으로 나갔다. 즉 그들은 대부분 기능공과 농부들이었으며, 선교지에서도 그 직업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주된 비용은 파송하는 비용 뿐이었다. 수 많은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순교했다. 남미 가이아나에서는 처음 도착한 160명 중 75명이 열병, 유독 물질 등으로 죽었다. 그들은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 노동과 섬김으로 이미 다른 백인 선교사들과 식민지 지배자들을 경험하고 있던 아프리카와 남미 현지인들로부터 존경과 협력을 쉽게 얻어내었다. 4. 많은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매우 고귀한 목적에 대한 집요함을 가지고 있었다. 실패가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지배적인 섭리에 조용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다시 그 일을 시작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약점들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전도 자체에 더 집중하느라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데 매우 약했다. 선교 주둔지 접근법(Mission Station Approach)에 집중하면서 그 주둔지들 이름을 사렙다, 나사렛, 베들레헴 등의 성경지명을 붙였다. 현지인들과 그들의 문화에 상황화하는데 부족했다. 3. 신학적인 교육에 소홀함으로써 장기적인 사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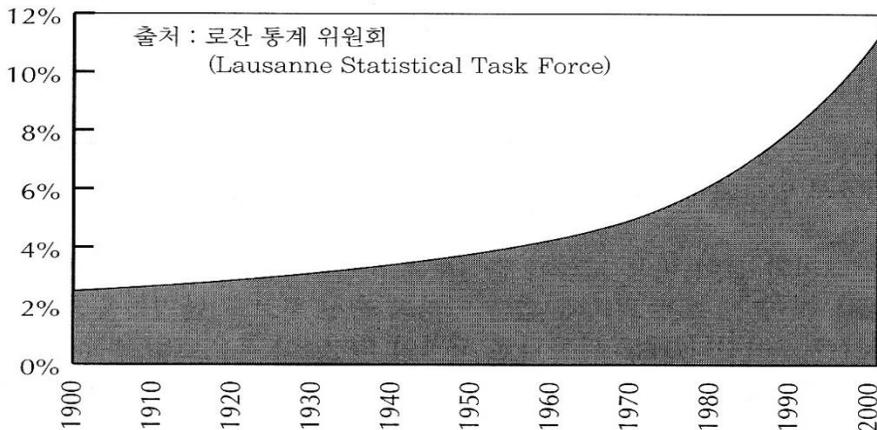
제 9 과 남은 과업 - 미전도 종족 (The Task Remaining)

전략적 관점(The Strategic Perspective)

우리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열방들에게 확대된 것을 보았다. 그 축복은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꾸준한 열정으로 이루어져 나갔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께로 향한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이전 어느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처럼 많은 언어로 불려진 적이 없으며, 지금처럼 여러 문화에서 신실하게 순종이 일어난 적도 없다. 동시에 그 어느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지금처럼 지독하게 증오를 받거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처럼 널리 핍박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동시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 적도 없다. 현재의 실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훨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복음의 놀라운 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현실은,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복음과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단 종족 집단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면, 남은 과업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할 수 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 (A Witness to All Nations) 우리는 전세계에서 복음이 감격적일 정도로 진보되는 것을 보고 그리 놀라서는 안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란 말은 판타 타 에뜨네 (panta ta ethne)라는 헬라어로, 모든 나라 혹은 모든 민족국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 언어, 그리고 세상의 종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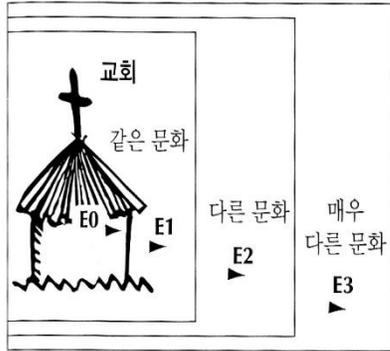
20세기 세계 총 인구 중 신자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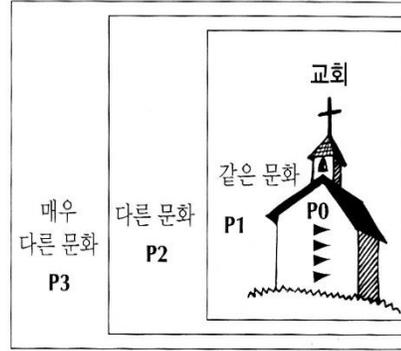
헌신된 신자들이 세계 인구의 0%에서 1900년에 2.5%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8세기가 걸렸으며, 2.5%에서 1970년에 5%로 성장하기까지는 겨우 70년이 걸렸고, 5%에서 11.2%로 성장하는 데는 단 30년이 걸렸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에 아홉 명의 불신자마다 한 명의 신자가 있게 되었다.

* **선교사(선교)와 전도자(전도)의 차이** 선교사는 “현저히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사역자” (E2 혹은 E3), 그와 대조적으로 복음전도자는 자기와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 (E0 혹은 E1).

E-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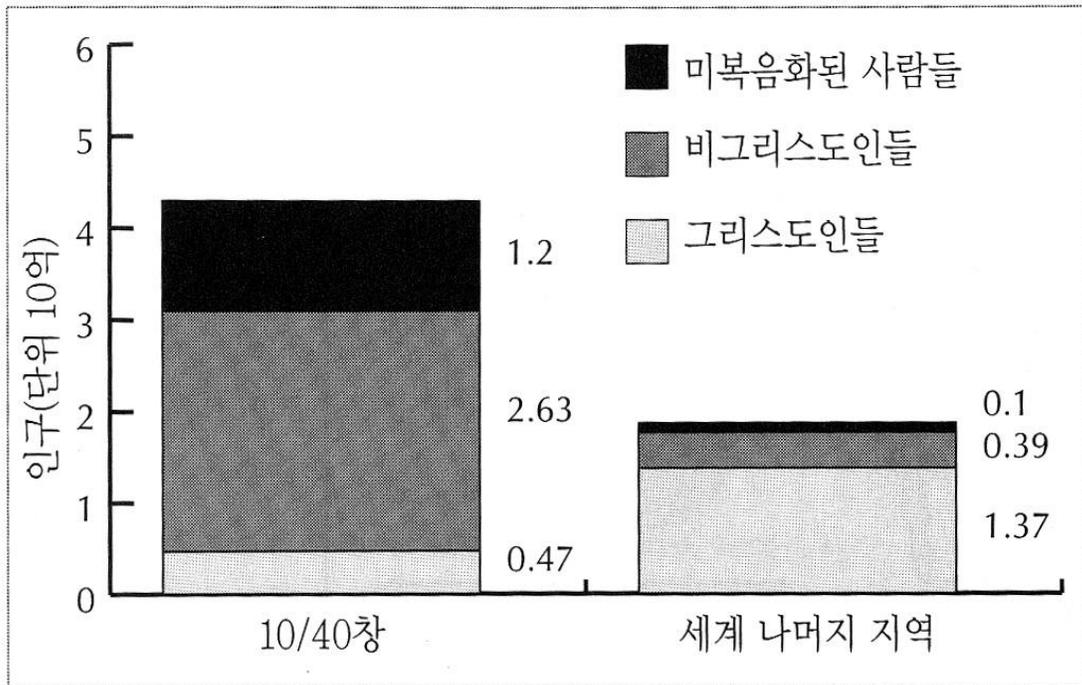
P-등급



E-등급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문화적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E0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을 복음화하는 것을 말한다. E1은 한 가지 장애물, 곧 '교회 문화'라는 장애물만 갖고 있는 같은 문화권 내의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E2 복음 전도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문화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E3 복음 전도는 매우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P-등급은 E-등급을 단지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이상이다. P-등급은 잠재적인 회심자들이 가장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려면 얼마만큼의 문화적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지 비교한다.

세계 복음화와 10/40창



지난 2021년 한 해 48개 언어로 첫 성경 번역 (김진영 기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21년, 전 세계 성서공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 가량인 7억 9천 4백만 명이 사용하는 90개 언어로 성서 번역을 완료했다고 대한성서공회가 최근 밝혔다. 또 공회에 따르면 특별히 멕시코에서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48개 언어 사용자, 1천 1백만 명은 처음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받았다. 아울러 새로운 번역 또는 기존 번역의 개정판은 7억 83백만 명이 사용하는 43개 언어로 완성됐다. 공회는 “새롭게 번역된 이 성경들을 통해, 언어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마이클 페로 총무는 “새로운 번역본들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매우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성서를 제공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삶을 헌신한 번역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또한 전 세계 후원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며 “성서 번역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소망과 위로를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년 세계 성경 번역 현황

2022년 1월 기준, 총 7,376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는 719개의 언어로 번역보급되었다. 신약성서는 1,593개 언어로, 단편성서는 1,212개의 언어로 각각 번역되었다. 모두 합치면 3,524개 언어다. 그러나 아직 3,852개의 언어는 단편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 세계 58억 명이 성경전서를 갖게 됐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갖게 된 사람들은 8억 4천 5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도 4억 5천 4백만 명이라고 공회는 밝혔다. 하지만 2억 1천 9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언어 절반 이상은 아직 성서조차 전혀 번역되지 않았다. 그리고 15억 명은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전서가 없다.

48개 언어로 완성된 첫 번역 성경

2021년 한 해, 성경전서와 신약성서, 단편성서를 포함해 48개의 언어로 첫 번역성경이 출판됐다. 이 가운데 3개 언어는 성경전서로, 8개 언어는 신약성서로, 37개의 언어는 단편성서로 번역되었다. 미얀마 쿠알심어(Khualsim)는 미얀마의 소수 언어로 약 7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한다. 공회 측에 따르면 이 성경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번역 되었다. 미얀마 쿠알심어 성경 봉헌식은 코로나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쿠데타의 어려움으로 18개월 지연돼,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공회는 “봉헌식 현장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안타깝게도 번역자로 참여한 버나드 로이제 박사와 번역을 도왔던 그의 아들 모두 새롭게 출간된 성경이 집으로 배송되기 바로 며칠 전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미얀마성서공회 총무 코이람탕 목사는 “봉헌식 설교자는 ‘버나드 박사님은 자신의 삶으로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성서 번역 로드맵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모든 언어로 성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번역 기관들 간의 협력 증대, 기술의 발전과 후원자들의 동참 등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성서 번역

역사에서 이전에 없었던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38년까지 1,200 개의 성서 번역을 완성한다는 큰 비전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 가운데 880 개는 첫 번역 프로젝트고, 나머지 320 개 프로젝트는 새로운 번역이거나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103 개 번역이 완성됐고, 312 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2022 년 전 세계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32%

고든콘웰신학교 산하 글로벌기독교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도 최근 월드 크리스천 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base)의 2022 년 1 월 통계에 근거한 IBMR 자료를 활용해 ‘2022 세계 기독교 현황’ 을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 년 중 반 전 세계 인구는 79 억 5,395 만 3 천 명(이하 추정치)이며, 이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32.18%에 해당하는 25 억 5,987 만 5 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0 년 19 억 8,117 만 7 천 명보다 약 5 억 7,800 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연증가율은 1.17%였다. 하지만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 비율로만 따지면 1900 년에 34.47%, 1970 년에 33.11%, 2000 년에 32.24%에 이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 세계 도시화율은 2000 년 46.6%에서 2022 년 중순 5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도시 빈민인구 및 슬럼가 거주민은 2000 년 각각 14 억 명, 7 억 명에서 2022 년 중반 각각 27 억 4,000 만 명, 14 억 5,000 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은 2022 년 중순 16 억 8,746 만 5,000 명으로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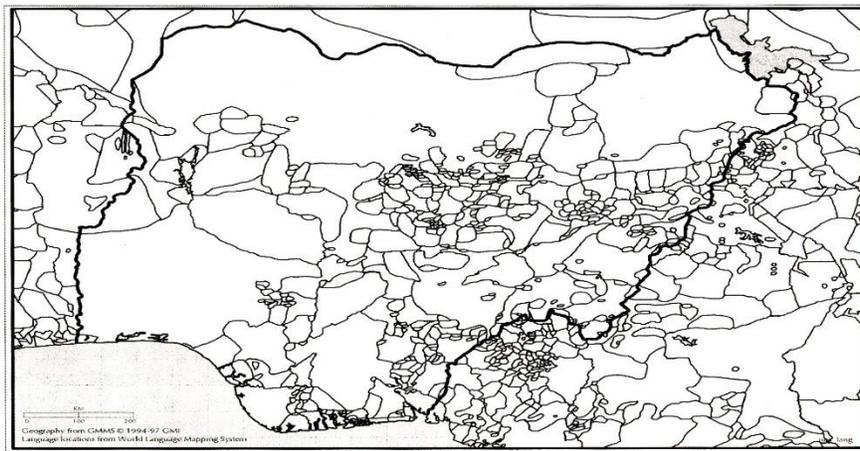
2022 년 중순, 기독교인 가운데 소속 교인은 24 억 4,630 만 4 천 명이며, 이 중 로마카톨릭 교인은 12 억 5,612 만 명, 개신교인은 6 억 77 만 2 천 명, 독립교단 교인은 4 억 245 만 1 천 명, 정교회 교인은 2 억 9,550 만 8 천 명으로 예상했다. 무소속 기독교인은 1 억 2,357 만 1 천 명, 복음주의자는 4 억 12 만 1 천 명, 오순절주의자 및 은사주의자는 6 억 6,721 만 6 천 명이였다. 지역별 기독교인은 북반구에 8 억 3,780 만 9 천 명, 남반구에 17 억 2,206 만 6 천 명으로 파악했다. 북반구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은 5 억 6,855 만 9 천 명, 북미는 2 억 6,925 만 명이 기독교인이고, 남반구에서 아프리카는 6 억 9,209 만 4 천 명, 아시아는 3 억 8,877 만 7 천 명, 라틴아메리카는 6 억 1,238 만 1 천 명, 오세아니아는 2,881 만 4 천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됐다.

한편, 기독교 선교와 전도에서 해외 선교사는 2000 년 42 만 명에서 2022 년 43 만 5 천 명으로 나타났고, 10 년간 순교자 수는 90 만 명에 달했다. 한 해 인쇄된 성경은 9,300 만 권이었다.

정치적 경계선 : 나이지리아와 주변 나라들



나이지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언어에 의한 인종 언어학적 종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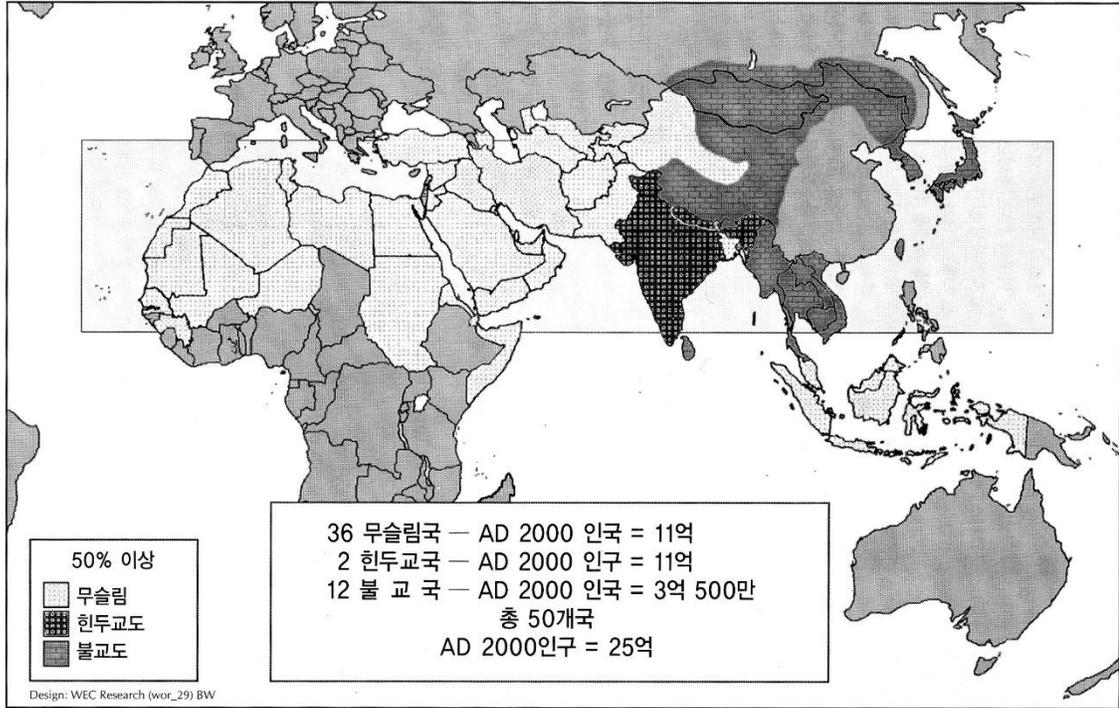


종족 집단이 곧 나라는 아니다. 나이지리아 표준 지도를 보면 1억의 인구를 가진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다. 사실상, 나이지리아는 427개의 인종 언어학적 종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나라이다. 두 번째 지도는 언어에 의해 구분된 집단들 중 일부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일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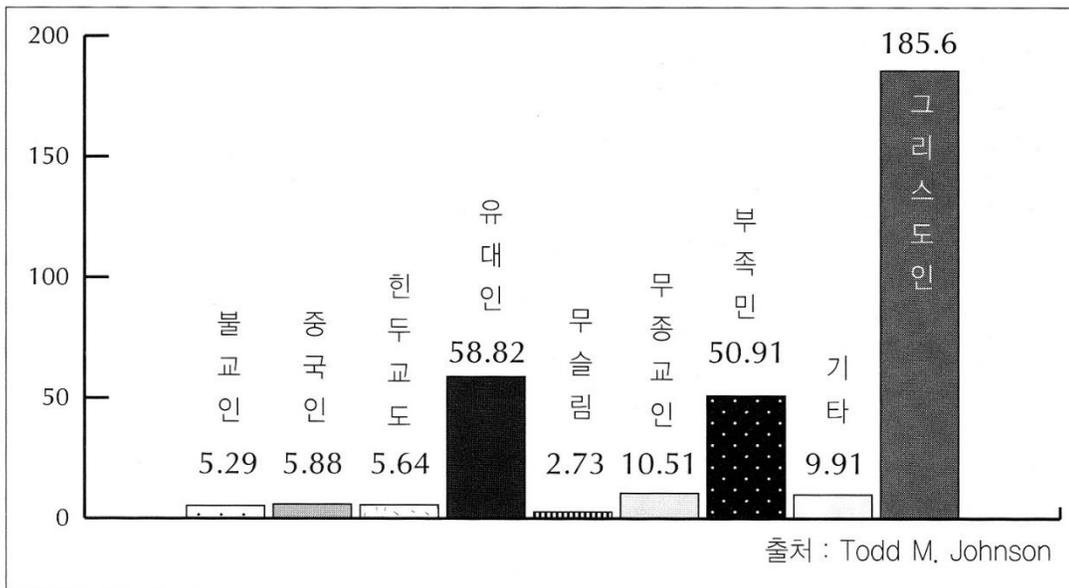
*** 회교신자(무슬림)들의 주요 국가 이민 현황** - 현재 유럽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종교적 이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민을 오고 있는 무슬림(이슬람교도)의 수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2001년도 모슬렘 비율은 프랑스(5백9십2만명; 인구의 10%), 독일(300만, 3.7%), 영국(120만, 2%), 네덜란드(845,000명, 5.4%), 덴마크(163,000명, 3%) 등으로 유럽 전체로는 약 5천만 명이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독일에서만 430만명, 영국 350만 등 유럽 전체로는 약 5천5백만명이 넘는다. 2050년에는 유럽인구의 20% 이상이 무슬림으로 채워질 것이다. 미국의 무슬림 수는 약 300만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이다. 2015년 초 전 세계 인구 73억 명 중 기독교인이 20억인 한편, 모슬렘은 21억 이상을 차지한다. 이슬람교는 엄청난 자연성장파와 40만 이슬람 선교사들을 앞세운 공격적인 전파로 기독교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들의 선교전략은, 중동 산유부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대규모 무슬림 선교재단을 통해 선교기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그들이 성전(holy war, jihad)라 주장하는 전쟁지역으로 파송하여 민병대 혹은 자살 테러로 희생하도록 하며, 선교비로

유학생들을 보내기도 세계 각국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선발하여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도 한다.

저항대(Resistant Belt)와 10/40창 (무슬림 · 힌두교도 · 불교도가 대부분인 국가들)



주요 문화권 내의 100만 명 당 해외 선교사 수



* **선교 지도자들이 합의하여 도출해 낸 전략적 정의 1. 종족집단(People Group)** - 언어, 종교, 인종성, 거주지, 직업, 사회적 계층, 상황, 혹은 이것들이 결합한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개인들의 상당히 큰 집단이다. 복음 전도적 관점에서 종족 집단은, 복음이 이해나 수용면에서 장벽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 개척운동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이다. **2. 미전도종족 (Unreached People)** 복음이 이해나 수용면에서 장벽들을 만나지 않고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큰 집단. **미전도 종족 집단 (Unreached People Group)** - 자신의 종족 집단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토착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이다.

* **선교학적 돌파** 선교 과업은 선교사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된다. 선교 과업은 모든 종족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문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종족 집단 내의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듣고 전달하는 그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그것을 “**선교학적 돌파**” 라고 부른다. 물론 선교학적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모든 종족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따르게 하는 제자화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 선교학적 돌파가 이루어지는 날은 분명 이 세상 끝이 가까운 날이 될 것이다.

* **단일 최대 종족(Unimax Peoples)이란?** 그리스도를 향한 종족 운동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단일화된 최대 크기의 집단.

* **전세계 미전도 종족집단은 몇 개인가?** 단일 최대 종족의 정의를 사용하면 대략 10,000 개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은 네 종족권, 즉 무슬림권(3,700-4,000 미만), 힌두권(2,700-3,000 미만), 부족권 (2,000), 불교권 (1,000)에 살고 있다. 한편 교통, 통신, 그리고 급속한 문명화로 인해 단일 최대종족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 **도시들의 도전 (The Challenge of the Cities)** 패트릭 존스톤은 21 세기의 개척 선교는 전략적으로 세상의 주요 도시들 (보다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변화무쌍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빈민가 (판자촌, 슬럼, 오두막집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으로써 성경적 성육신적 모델의 사역을 펼칠 수 있으며 지금 수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그 일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에는 전 세계의 숨은 미전도 종족들로부터 스스로 도시를 향해 나아온 개인과 가족들이 살고 있어 그들을 전도하고 훈련하여 다시 자기 종족들로 돌려보내거나 선교사와 동행하여 들어가면 그 종족집단을 복음화하는데 매우 좋은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 **선교전략 (Mission Strategy) 수립에 있어서의 성화된 실용주의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 교수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교리나 윤리적인 원리들을 바꾸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되는 반면, **비본질적인 방법론의 수립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략이 성령님을 지배할 수는 없다. 대신 좋은 전략들은 성령님이 영혼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도록 계획들을 제시한다. 좋은 전략들은 또한 인간 동역자들에게 연합할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을 제공한다.

* 이제 나머지 전략들은 12 과와 13-15 과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제 10 과 그들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How Shall They Hear?)

문화적 관점(The Cultural Perspective)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자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메신저들을 보내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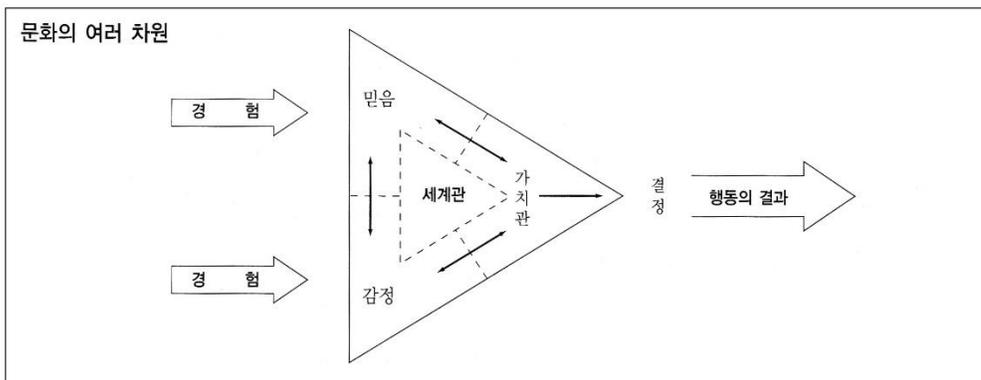
메신저들이 문화적 장벽들을 넘어 메시지를 전할 때 민감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그저 수많은 문화간의 소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자칫 선교사는 순진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서구의 신조들을 강조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고집쟁이가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종교의 선전이나 강요에 말려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맞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매우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사 전달의 방법은 개발되고 사역자들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1. 문화적 차이와 복음 전달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Communication of the Gospel)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점점 더 다문화적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복음이 한 문화 안에서 강력하게 ‘전파’되긴 하지만 문화적 장벽들을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가 복잡 다난하기 때문이다. 인도 선교사 출신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버트 박사(Paul Hiebert)는 문화를,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소 통합된 믿음, 감정, 가치관의 체계 및 그것들과 관련된 상징, 행동유형, 그리고 그 결과”라고 규정한다.

사람들의 행동 근거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정신적 지도(mental map)**가 존재하는데 이 정신적 지도를 **세계관 worldview** 이라고 부른다. 모든 문화의 핵심부에는 이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 세계관은 또한 세가지 차원 곧 믿음, 감정, 가치관으로 형성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복음은 초문화(모든 문화 위에 있는)적인 것이지만, 그 메시지는 성경적 사건들과 기록들이 이루어졌던 문화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타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시에 성경을 활발하게 연구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좀더 문화에 속박받지 않고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실패자들처럼, 단순한 진리, 성경적인 본질을 전달하기보다는 선교사 자신이 가진 문화나 잘못된 율법주의, 즉 비본질적이고 잘못된 문화를 수출하는 꼴이 되고 말 수도 있다. 자기 자신에 익숙한 문화를 선교지 혹은 타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들에게 강요하는 태도를 **자기민족 중심주의 (Ethnocentrism)** 혹은 **문화적 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라고 부른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Global Christians)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문화에 깊숙이 관여하여 사는 법을 배운 사람. 전에는 획일적인 문화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용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문화에든지 쉽게 동화되고 적응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우월감과 타 문화에 대한 편협함이 깨어지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록 우리는 우리의 고국에 있는 동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역문화충격이 아니라 세계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세계인은 역향수병에 시달리며, 한 나라에서 다른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2. 문화 내에서의 복음 전달 (상황화, Contextualization)

‘상황화하다’ (contextualize)라는 말은 복음을 그 (선교지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제시한다는 말이다. 복음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그 문화에 적절하게 받아들여 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황화이다. 성경과 복음의 본질까지 무시한 상황화는 종교적 혼합주의 (syncretism) 에 빠질 수 있으며(예, 대부분의 케톨릭 국가들), 성경에 기록된 비본질적인 2000 년 전의 유대문화와 시대적인 관습들도 양보하고, 선교지의 문화와 관습 가운데서 복음과 성경적 기독교 윤리(십계명)에 위배되는 부분은 현지인들 스스로가 성경을 근거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비판적 상황화**라고 부른다.

3. 구속적 유사 (Redemptive Analogy) : Don Richardson

a.구속적 유사의 성경적 예들: (1)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때 양을 제물로 바쳤다.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제물을 완벽하게 개인적으로 성취하신 분이라고 선포했다. 이것이 바로 구속적 유사이다. (2) 구약 광야에서 달린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 예수님을 상징. (3) 광야에서 내린 만나 -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 하셨다. - 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구속적 유사이다.

b.구속적 유사의 실제 활용: (1) 이리얀자야의 밀림 속 사위족(Sawi)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사역한 단 리차드슨 (Don Richardson)선교사가 쓴 책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구속적 유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가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이다 - **화해의 아이 내용 요약:** 단 리차드슨 선교사와 부인은 사위 부족이 배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가 바로 복음의 영웅처럼 비취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과 정반대인 그들의 문화와 풍습(배반과 살육, 끊임없는 전쟁과 식인풍습)에 좌절하던 선교사는, 그 사위족 문화

가운데 평화조약을 맺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한쪽 부족의 지도자가 적의 지도자에게 전쟁을 멈추고 화해를 청하면서 자기 아이 중 하나를 넘겨주어 상대방이 키우도록 맡긴다. 이 아이는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다. 이 화해의 아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두 부족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성립되는 것이다. 부족 간의 전투가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추장이 자기 어린 아이를 상대방 부족의 추장에게 넘겨 줌으로써 서로 화해하는 것을 보고, 단 리차슨 선교사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화해의 아이라고 소개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화해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화해의 아이, 곧 예수님만 소유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고,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복음을 설명했다.** 이에 온 사위 Sawi 부족이 (추장으로부터) 이 “구속적 유사”를 통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구속계획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지역 복음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 **Youtube.com** 에서 선교 영화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를 보고 난 뒤 주인공 **Don Richardson** 선교사의 사역으로부터 배우고 느낀 점을 함께 토론해 보자.

하나님에 대해 토착화된 이름을 사용함 (Using Indigenous Names of God) 또 다른 특별한 범주의 구속적 유사는 전세계 수천 개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해 사용하는 이름들 - 히브리어 ‘엘로힘’의 별명 - 에 관한 것이다. 놀랄만큼 많은 이교 문화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최고의 하나님에 대해 놀랄만큼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도 역시 피조계와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한다 (롬 1:20; 2:14-15; 행 14:16-17; 요 1:9; 전 3:11; 시 19:1-4). 바울은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대식 이름 - **여호와(Jehovah),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혹은 엘 샤다이** - 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구약 70 인역(Septuagint; LXX)을 번역한 사람들이 200 년 전에 내린 결정을 사도적으로 인가해 주었다. 그 번역자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헬라적인 이름인 **테오스(Theos)**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후에 테오스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라틴어인 **데우스 (Deus)**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훼와 동일한 말로 받아들여졌다. 켈트족 선교사들이 앵글로색슨 족에게 가서 사역할 때, 그들은 색슨족에게 신성을 나타내는 유대식 이름이나 헬라식 이름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은 “**God, Gut**” 같은 앵글로 색슨어를 사용했다. 한국의 장로교 개척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국 이름 - **하날님 (하늘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을 발견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선포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님을 무슬림들이 부르는 ‘**알라 Allah**’ 라고 똑같이 부른다. 이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었다. 1940 년대에 수단 내지 선교회 (SIM, Sudan Interior Mission)의 앨버트 브랜트 (Albert Brant)는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게데오인들이 창조주인 ‘**마가노**’가 언젠가 특정한 무화과 나무 아래 진을 칠 메신저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앨버트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 나무 아래에 진을 쳤다. 그러자 복음에 대한 엄청난 반응이 일기 시작해서 30 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50 개의 교회가 생겨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10,000 개의 언어로 된 10,000 개의 별칭을 가질 수 있으시다. 어떤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신학적 진공(theological vacuum)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이다!

구속적 유사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신 문화적 요소들을 식별하고 확증해 줄 때,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위한 완성된 계시로 높여질 수 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지역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다. 이 지역들의 문화를 민감하게 철저히 연구해 보면, 구속적 유사를 통해 복음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독교 증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영적 대결 (Three Encounters in Christian Witness): Charles H. Kraft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맞서신다 (Jesus Christ Confronts Satan) a. 예수님은 진리와 관련해서 사단과 맞서신다. 이것은 무지 혹은 오류에 대항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진리 대결이 된다. b. 예수님은 충성에 관해 사단과 맞서신다. 이것은 사람들을 잘못에서 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하는 **충성 혹은 헌신 대결**이 된다. c. 예수님은 능력에 관해 사단과 맞서신다. 이것은 사람들을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안에 있는 자유를 주는 **능력대결**이 된다.

영적 대결들은 함께 역사한다 (The Encounters Work Together) 이 세 종류의 영적 대결은 진리-충성-능력 대결의 순으로 단계가 있다. 세번째 능력단계에 들어서면 **첫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다. 제 1 단계 사람들은 무지와 오류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비기독교적인 어떤 영적 대상에 충성을 바치고 있다. 그들은 능력대결을 통해 그러한 사로잡힘에서 자유케 될 수 있으며 사탄에 의해 눈멀고 약한 의지에 있다가 진리에 눈이 열리게 된다. 그들은 진리와 충성대결을 통해 행동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받으며, 또한 그리스도께 헌신하기에 충분한 도전을 받는다. **두번째 단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을 하고 난 뒤에 지속적인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계속 진리 가르침을 받고 더욱 헌신하고 순종하도록 도전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 영역에서 계속 대결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런 일꾼으로 자란다. **세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관계가 성장하면서 미혹하고 괴롭히며 질병을 일으키고 귀신들게하는 원수의 능력을 깨려는 기도를 통해 능력대결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결에는 진리대결 및 충성대결이 수반되어 신자들은 더 열심히 증거하도록 도전을 받는다. 우리는 사단을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결해서 물리쳐야 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 중이며,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엡 6:11-12).**

사탄은 화살통에 진리를 위조하고, 파멸적인 헌신을 서서히 주입시키는 능력 등 세개의 화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복음주의자들은 한 두개의 화살만 가지고 전쟁에 임한다. 곧 진리와 지식에는 강하나 그들의 사역은 종종 이중적 충성(현지인들의 위선적인 헌신)과 명목주의에 걸려 무너지고 만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추상적인 진리, 확신할 수 없는 충성을 요구하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리를 입증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 화살’ 곧 신약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위조된 능력과 맞서 대결해야 한다. **진리와 헌신만으로는 안된다. 세계 선교에서 승리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세가지 영적 대결이 모두 필요하다.**

제 11 과 사랑의 다리가 되어 (Building Bridges of Love)

문화적 관점(The Cultural Perspective)

세계 선교에 가장 온전한 모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가 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成肉身, 道成人身; incarnation)은 인간의 상황과 문화와 자신을 동일화한 최고의 모범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타문화의 세계에 적절한 지혜와 전략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Cultural Hybrid Workers 들(서로 다른 둘 사이에 들어가 그 둘을 합쳐 고성능화, 고효율화 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그럼 복음과 사랑의 다리가 되려면 무엇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비슷하리라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1. 선교적 겸손의 5 가지 측면

(1) **과업에 의해 도전을 받음:** 겸손은 그 (선교) 과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2) **이해할 필요가 있음:** 겸손은 선교지의 문화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3)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시작함:** 겸손은 ‘절실한 필요’에서 부터 의사소통을 시작하고자 한다.

(4) **선교지 사람들을 인정함:** 예수님 닮은 겸손은 선교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자 한다.

(5) **성령님을 의지함:** 겸손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 곧 눈먼 자의 눈을 여시어 예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게 한다.

2. 겸손의 모델로써 예수님의 성육신

두 가지 넓은 영역, 곧 희생(포기)과 섬김(동일화 identification):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며, 고난을 통해 복종을 배우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교제하셨다 (빌 2 장; 히 2:14-18; 4:15;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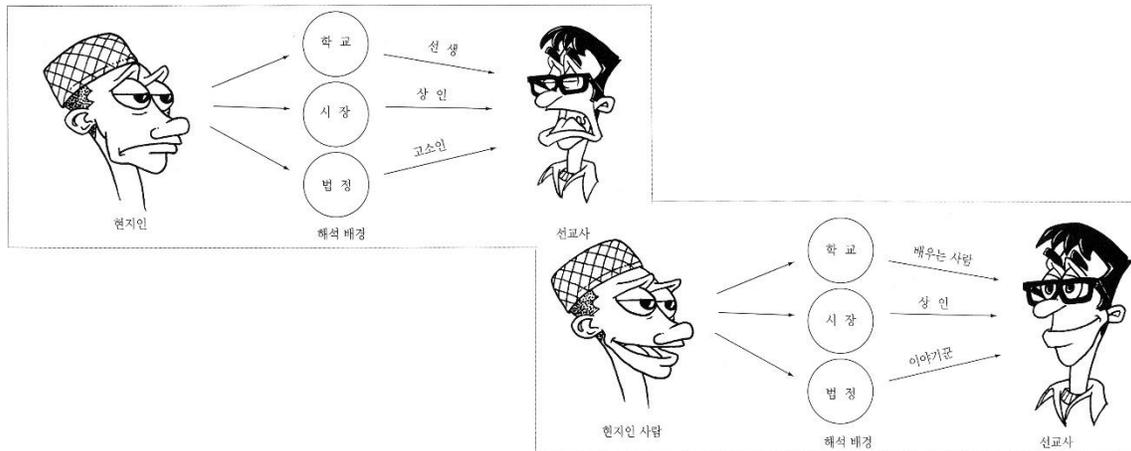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까지 동일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몰입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조차 ‘선교지 주민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도 좋지 않다. 양극단 사이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을 표현하며, 또한 거북해하지 않고 **상호의존을 기초로 서로 자연스럽게 호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진정한 동일화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그러한 동일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언제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바탕으로 현지 사람들과 친근하게 만나고 왕래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스스럼없이 따라할 때 비로소 선교사는 그들에게 용납되어지고 그들은 선교사를 존중하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3. 선교지에서 생존과 성공적인 사역이 가능한 선교사: 배우는 사람, 나누는 사람, 이야기꾼 (The Viable Missionary: Learner, Trader, Storyteller)

a. 우선 선교지 사람들은 외부인인 선교사를 인식하기를, 무언가 자기들에게 가르치려고 온 **선생 (Teacher)**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또한 외부세계, 곧 자기들보다 더 나은 나라에서 와서 무언가 자기들에게 보급시키려고(팔려고) 하는 **상인 (Seller)**같은 존재로, 그리고 더 문명화된 사회에서 왔기때문에 선교지의 미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고 고치려고 하는 **고소인 (Accuser)**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b. 이와같이 ‘철저한 외부인’인 선교사가 선교지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용납되어지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제대로 배우며, 나아가서는 선교사가 소유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역할**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선교사는 자신이 그 선교지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사람(Learner)**’으로 인식시킬 수 있어야 선교지 사람들로 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언어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을 배우는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게 된다. 두번째 역할은 선교사 자신이 가진 무언가 현지인들이 가진 어떤 것들과 스스럼없이 ‘**나누는 사람(Trader)**’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사거나 얻는 것보다는 주고 받는 것(give and take)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준비해 간 가족사진이나 자기 나라 국기 또는 고유의상 등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는 매개체로 삼는 동시에 자기가 배운 말로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주고 받는 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 역할은 좀 더 진전된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해 주는 사람(Storyteller)**’의 역할이다. 이 단계에서는 선교사가 이미 현지 언어도 많이 배우고 인간관계도 넓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우선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간단한 성경이야기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야기꾼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형성된 신뢰와 애정으로 선교사를 대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마음 문을 열고 선교사가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라)



4. 이야기식 복음 전달 (Communication by Storytelling) Tom A. Steffen, D. Bruce Graham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문맹이거나 반 문맹상태: 슬프게도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 설교자)이 전도와 교회 설교에서 ‘이야기하기’ 기술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있다. ‘이야기하기’ 방식보다 ‘논증을 통한 접근 방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몇 가지 근거없는 신화 때문이다 - 첫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둘째, 이야기는 즐기기를 위한 것이다. 셋째, 성인들은 논리 정연하고 객관적이며 명제적인 사고를 더 좋아한다. 넷째, 인격은 교리, 신조, 신학에서 추출될 수 있다. 다섯째, 이야기하기는 더욱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게 하므로 시간 낭비다. -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연관된 신화들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간과한다. 하지만 이야기하기와 복음전도, 제자 삼기를 위해 ‘이야기하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되는 7 가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 1. 이야기하기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다. 2.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구체적인 형태로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곧 추상적이고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의존할 경우 전 세계인 3분의 2 정도는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것이다. 3.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을 움직인다. 4. 성경 내용의 75% 가량이 이야기(설화)로 구성되어 있다. 5.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잠재적인 신자들을 개종 시키며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이야기하기 storytelling 가 가장 적합하다. 6. 이야기는 쉽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즉석 전도자를 만들어 낸다. 7. 예수님도 이야기를 통해 신학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여 재창조 비전으로 끝난다. 선교사(전도자)와 설교자들은 ‘이야기식 복음 제시’를 개발해야 한다.

5. 선교지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비결 신참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가 속한 문화에 효과적으로 순응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훈련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 온 토마스&엘리자벳 브루스터 부부(E. Thomas and Elizabeth S. Brewster) 는 처음 선교지로 들어가는 신참 선교사들에게 매우 핵심적인 조언을 해 준다.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들과 긴밀한 유대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처음 몇 주 동안 다음 네가지 조건들을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 (1) 기꺼이 그 지역 가족과 함께 살라 (주택도 따로 구하지 말고 현지인 집에 들어가라)
- (2) 개인 소지품은 20kg 으로 제한하라 (가능하면 현지에서 일용품들을 구입해서 쓰라)
- (3) 그 지역의 대중 교통만 이용하라 (언어습득과 사람교제하는 데 최상의 방법이 된다)
- (4) 관계 속에서 언어를 배우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며칠 동안” 이다. 아니 어쩌면 도착한 첫 날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 밖에 나가 외국인이 왔다고 구경은 이웃 사람들과 당장 만나고 인사를 나누라. 말이 되든지 안되든지. 피곤하다고 해서 며칠 동안 그냥 방안에서만 틀어박혀 있다 보면 점점 현지인들과 가까워지려는 의욕과 용기는 사라지게 되고 현지인들에게도 좋은 (적극적인) 첫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된다.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책임이다. 선교사 중 낙오자가 많다는 것은 소속원이 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긴밀한 유대를 형성한다는 개념은 건전한 자아상을 가진 이중문화적(bi-cultural)인 개인을 의미한다. 이는 ‘선교지 주민들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가운데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 1:14)

예수님처럼 온전히 성육신할 수 있고 동일화 할 수 있는 선교사만이 진정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제 12 과 기독교적 지역 사회 개발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전략적 관점(The Strategic Perspective)

12 과에서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총체적 선교 (Holistic Mission)” 와 “복음의 양손 (Both Hands of the Gospel)” 전략을 다룬다. 총체적 선교란 한마디로 “전인, 곧 육체와 영혼을 위한 기독교 사역”으로, 그리고 복음의 양손 전략이란 “복음과 함께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선교이다. 선교사 (교회) 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초청하는 손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펼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손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손이다. 한 동안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과 진보적 사회구원 주의 양 진영 사이에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선교에 대한 방법론이 “복음/성경교육이 우선이다”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상반된 주장에서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수용한 결과 “총체적 선교전략”이 1974 년 여름 스위스 로잔 선교대회를 통해 성령님의 감동과 교회의 순종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총체적 선교/복음의 양손 전략이 형성되고 기독교의 보수-진보 양 진영이 세계선교란 공동목표 하에서 한 뜻으로 협력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바로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The 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1974 년 스위스 로잔)에서 작성되고 선포된 **로잔언약 (The Lausanne Covenant)** 과 윌로우뱅크 보고서 (The Willow Bank Report) 가 세계 복음화의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데서 비롯되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로잔대회는 수년마다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세계 기독교 운동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재설정한다.) 특히 로잔언약은 전 세계 많은 복음주의 신자들의 공감과 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왔는데, 제 5 항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일시하지도 말고, 둘로 나누지도 말라고 요구한다. 둘 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월드비전 전세계 사역 참여 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for World Vision) 소장인 팀 디어본 박사 (Tim Dearborn) 는 “복음의 양손 (Both Hands of the Gospel)” 이란 표현으로 총체적 선교를 표현한다 - “우리는 복음의 양손을 벌려야 한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도록 초청하는 손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펼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손을 벌려야 한다. 어떤 하나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다. 둘 다 성경에 묘사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똑같이 중요한 수단들이다.

우선 12 과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중대한 필요를 몇 가지 밝히고 전 세계적 빈곤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시한다. 복음은 안으로부터 사람들을 변혁시켜 재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변혁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각 지역 사회 전역에 나타나기까지 확대되고 계속되어야 한다.

1. 궁핍한 세상: 세계의 필요 현황 (State of World Need)

마태복음 25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에 관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섯 가지 범주에서 세계의 필요를 간략하게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a.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something to eat) – 세계 인구 중 약 8 억이 고질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5 세 이하 어린이 사망원인의 55%가 영양실조이다. 그중 10%는 심각한 영양실조가 직접 원인이다. 매일 34,000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1 분에 24 명꼴이다. 반면 선진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20%에 불과하지만, 세계 식량자원의 80%를 소비한다. 미국인들은 해마다 다이어트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제반 비용으로 600 억 달러를 소비한다. 그리고도 과식과 과잉영양으로 인한 비만, 심장혈관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인구도 엄청나다 - 죽도록 먹는 것이다.
- b.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drink) – 물과 수자원의 중요성; 물은 피의 90%, 두뇌의 80%, 살의 75%, 뼈의 25%를 구성. 세계 인구의 11 억 이상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충분히 얻지 못한다. 물은 또한 식량생산, 음식준비, 위생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의 양과 질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일을 복음을 가진 누군가가 해야한다.
- c.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 난민 문제는 국제적으로 심각함을 더해 가고 있다. 전쟁과 억압의 궁극적인 희생자들, 이데올로기 전쟁, 정치적 억압, 잘못된 대외정책의 잊혀진 부산물이다. 이들을 위해 안식처와 일자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일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 d.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I was naked and you clothed me) – 지금도 전쟁과 자연 재앙 곧 가뭄, 홍수, 열대성 대폭풍(태풍 등), 지진 등으로 재난을 당해 헐벗고 있는 이들이 많다. 재난으로부터 재건을 절실히 필요로하는 지역과 사람들은 누가 도와줄 것인가?
- e.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I was sick and you cared for me) – 말라리아, 결핵, 기생충 감염 등으로 해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죽는다.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과상풍, 홍역 등)과 기생충에 의한 질병으로 죽는다.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보다 15 년-25 년 정도가 낮게 측정된다. 가장 널리 퍼진 질병들은 배설물과 관련된 것이다; 기생충, 장티푸스, 콜레라 등. 공기로 전염되는 질병들이 그 다음으로 많다; 결핵, 폐렴, 디프테리아, 기관지염, 백일해, 뇌수막염, 유행성 감기, 홍역, 천연두, 수두 등. 세번째 그룹의 질병들은 덜 흔하지만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 전염병) 등이다. 모두가 예방과 빈곤 퇴치, 계몽과 질병퇴치 보건활동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4 명 중 1 명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f.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visit me) – 국제 기독교인 관심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20 세기에는 이전의 모든 세기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 받고 순교당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3 분의 2 가 오늘날 갖가지로 핍박받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는 자유를 상실하는 것, 차별, 투옥, 노예가 되는 것, 고문 등이 포함된다.”

- g.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hat Can We Do?)** – “우리는 누구도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으며, 우리는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Ron Sider). UN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교육, 의료, 깨끗한 물(해바다 골프장 관리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양이면 된다)을 제공하려면 1년에 약 300-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삶으로, 우리의 지극히 작은 하나 하나의 반응들을 통해 영원한 의미로 나타나고 선포된다.

2. 총체적인 기독교적 지역사회 변혁 개발의 원리들

18년 이상 30여개국에서 국제구제 및 개발 분야에서 일한 새뮤엘 부어히스교수 (Samuel J. Voorhies)는 다음 10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 사람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라. 그 지역문화배경 안에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라. 그러나 성경적으로 부정/공정적인 면을 분별하라.
-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기여하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들로 하여금 주인의식과 자존감을 갖게 하라.
-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초점으로 삼으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라.
- 빈곤에는 육체적, 물질적, 영적, 사회적 차원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들을 분리하지 않도록 하고 전인(全人)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설계하라.
- 말씀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의 삶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개발에 접근하라.
- 어느 것이나 수용자의 세계관에서 이해하고 해석되어야 함을 깨달으라.
- 하나님이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이미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라.
- 사람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통해 변혁된다는 것을 믿으라.
- 교회가 지속적이고 풍성한 변혁을 위한 기본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라.

3. 돼지, 연못 그리고 복음 (Pigs, Ponds and the Gospel)

27년간 태국에서 교회 개척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사역한 제임스 구스탑슨 (James Gustafson)은 “지역 사회 개발은 앞장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소액 대출 제도’의 예를 설명한다.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소규모 대출을 제공하는 이 제도(접근법)는 돈을 거저 주는 구제활동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태국 북동부에 있는 농후아쿠 마을에서 사역하는 이싸안 개발 재단은 물고기-오리-돼지 농장 협력사역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얼마간의 가축들을 빌려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며, 땅을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대 준다. 농부들이 할 일은 협동 조합원들이 팔려고 놓은 땅을 찾아내고, 돼지 우리와 오리 축사를 짓고, 물고기를 기를 연못을 파며, 함께 일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자기 짐승들을 가지고 대출금을 갚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사들은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과 구제품 공급으로 지역주민들을 교회로 모으는데서 오는 부작용, 즉 ‘먹을 것을 위한 그리스도인’ (Rice Christian)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된다.

4. 도시 빈민: 우리는 누구인가? (The Urban Poor: Who Are We?)

AD2000 운동의 도시 자원 네트워크(Cities Resource Network) 책임자인 비브 그릭(Viv Grigg)은 제 1 세계와 제 3 세계 도시 빈민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제 3 세계의 사람들이 갖고있는 빈곤은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기에 절대적으로 불충분한 절대적 빈곤인 반면, 제 1 세계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난한 것으로 느끼고 간주되는 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도시 빈민의 세가지 주요 범주들은, 대도시 중심부의 빈민가 (inner-city slums), 불법 점거지 (squatters), 그리고 분화된 집단들이다.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는 **절망의 빈민가**에서는 수 대째 가난을 대물림하며 내려오는 매우 고착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물론, 각종 범죄와 마약, 알콜 중독이 만연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반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면에서는 불법 점거지 (철거 대상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전략적이다. 이러한 지역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오지 농촌지역, 미전도 종족지역, 그리고 종족단위 거주지들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안고 대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곳은 **희망의 빈민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복음 전파자는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희망의 빈민가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자신이 떠나온 고향과 동족을 찾아 돌아간다. 물론 그들은 고향에 갈 때 부모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눠줄 선물과 함께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도 함께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도시 빈민 선교는 그러므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중요한 선교전략적인 접근도 될 수 있는 것이다.

5. 세상의 상처들을 치료함 (Healing the Wounds of the World)

국제 예수 전도단 소속으로 국제화해 연합(Int'l Reconciliation Coalition)설립자이기도 한 존 도슨(John Dawson)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진보를 막아온 근본적인 죄들을 다루고 상처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일깨워 준다. 1995년에 열린 캐나다 회의에서 40 개국 이상의 대표들은 **종족들 및 사회의 각 집단들 간에 깊이 뿌리박은 체계적인 소외의 14 가지 일반적 범주**를 밝혔다. 그것은 화해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14 개 영역이다.

- a. 토착민과 이주민들 (이를테면, 아보리진 Australian-Aboriginals 라 불리는 호주 원주민들과 유럽출신 호주인들 사이의 역사적인 원한 관계)
- b. 남아있는 적개심 (예를 들어, 노예제의 유산 때문에 미국 흑인과 백인 사이)
- c. 종족 집단간의 갈등 (쿠르드족 대 투르크족 혹은 후투족 대 투치족)
- d. 민족국가의 경쟁들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국경분쟁)
- e. 독립운동 (식민정책의 결과로 티모르인들이 독립쟁취 과정에서 자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저항하고 인도네시아인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대량 학살함)
- f. 내란 (유고슬라비아가 분열하면서 보스니아인 등 여러 민족/종교가 서로 반목함)
- g. 세대간 소외감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십대자녀들의 반체제 문화를 다루는 경우)
- h. 사회적 충돌들 (환경이나 낙태에 대한 좌파 이데올로기와 우파 이데올로기 충돌)

- i. 성에 근거한 학대 (1940년대 2차 대전 중 일본군이 한국, 중국, 필리핀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요한 역사)
- j. 사업, 무역, 노동 분쟁 (이민 농장 근로자 대 농업 관련 기업, 사주와 노동자간)
- k. 사회 계층간 분열 (인도의 카스트 제도, 사회주의 혁명과 지배계층 엘리트들)
- l. 종교간 분쟁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분쟁, 신교와 구교의 분쟁 등)
- m.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들 (종파 분열과 이단 시비, 파푸아뉴기니 종족 간 내전)
- n.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끼친 해악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재세례파 학살, 미국 신대륙에서 일어난 마녀사냥 등)

화해를 위한 모델 (A Model For Reconciliation) 화해 사역의 일차적 책임은 교회에 있다. 교회가 앞장서서 화해 사역을 이끌어내야 한다. 화해를 위한 모델은 고백, 회개, 화해, 그리고 회복의 단계이다.

- a. **고백:** 진실을 공개함. 내 자신, 내 종족 집단 혹은 조상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족에 가한 불의 혹은 유해한 행동을 인정하고 고백함
- b. **회개:** 사랑 없는 행동에서 사랑있는 행동으로 바뀜
- c. **화해:** 용서를 표하고 용서받으며 이전에 원수였던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
- d. **회복:** 손상, 파괴되었던 것을 회복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행동할 힘이 있을때마다 정의를 추구함. 때로는 해를 끼친 측과 당한 측 대표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거나 용서를 베푸는 행사나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경건한 슬픔을 경험하고 이 땅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자원해서 자신을 열어놓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바로 여기에 화해가 시작된다.

화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처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예수님 앞에서 서로가 가한 죄와 당한 피해(상처)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죄와 슬픔, 상처를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s)는 기도 이상의 선교 도구이다. 중보기도는 차원높은 선교 전략이요, 중재와 화목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교회가 그 지역의 문제점과 죄악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중보하고 회개하며 악한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침으로 써 놀라운 변화와 복음의 열매를 가져온다.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와 사역, 교제로 모이고, 지역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 할 때 그 지역의 영적인 수위(spiritual water level)가 높아진다. 영적 수위가 낮은 도시에서 한 교회가 단독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려는 것은 마치 물이 빠진 댐에서 배 한 척이 혼자 떠오르려는 것과 같다. 모든 화해와 상처 치유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화해가 상처 치유 없이는 복음의 승리와 확산도 기대할 수 없다. 교회가 앞장 서서 그 지역 혹은 종족이 회개하고 화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나고 저주 받은 땅을 고쳐주신다 (대하 7:14).

- 아래 13~14과는 세미나 기간 중 강의를 듣지 않고 요약교재 자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한번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제 13 과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

(The Spontaneous Multiplication of Churches)

전략적 관점(The Strategic Perspective)

어떤 한 종족 집단 전체에 파고들어 그 집단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교사들은 전체 부족 집단과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생존 가능한 토착교회, 생명력있고 자발적으로 재생산하는 교회,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를 설립해야한다. 이와 같은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종족에게 교회가 있게 하려는 “**총력교회 개척**”이란 비전이 출발하는 것이다.

1. 값이 매겨지지 않은 진주: 종족 운동의 가치

도날드 맥가브런 박사(Donald McGavran)는 그의 고전적 저술인 하나님의 다리 (The Bridges of God)에서 오순절 이후 세계 기독교 운동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개괄한다. 역사를 통털어 일찍이 그리스도를 따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종족운동 (People Movement)’을 통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기서 종족 운동이란, 같은 문화와 혈족 관계를 지닌 종족이 그들의 정체성 및 종족 내에서의 관계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집단적 결정을 하는 물결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종족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바로 그 종족 자체이다. 맥가브런이 종종 ‘그리스도를 향한 종족 운동 (People Movements to Christ)’ 혹은 ‘그리스도를 향한 운동 (Christward Movement)’이라고 불렀던 이 종족 운동은 오늘 날 선교전략에 있어서도 인정받고 발전 유지될 수 있으며, 또 추구되어야 할 선교전략이다. **지속적인 종족운동의 한 가지 현저한 특징은 단순하고 강력한 교회 네트워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맥가브런 박사는 종족 운동의 다섯 가지 이점을 설명한다.

A. 영구적인 교회: 수 십만 개의 마을이라는 토양에 뿌리박고 있는 이 교회들은 서구의 지배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지역의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결코 붕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 자신의 경제생활 속에 자리잡아 경제적으로 서구 선교회들에게서 상당히 독립할 수 있다. 낮은 교육 수준이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순수하고 전폭적인 헌신과 핍박의 불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B. 토착교회: 종족 운동교회는 어떤 한 종족 속에 들어가 그 종족들로 구성된, 그 종족이 주축이 되는 토착 교회로서 그들의 문화적 바탕에 그들의 집 모양으로 예배당을 짓고 그 지방 고유의 가락으로 찬양한다. 이는 선교사들이 회심자들을 매우 서구화된 선교 기지에 익숙시켜 버리고, 모든 것은 선교사가 주관하고 주도하며, 결과적으로는 현지인 회심자를 그가 속한 종족들로부터는 격리시켜 ‘믿는 자들만 한 군데 따로 모아놓는’ 이른바 ‘**선교기지 접근법 (Mission Station Approach)**’과 확연히 비교된다. 선교기지접근법은 한 마디로 선교사 자기 중심의 선교 방법으로서 현지 교회와 현지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종족운동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의 선교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미 수 십년 전에 서구선교사들에 의해 그 단점과 한계가 증명이 된 선교 전략인데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C. 자발적으로 확장되는 교회: 맥가브란은 롤랜드 앨런(Roland Allen)이 쓴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자발적인 확장**’ 이라는 것이다(이번 과의 제목). 알렌은 선교사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충분히 구비시키고 그곳에서 거듭나 성장한 현지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지도력을 개발하고 독립시켜 스스로 배가하도록 한다면, 그 교회들은 실제로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전혀 없이도 배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늘날까지도 선교사들의 보살핌과 재정 공급에 의지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이지만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는다(예. 필리핀과 태국의 교회들은 수백년째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며 아직도 여전히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종족 운동이 일어날 때는 보통 선교사들이 보살피기에는 너무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나며, 독립적인 교회는 선교사들의 간섭이나 지원 없이도 배가된다.

D. 엄청난 성장 가능성: 집단 운동은 자기 종족 가운데서 외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선은 자기 종족 내부에서 집단회심운동이 일어난 후, 가까운 이웃 마을, 이웃 종족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지역교회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일례로써, 경북 의성 지방에 일어난 복음 운동은 복음이 산을 넘고 마을과 마을로 전파되었는데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먼저 믿은 신자들의 진도와 부흥사경회를 통한 말씀과 친교(부흥사경회 기간 동안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으로 벌어지는 음식과 잔치)가 성도들 간에 엄청난 유대관계와 소속감을 갖게 하였고 그 새롭고 거룩한 모임은 마른 봄날에 들불 번지듯이 번져 갔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자원 권서인(勸書人: 선교사들로부터 보급받은 쪽복음 성경책을 권하고 나눠주는 방문 진도인)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영적인 지도력으로 마을마다 가정교회가 생겨나고 그 가정교회들은 점차 조직교회로 성장해 갔다. 오늘날 경북 의성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와 가장 높은 기독교인 비율의 지역이 되었다.

E.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전한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외국의 기금을 받아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적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의미. 잘 양육받은 종족 운동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듣고 읽으며, 교회에 헌금하고, 교인을 권징하며, 목사가 영적으로 보살피고, 기도과 개인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며, 비기독교인적인 행동을 근절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에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생활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이런 생활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게 된다.

2. 전 가족을 복음화 함 (Evangelization of Whole Families)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교회들이 전 가족을 복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 사도행전 16 장에 등장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건은 전가족 복음화의 변함없는 모델이다.

츄아 위 히안 (Chua Wee Hian)은 중국에서 실패한 서구 선교사들의 두 가지 실패요인으로, 첫째는 그들 자신을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그래서 중국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서양 선교사들은 아무런 적절한 역할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과 둘째로는, 그들은 전 가족을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개개인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을 든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에게 ‘가정 파괴자’로 간주되었다. 한편 중국인들에 의해 시작된 어린 양떼회 (Little Flock Assembly)라는 토착적 교회 증식 운동의 복음 전도 방법을 대조적으로 소개하는데, 이 운동은 전 가족을 복음 전도대로 내보냈을 뿐 아니라 전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가족 중심의 전통 사회인 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대한 선교전략에는 반드시 이 전 가족 복음화란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중심의 사회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결정이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총력교회 개척 -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남 (His Glory Made Visible: Saturation Church Planting, SCP)

총력교회 개척(Saturation Church Planting, SCP)이란 어떤 종족 집단, 어떤 지역, 어떤 도시, 어떤 나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인구의 모든 작은 단위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려는 비전이다. 복음이 모든 종족에 파고들어가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마을과 도시 지역에 신자들이 셀 조직처럼 존재하거나, 매 500 명에서 1000 명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력교회 개척은 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는 전략, 이 세대의 종말을 위한 전략의 진수이다.

피터 와그너교수(Pete Wagner)는 그의 책 **성령행전 (The Acts of the Holy Spirit)**에서 말하기를, “사도행전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사역은 교회개척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병자를 치유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교회 공의회를 여는 것, 그리고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개하고 있는 다른 활동들의 목표는 바로 세계 전역에 기독교 교회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바울이 새로운 교회들에 끼친 영향의 일부는 분명 그들이 그들 도시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근 모든 지역에 새로운 가정교회를 설립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총력 교회 개척보다 더 중요한 선교학적 원리는 없다.”

“여호와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고 한 민수기 14:21 말씀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이사야 11:9 (하박국 2:14) 말씀은 바로 모든 종족 집단에 지역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그 날을 일컫는 말씀이다.

4.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를 위한 전략

타문화 선교사들의 교회개척과 배가성장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조지 패터슨 (George A. Patterson)은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 전략을 제시한다.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척된 교회가 다시 복음을 재생산 하도록** 도와주어서 딸 교회, 손녀 교회, 증손녀 교회 등으로 배가되는 것뿐 아니라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제안으로:

A. 당신이 제자 삼는 종족을 알고 사랑하라

(Know and love the people you disciple)

-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신의 책임 영역을 한 종족 혹은 한 지역 사회로 국한 시켜라.
- 교회가 그 종족의 교회가 되도록 하라. 자립, 자치, 자전의 원칙
- 어떤 종족 안에서 제자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라.

B. 당신의 제자들이 즉시 자신들이 제자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준비시켜라 (Mobilize your disciples immediately to edify those they are discipling)

- 당신이 제자로 훈련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서로 세워 주는 관계를 맺으라.
- 지도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서로 세워 주면서 가르치는 관계를 갖도록 권면하라

C.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고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사랑으로 예수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순종을 실천하라 (Teach and practice obedience to Jesus' commands in love above and before all else)

먼저 예수님의 기본 명령들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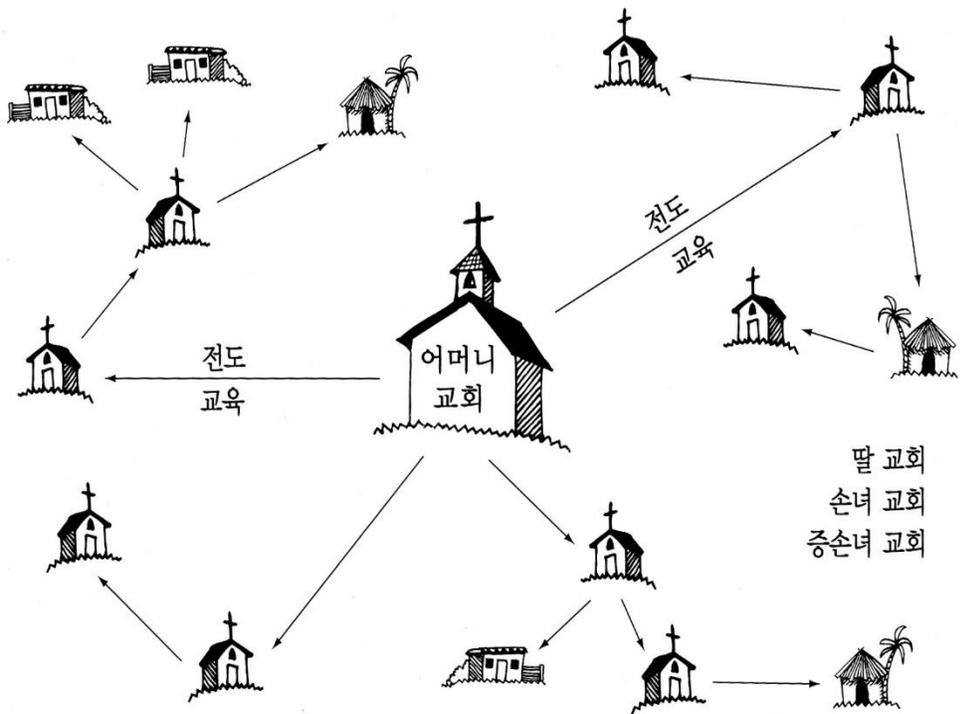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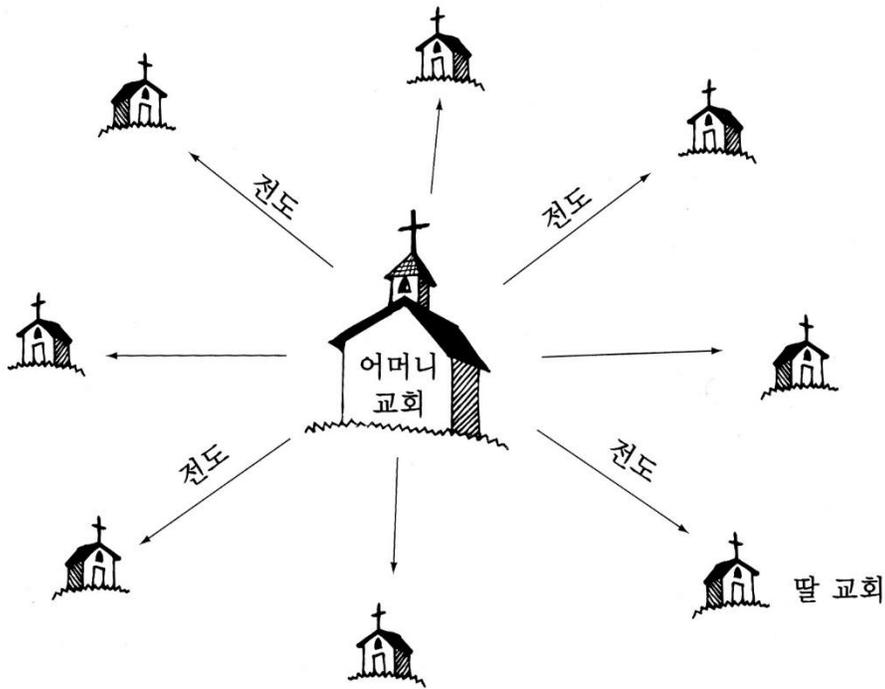
- 순종이라는 견지에서 복음 전도와 신학 교육 목표들을 규정하라
- 가르침의 방향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에 맞추라
 - 신약의 명령들, 사도의 관행, 인간의 관습들

D. 교회들을 재생산 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교회들 사이에 사랑스럽고 발전적인

책임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라 (Build loving, edifying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between disciples and churches in order to reproduce churches)

- 각각의 새로운 교회가 다시 재생산 하도록 도우라.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란 성령이 교회를 감동시키사 외부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딸 교회(daughter church)를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각 새신자에게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증거하는 법을 보여주라.
- 서로 세우는 교회간의 제자 훈련 관계를 확립하라
- 재생산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의 생명있고 재생산 능력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다음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다.



제 14 과 최전방 교회 개척 (Pioneer Church Planting)

전략적 관점(The Strategic Perspective)

1. 모든 종족 안에 하나의 교회를

도날드 맥개브런은 ‘교회가 없는 새로운 종족 집단 안에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다. 정말로 어렵고 필수적인 것은 사회의 문화적 정신을 반영하는 성장하는 교회를 하나가 아니라 집단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의 목표는 ‘인류 중 교회가 없는 곳에’ 성장하는 회중들을 집단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 믿은 후에 그 문화의 집단에서 분리되는 위험성

예수를 믿은 후에 그 가족이나 집단의 문화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메시지를 가지고 전체 종족 집단에 스며들지 못하고 문화로부터 봉쇄되어 버리므로 교회를 그 종족 안에 세우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스도를 향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일곱 가지 원리

1. 성장하는 교회를 집단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라. 그래야 시너지 작용이 일어난다
2. 하나의 종족집단에 집중하라.
3. 회심자들이 그들의 동족들과 함께 남아 있도록 권면하라. 가족이나 동족과 떨어지는 것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비 효과적임을 알라. 맥가브란은 오히려 그 동족들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한다. 표본이 되는 것,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가 아니면 문화적 가치나 관습을 유지하라. (채식주의, 주초문제, 일부다처제 등)
4.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결정을 집단으로 내리도록 격려하라. 집단적 결정은 심각한 배척이나 저항을 함께 견디게 해 준다. 맥가브란은 배척하는 일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의 회심자가 생겨날 때까지 세례주는 일을 미루라고 제안한다.
5. 새로운 회심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교회가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새신자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접촉하여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막아버리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6. 회심자들이 최고의 소망들을 구현하는 좋은 예가 되도록 도우라. 교회 개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 증거되어야 한다. 새 교회들은 자기 동족의 소망과 운명을 예시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7. 형제애를 강조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도록 가르친다.
 - 가. 평등성 강조: 불안정한 사회 제도들과 대조 그러나 처음부터 악한 사회제도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차츰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게 될것이다.

- 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함: 세상의 인종과 종족간의 화목을 이루는 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2. 하나됨과 획일성

하나됨과 자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건전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이다. 랄프 윈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똑같은 악보에 맞추어 매우 다른 문화적 악기들을 연주하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 안식일 준수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지니고 있던 바울 시대의 다양한 회중들에서 볼 수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기독교적 생활방식을 따르도록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그는 하나의 유형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규범적인 것으로 정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했다. 이일로 바울은 사실상 순교하게 되었다. 복음은 문화적 전통들을 소외시키거나 소외된 전통들을 계속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복음에 반대되지 않는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세계 그리스도인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야 한다.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다.

1. 끌어들이는 힘: 청년교회,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등
2. 결코 배제시키지 말라: 그러나 이런 동류의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의 약점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데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라.
3. **모슬렘식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메시지를 탈 서구화하고 성경의 본질에 충실한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운동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모슬렘이었다가 회심한 샤 알리는 모슬렘 전도의 두 가지 주요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기독교는 외국인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는 교묘한 속임수로 인식되었다.

모슬렘 옷을 입은 기독교 신앙

알리는 기독교가 외국인의 것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철저한 상황화 전략 네 가지를 기술한다.

상황화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제시함: 알리는 회교적인 어휘를 사용했다. (알라, 인질) 메신저들은 자신의 공동체와 계속 접촉하고 동일화했다. 그들은 모슬렘에서 개종한 확실한 사역자들을 모슬렘 마을에 파송하여 자신들을 모슬렘(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으로 소개하고 모슬렘식 기도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성경적 의미로 가득찬 기도를 드렸다.

적절한 형태들로 그 운동을 격려함: 새로 회심한 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계속해서 모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모슬렘 지도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권했다. ‘메시아적 모스크’라는 말은 회교 신앙과 관습 중 일부를 지키고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께 헌신한 모스크를 가리킨다.

완성하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따름: 예수 그리스도를 모슬렘 문화의 파괴자가 아니라

완성자로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메시아닉 유대교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완성자인 예수로 봄

책임있는 자조(Self-Help)를 향하여 알리가 지적한 두번째 주요 문제는 구제에 관해서는 복음사업과 구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도 있으나 알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통합 하여 복음과 교회개혁과 개발 노력을 통합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자국민들의 노력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든 하지 않든 제공되게 했다. 그리고 **구제품을 주지 않고 지역의 자원들을 동원하도록** 신중하게 고안되었다.

4.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의 상황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칫 복음을 축소하게 되고 심지어 성경에서 벗어난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과 위협에 대해 알아본다.

갖가지 선택권들

존 추래비스(John Travis)는 무슬림 권에서 나타나는 여섯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규정하는 실제적 도구를 개발해냈다. (6 Types of Christ-centered Communities found in the Muslim Context)

- C1-**외부인 언어를 사용하는 전통적 교회(Traditional Church using outsider language)
- C2-**내부인 언어를 사용하는 전통적 교회(Traditional Church using Insider language)
- C3-**내부인 언어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내부인 문화형식들을 사용하는 상황화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Contextualized Christ-centered Communities using Insider language and Religiously Neutral Insider Cultural Forms)-Muslim background converts
- C4-**내부인 언어와 성경적으로 허용되는 문화적, 이슬람적인 형식들을 사용하는 상황화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Contextualized Christ-centered communities using insider language and Biblical permissible Cultural and Islamic forms) 메시아 이사의 추종자들.
- C5-**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메시아적 모슬렘들’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Christ-centered communities of Messianic Muslims who have accepted Jesus as Lord and Savior) 이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슬람 공동체 안에 남아있다. 메시아적 유대교와 비슷하다. 성경에 위배되는 이슬람 신학은 배제하되 가능한 경우에는 재해석한다. 모슬렘 공동체도 그들을 모슬렘으로 보나 이슬람 신학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볼 것 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시아 이사를 따르는 모슬렘으로 칭한다.
- C6-**비밀, 지하 신자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Small Christ-centered Communities of Secret/Underground Believers) 이들은 자신들을 모슬렘으로 밝히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메신저나 운동을 지나치게 상황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

필 파살은 모슬렘들이 모스크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표현으로 허용하거나 심지어 권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상황화의 연속성 파살은 상황화와 혼합주의로 구분한다. 그는 C4는 뚜렷한 상황화이지만 C5의 노력은 혼합주의적이라는 견해이다. 메시아적 모스크는 모슬렘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려다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다. 메시아적 모스크 운동에 우려를 표한다. 구속된 모스크들에 대해서도 그는 비판적이다.

거짓말하는 선교사들: 파살은 자신이 모슬렘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한 한 사역자를 지적하고 있다. (예, 해리-모슬렘에 관심있는 외국인으로 가장, 나중에 죽을 뻔했다가 그곳을 떠났다. 밥-모하멧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포했다. 그는 나중에 사역을 그만 두게 되었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5.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존 추래비스는 파살의 비판에 대해 반박한다. 파살의 이론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존은 잠재적인 회심자의 관점에서 파살의 이론을 반박한다. 그렇다면 모슬렘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계속 공동체에 남아 있음 트라비스는 그들이 그곳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성경(토라-율법, 사불-선지서, 인질-복음서)를 가르칠 수 있으며 그 결과 예수님을 새로 믿는 신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살의 비판과 관련하여

1. 장기적인 과정을 인식함: 회심자들은 수세기 동안 복음에 적대적인 집단에 속한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2. 열매를 검토하라. 변화된 성품과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3. 다른 길은 있었는가? 급진적인 접근법이긴 하나 연구할 대상이다
4. C5 신자들과 C5 선교사들간의 차이: 모든 모슬렘의 회심자들은 모두 어떤 양태로는 C 등급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일차적인 문제는 C5 신자들이다.
5. 빛나간 믿음을 거부함. 모하멧을 선지자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 트라비스는 이슬람에 남아있으면서도 이슬람신학을 전부 다 긍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심자들은 곧 이슬람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긍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추래비스의 혼합주의에 대한 지침들-일곱가지

1.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
2. 다른 신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라.
3. 성경을 연구하라.
4. 신비주의를 버리고 거기서 해방되라.
5. 종교적 관습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다.
6. 종교적 신념들을 성경에 비추어 검토해 보라. 재해석, 거부, 수정
7. 중생했다는 것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이라.

* 천국에 가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행 11:26, 행 26:28 뵤전 4:16. 모슬렘지역이나 타종교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대한 고찰.

***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것인가?**

값을 치루는 일과 실현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라. : 종족 집단 안에 교회를 설립해야 되는 것만큼 분명한 것은 없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 지금도 사도적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 비전들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또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 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원리들이 실행되는 것을 인식하라.

- a. 한 개의 종족 집단에 초점을 맞추라.
- b. 종족들이 그들 종족의 일부로 남아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찾으라. 빼내기 전도를 거부하라.
- c.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종족의 이상들을 삶으로 구현하라. 문화를 정죄하지 말고 구분하라.
- d. 상황화는 종종 거의 혼합주의에 이르는 한계선까지 침식해 들어간다. 상황화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종종 그것은 보람있는 위험이다.
- e. 지역 신자들은 보통 참된 지도자들이며 교회 개척자들이다. 선교사들은 보통 돕는자, 코치, 훈련자이다.
- f. 응답된 기도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 g. 핍박은 일반적인 것이다. 어떤 운동이라도 적대감과 핍박의 불로 단련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교회 개척을 위한 12단계(교회 개척이 자유로운 곳일 경우)

- a.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 b. 함께 일할 팀을 구성하라
- c.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라
- d. 승리를 선포하라
- e.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찾으라
- f. 복음을 가르치라
- g. 결과를 평가하라
- h. 세례를 주고 교회 정식 회원이 되게 하라
- i.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라
- j. 공적인 예배를 시작하라
- k. 전도하게 하라
- l. 그들 가운데 교회 리더를 세워라

* 하나님 나라 확장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지도자를 세워 개척하게 하는 데 있다.

제 15 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협력

(World Christian Discipleship & Partnership)

전략적 관점(The Strategic Perspective)

지금까지 우리는 1 과부터 14 과까지의 강의를 듣고 교재를 읽으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체적인 섭리들, 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부응하였던 위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위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선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워왔다.

이제 제 15 과를 통해,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내가(그리고 우리 교회가), 삶의 현장 속에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파송자(후원자)로서의 역할과 동원자의 역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선교 현장으로 달려나갈 자세를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Worldly Christians 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1. “결렬된 틈새에 선다 (Standing in the Gap)”는 말의 의미 (David Bryant, 국제 기도함주회 대표)

이는 복음을 아는 사람 (지역) 들과 미전도 된 사람들 (Unreached people) 혹은 선교 (복음) 가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요 성숙한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행동이다. Corrie Ten Boom 의 표현 - “구세주와 함께 결렬된 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피난처(안전지대)를 떠나 주님을 위해 방랑하는 자들” - 마치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모자이크 틈새를 채우는 한 조각 작품이 되듯이 - 내가 채울 빈 공간은 어디에?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 단계 -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 그 **비전을 간직하고 키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품은 비전을 준비하면서 키워나가야 한다. 윌리엄 캐리는 200 여 년 전에 벌써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키워나갔다. 구두수선공이었던 그는 가족에 세계 지도를 그려넣고 세계 각 나라에 대한 자료를 그 지도 위에 차곡차곡 채워나갔다. 해외를 다녀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지도를 보며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순종하라!** (Catch, Keep and Obey a World Vision! p.490)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신다. 품고 간직해온 비전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 -- **Revolutionary Obedience!**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혁신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 (창 12:1-3). - 당신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아니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한다!

2.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전시생활 방식으로의 헌신 (a **Wartime Lifestyle**) (Ralph Winter, 1924~2009: 전 프런티어 미션과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대표) - 자신의 현재 생활방식을 돌아보자!

- b. **재헌신, 풍요로움의 해독제** - 세계 선교, 곧 세계 기독교 운동(World Christian Movement)은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임을 순간 순간 자각하며, “거룩한 용도를 위해 어떤 것(부분)을 따로 떼어 두는 것” 곧 생활 속의 구체적인 헌신을 회복 하여야 함. 서구세계의 낭비풍조와 선교현장을 비교해 볼 때 풍요로움에 젖어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무기력함과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를 극복하는 방법은 재헌신 recommitment 곧 제 2의 헌신 second commitment 가 필요하다. 풍요로움의 마취로부터 벗어나는 최상의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무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를 자신의 인생 모토로 삼았던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재헌신, 제 2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풍요로움의 독으로부터 해독되어야 한다.
- c. **기회비용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세계 선교에 동참함.

(예화) 국제오엠 창설자요 전총재인 조지 버워 선교사 George Verwer 의 귀빈 대접 방법: 좋은 식당, 비싼 음식보다 친근한 교제에 우선권을 두고 가까운 맥도날드 같은 곳으로 가서 햄버거 하나씩 나눠들고는 간절히 상대방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조지 버워 선교사님을 통해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은 국제오엠의 좌우명인 “심플 라이프 (Simple Life)”의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3. 보내는 자들 (Senders)

“¹³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¹⁴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¹⁵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Rom. 10:13-15)

- a.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보내는 자 역할들** - 1) 특정한 선교사나 단체를 후원함; 도덕적 후원, 재정적, 병참지원, 기도(intercessor), 의사소통지원, 재입국 후원 (Welcomer, 환영자로서의 역할; 마 10:40-42)) 2) 선교훈련가, 동원가 mobilizer, 선교목사/상담가, 행정담당자, 연구자(선교학자).
- b. **보내는 자는 가는 자와 동등한 상급을 받음** (삼상 30:24, 다윗이 세운 전리품 동등 분배의 원칙, 마 10:40-42) - 천국에는 분명 차등상급이 있으며, 천국 상급 원리는 전후방 사역자 동일 칭찬(상급)의 원칙이다.
- c. **보내는 자들은 반문화적이다** (p.497) - Cross-Cultural cf Counter-Cultural; 측은지심, 검소, 기도, 재정 후원 그리고 진지하고, 깊고, 초연한 즐거움을 간직한 자들. 선교사가 타문화적 cross-cultural 이라면, 그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검소하게 절제된 생활로 일관하는 후원자는 타문화 생활과는 또 다른 고난과

주위사람, 자기 자신이 속한 문화로부터 질시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하는 반문화적 counter-cultural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문화적인 삶을 살며 주위로부터도 그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보내는 선교사야 말로 더 힘들고 어려운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다.

- d. **보내는 자들의 삶과 사역** (p.497 하단) - 사도 바울이 말씀한 “관제와 같이 드려짐”의 의미(빌 2:17, like a drink offering on the sacrifice and service) - 관제란 하나님께 번제(火祭)를 드릴 때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거의 다 타고 남은 것들을 최종적으로 태우기 위해 양질의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그 알콜성분으로 인해 제물이 마지막으로 활활 태워지도록 하는 제사의 순서를 뜻하는 말이다. 후원자, 동원자, 환영자들이 관제와 같이 자신을 부어 하나님의 선교에 드려질 때, 선교 현장과 선교사의 심중에서는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어 다시 불타오르고 헌신을 새롭게 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 **신실한 후원자는 선교사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 단순히 선교사를 붙잡히 여기거나 내 대리자로 생각 않고, 바로 내가 선교사!

- e. **협력 Partnership, Koinonia, Fellowship** (p.498) 곧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협력함. 복음을 위한 협력은 곧 하나님께 대한 협력이며 (하나님의 동역자; 고전 3:9)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는 언제나 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

4. 위대한 협력, 세계 기독교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들 (랄프 윈터, p.501)

*선교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죄이다! 교회가 아직 작은 규모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라는 이유로, 혹은 개인적으로는 나의 수입이 아직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계 선교를 뒤로 미루거나 마땅히 할 수있는 중보기도, 환영사역, 동원 사역 조차도 동참하지 않는 한국교회와 북미주한인교회들, 그리고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지하여 동참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교회적인 선교 동참이나 개개인 성도들의 동참을 막고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세계 선교를 강조하지도, 깨우쳐 주지도 않는 목회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한국에 파송되어 왔던 수 많은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을 후원한 수천 수만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 a. **선교 기관들과 그 다양한 역할들에 관심을 갖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곳에 자원봉사** (우편물 보내기 등) 혹은 물질적인 **협력으로 동참하라**. 선교훈련이나 단기선교 프로그램에 동참하라. 작은 action 도 엄청난 “**관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 공인된 선교 단체를 통해 특정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유와 효율성 - 이제는 선교도 개인 혹은 개교회적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인되고 전문성있는 선교단체를 통한 선교사 파송과 선교사역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아무런 선교지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다른 선교단체들의 기존 사역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같은 지역에 내 교회, 내 교단 이름으로 선교사를 무턱대고 파송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정책, 무전략적인 행위가 되기 쉽다.

이는 곧 중복투자, 재정과 인력의 소모,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당 선교지에 이미 앞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 혹은 선교 단체에 대해 방해하는 행위가 되거나 선교지 현지인들에게도 자칫 적전 분열의 오해를 심어줄 수도 있다. 간교한 현지인들은 자칫 각기 다른 선교 단체 소속의 선교사들 사이를 오가면서 혼란을 심어주거나 갈등을 부추기고 때로는 재정적인 손해까지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서구의 선교사들이 수십년 전에 겪은 시행착오들인데 그 원인이 바로 개인 개교회적인 무분별한 선교사 파송의 결과인 것이다.

- 선교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 (accountability) 문제를 생각할 때도 공신력 있고 감독과 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제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선교는 그러므로 반드시 지역교회와 전문성있는 선교단체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영적 군사작전이다.

b. **훈련원들과 협력하는 일**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선교훈련원, 신학대학에서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하고 (교회적으로 자원 봉사자들을 파견하는 방식이면 더 좋다.), 재정(장학금) 후원, 어려운 신학생들이나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 가족들을 위한 잉여식품 공급, 선교 훈련생(신학생)들을 교회나 가정으로 초청하여 환영하고 위로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효과가 있다.

c.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지역 교회들 간의 협력** -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선교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선교팀 공동 구성 - 선교지에서의 협력 사역 등. *국제오엠의 선교선 둘로스호와 로고스 2 호(Logos Hope)는 정박하는 항구마다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얻으며 전도된 이들에 대한 후속양육까지도 지역교회들에게 맡김으로써 그 사역 열매를 지역교회들과 공유한다.

* 전략적인 협력은 중복투자, 지나친 경쟁, 갈등 등을 피할 수 있고, 엄청난 선교 재정과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게 해 준다.

d. **선교 단체들간의 협력** - 각기 그 특성과 장점이 다른 단체들 간의 협력은 대단한 Synergy 효과를 가져온다. 예)KIM Mission 과 OM, OM+YWAM, OM Logos Hope 선교선+ Billy Graham Mission in SD, MV Doulos + Tony Campolo 호주 멜번 전도집회
* 선교 현지에서의 아름다운 협력은 현지인들과 현지인 교회에 좋은 인상과 신뢰감을 준다.

e. **어떤 특정 선교사 혹은 선교 단체와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협력하라!** KIM Mission 의 비전: MP 전세계 보급과 동일한 비전을 가진 MP 동창생들 간의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의 형성과 세계적인 가동이 성취될 때까지...

f. **환영자 (Welcomer)가 되라!** 선교사를 환영하는 환영사역 (Welcome Ministry)은 이제 매우 중요한 선교사역의 일환으로 자리잡았다. 예수님께서도 환영자, 영접자 (Welcomer)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 (마태 10:40-42 “⁴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⁴¹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요 ⁴²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g. **중보기도자 (Intercessor)가 되라!** 세계 선교를 위해, 한 사람의 선교사를 위해, 그리고 세계 각 선교지 (나라 민족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라. 세계 지도를 항상 보이는 곳에 두고 기도하라. [세계 기도 정보](패트릭 존스톤)를 활용하여 세계 270 여개 나라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선교 중보기도자 모임에 동참하라.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여 선교현장에서 응답된다. “¹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¹⁹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²⁰ 이를 위하여 내가 죄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6:18-20). 시편 2:8 말씀에서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 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John Knox) 목사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요약: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다섯가지 특징적인 사역들]

1. 복음을 들고 가는 자 (Goer)가 된다. 눅 16:15, 행 8:4
2. 보내는자 곧 선교 후원자 (Supporter)가 된다. 롬 10:13-15, 민 31:26
3. 선교 동원가 (Missionary Mobilizer). 사도 바울을 있게 한 바나바의 역할
4. 환영자 (Welcomer). 마 10:40-42
5. 중보기도자 (Intercessor). 시 2:8

[15 과의 요절 말씀]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보충 자료 1] (Supplemental Readings 1)

한국교회 초기 선교역사를 통해 배우는 선교전략
(History and Strategy of Korean Church Early Missions)

한국에 (좀 더 정확하게는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지금부터 약 120 여 년 전의 일이다. 120 년이란 짧은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쁨부어 축복하셨고 이 민족에게 놀라운 세계 선교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21 세기 복음의 마지막 추수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주신 지상대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위대한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면밀히 연구함으로써 그로부터 지혜와 전략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란 말처럼 우리는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역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수 많은 자료와 서적들을 참고하여 연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들어가 ‘한국교회 선교 역사’ 라고 검색해도 역시 엄청난 자료들을 다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이 미션 퍼스펙티브 세미나 핵심요약교재에는 주로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교재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1. 기독교의 한반도 전래

1. 경교(景敎):

431 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추방. 635 년 당(唐)나라에 (618-907) 전래되어 통일신라로 전래 ? (7 세기 경)

2. 천주교:

일본을 통한 전래: 임진왜란
중국을 통한 전래: 지봉유설 한역(漢譯), 서학(西學)서(西) 통한 천주교 학습
*1784 년 김대건신부가 들어옴

3. 개신교:

독일인 귀츨라프(할레 대학 출신)-1832 년 조선 입국, 서해안에서 주기도문 번역
영국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1866 년 조선 입국, 대동강변에서 순교
영국선교사 존 로스 -1863 년 만주로 파송받음,
1877 년 *Corean Primer* 발간
이수정 -1882 년 임오군란 일본 감
한미수호통상조약-1882 년: 앨런 선교사가 조선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알렌 (Horace N. Allen)-1884 년 조선 입국
1885 년 4/5- 언더우드, 아펜젤러 조선 입국
헤론(Heron) - 언더우드의 후임 의사. 순교 후 고종 임금이 하사한 외국인 묘지인 양화진 묘역에 최초 묻힘(서울 지하철 2 호선 합정역에서 내려 ‘외국인묘지’ 혹은 ‘외국인 교회’를 물어 방문하면 됨)

2.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

한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은 크게 두 경로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중국에서 중국어 성경을 토대로 성경이 번역되어 만주를 통해 들어온 경로였고, 두번째는 역시 중국어 성경을 일본에서 번역하여 들어온 것이었다.

- (1) **일본에서 번역된 이수정본:** 조선의 관리로 임오군란 이후 조선통신사 박영효 일행과 함께 일본에 외교관으로 갔다가 망명한 이수정이 미국성서공회 파송 선교사 Henry Loomis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번역:1884 년, 한문 성경에 이두(吏讀) 토를 단 4 복음서와 사도행전 번역함.
1885년에는 순 한글본 “신약마가복음서언해”가 인쇄 출간 됨 (이수정 판)
*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가 이 성경을 들고 인천항으로 입국함.
- (2) **중국에서 번역된 로스 성경:** 만주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로스 선교사를 만났던 서상륜, 이응찬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파송받은 존 로스(John Ross), 존 매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만주 선양(심양, 봉천) 성경을 번역 함(로스 성경)
1879년 -4 복음서, 사도행전 번역
1882년-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예수성교 요안나복음전서 쪽 복음서 발간
1887년-예수성교전서 번역 (신약성경 전서)
* 최초의 성경 밀수꾼 백홍준과 ‘노끈성경’ 일화

[조선일보 2011.2.10 일자 기사]

1911년 3월 6일 **미국** 선교사 윌리엄 레이널즈(W.D.Reynolds, 이눌서)와 한국인 이승두·김정삼 등이 번역한 '성경전서'가 출간됐다. 올해는 한국인이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입을 수 있게 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개신교계의 성경 출판·보급 전문기관인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는 '한글 성경 100년' 기념으로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성서공회 강당에서 '성경과 삶'을 주제로 좌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는다.

3월 중에는 '성경용어사전'과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대한 해설서를 출간하고, 4월에는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국어·문화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5월 5일에는 **영국** 에든버러에 있는 최초의 한글 성서 번역자 존 로스 선교사 성경의 일부 번역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19세기 후반 **중국** 선양(瀋陽)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출신 중국 선교사 존 로스는 현지에서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1882년 3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출간했다. 최초의 한글 번역인 이 성경에서 로스는 'God'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다. 1885년 2월에는 수신사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일본 도쿄**에 도착한 이수정이 '신약마가복음서언해'를 출판했다.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성경 번역이다. 한국 개척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수정이 번역한 이 한글 성서를 들고 1885년 4월 5일 인천에 입국했다. 이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한글성경번역자회'를 설립하고 '신약전서'를 출간·보급한 데 이어 구약성경 번역을 주도해 1911년 마침내 성서를 완역했다. 대한성서공회 김순권 이사장은 "한글 성경은 이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등 교회의 부흥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면서 "성경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생활실천운동도 함께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적을 기리는 묘비 제막식도 갖는다.



조선 성경 번역 위원: 左上 으로 부터: 문경호, 김명준, 정동명, W. D. Reynolds (이눌서), H.G. Underwood (원두우), J. S. Gale (기일), G. H. Jones (조원시) 선교사 (*참고자료 http://kcm.kr/dic_view.php?id=39704)

[한글성경 번역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핵심 인물 - 이눌서 선교사]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 2 세는 1892 년부터 1937 년까지 35 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였다. 버지니아의 노퍽 출신인 그는 부유하고 독실한 남장로교 집안에서 자랐고, 당시에 남부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각종 언어에 재능과 관심이 많았던 레이놀즈는 고전어 학자가 되기 위해 존스 홉킨스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목사-선교사가 되기 위해 유니언 신학교로 진학했으며, 남장로교의 보수적 전통주의를 배웠다. 남장로교를 개척한 “7 인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 온 레이놀즈는 호남지역의 남장로교 선교지를 개척했고, 평양신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신구약 성경의 한글 번역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서도 성경번역은 그의 언어적 재능과 학자적 자세가 가장 잘 발휘된 분야였다. 한국어 실력에서 건줄 사람이 없다는 평을 들었던 레이놀즈는 1895 년 한국에 온지 3 년 만에 조선상임성서 실행위원회로 산하 공인번역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이후 그는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신구약 성경의 번역과 개정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906 년에 발간된 한국교회 최초의 공인역 성경인 『신약전서』를 번역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언더우드와 게일 외에 레이놀즈였다. 1899 년부터 시작되어 1911 년에 출간된 『구약전서』는 사실상 레이놀즈의 개인역이나 마찬가지였다. 이후 레이놀즈는 피터즈, 이원모와 함께 『구약전서』의 개정을 주도하여 1937 년에 완료했다. 이런 점

에서 레이놀즈는 한국교회의 거대한 유산인 1938 년도 공인 성경전서인 『성경 개역』이 출간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었다.

[한글성경 번역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핵심 인물 - 피터스(피득) 선교사]

피터스는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정통 유대인이었다.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게 한 인물을 세우사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인도선교를 준비하던 언더우드를 한국선교로 방향을 돌리신 것이나 일본선교를 마음에 두던 아펜젤러를 한국으로 보내신 것은 많은 사례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 명은 바로 유대계 러시아인 피득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알렉산더 앨버트 피터스(Alexander Albert Pieters, 1871-1958)이다. 피터스는 유대인으로 러시아에서 태어나 1895년 일본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곧 바로 미국 성서공회 소속 권서인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조선 전국을 다니며 성경을 반포하던 그는 한국 주재 선교사들로부터 어학적인 재능을 인정받고 미국에 건너가 신학공부를 한 후 선교사로 다시 내한했다. 그 이후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정통 유대인으로 시편과 구약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 성경번역의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 이 모든 사실은 여느 선교사들과 다른 그만이 갖는 남다른 면들이다.

피득의 성장배경과 극적인 회심 지금까지 피득을 연구하는 이들은 회심 이전의 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의 본래 이름, 그의 출생지, 그의 가정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십 수년 전인 1994년,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신학교 도서관에서 발굴한 맥코믹신학교 출신 한국선교사들에 관한 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그의 고향이 우연히 발견되어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피터스는 1900년 1월부터 3년 동안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Robert Culver McCaughey가 1940년 B.D. 논문으로 쓴 "A Survey of the Literary Output of McCormick Alumni in Chosen"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맥코믹 신학교 출신 조선 선교사들의 간단한 전기적 기록과 그들이 남긴 저술과 논문들의 목록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피터스의 배경에 대해 아주 간단하지만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피터스는 1881(1871)년 12월 30일 러시아 Ecsterinoslav에서 유대계로 태어났다. 피터스는 본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세례를 받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피터스 목사의 성을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피터스로 개명한 것이다.” 피터스가 1881년 12월 30일 러시아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고향은 Ecsterinoslav며, 피터스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 받은 후 개명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에카테리노스라프는 1900년 당시 135,552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의 지방 수도로 오늘날 우크라이나(Ukraine)에 있다. 피터스는 남부 러시아 정통 유대인 상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유대교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짐나지움을 졸업했다. 짐나지움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터스가 일찍이 문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고향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히브리어 라틴어 희랍어 러시아 독일어 불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전어와 현대어에 정통한 것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유대가정에서 성장한 데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일찍이 인문교육을 통해 언어 훈련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이 고백한 대로 정통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피터스는 어릴 때부터 구약성경을 암송하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쌓았다.

그러던 그가 극적인 회심을 한 것은 1895년 4월 일본에서 선교사들의 주일예배에 참석하면서 서부터였다. 이것은 어려운 러시아 생활을 탈피하고 외국, 특히 미국에서 새로운 생을 꿈꾸며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 일본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것이다. 19세기 말 러시아는 정치 경제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피터스가 나가사키에 머물게 된 동기에 대해 클라라 루미스의 기록은 - “그 젊은이는 자신의 종족[유대인]에 대한 제약을 피해 수 년 전에

러시아의 자기 집을 떠나 철도 노동자로 시베리아를 횡단했으며 그런 후에는 증기선의 승무원으로 일본에 건너왔다. 그는 미국을 자신의 목적지로 설정했다.” 클라라 루미스 (Clara Loomis)의 아버지 헨리 루미스(Henry Loomis, 일본과 한국에 성경을 보급한 미국 성서공회 총무)가 피득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피득에 관한 책자까지 출간한 것을 고려할 때 루미스의 기록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루미스의 기록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시베리아로, 다시 나가사키로 미국행을 염두에 두고 입항한 것이다. 1895년 4월 7일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기선을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가 왜 개신교 주일예배를 참석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김중은 교수는 피더스가 “유대교 신앙을 가졌으나 만족치 못하고 개신교를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 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자신의 생애에 대한 진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잠시 종교적 혹은 영적 방향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확한 동기야 어쨌든 돌이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예배 참석을 계기로 기독교 진리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던 피더스는 자신이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어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선교사를 찾기 시작했다. 마침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나가사키에 활동하고 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 선교사 앨버투스 피더스(Albertus Pieters) 목사를 만나 그를 통해 기독교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 성령의 특별한 간섭에 의해 교리를 배우기 시작한지 불과 10일 만인 1895년 4월 19일 그는 알버투스 피더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자신의 이름을 피더스로 개명했다. 성경 속의 바울(사울)과 바나바(요셉)처럼 피더스도 자신의 옛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루미스는 피득의 회심에 대해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알려준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피더스가 나가사키에 머무는 동안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가사키에서 그는 우연히 그로 하여금 신약성경 공부를 착수하도록 해준 선교사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의 아버지의 성을 따라 개명했다.” - 클라라 루미스의 증언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은 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약관 23살의 한 러시아계 유대인의 갑작스러운 회심 자체가 일본 주재 선교사들 가운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마치 이수정의 회심 사건이 일본 주재 선교사들의 중요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말이다. 흥미롭게도 피득에 대한 소식을 들은 미국성서 공회 일본/조선 책임자인 헨리 루미스 목사는 과거 이수정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 회심한 젊은 유대계 러시아인을 찾아가 조선의 권서인으로 일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것은 피득이 세례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클라라 루미스는 이렇게 이 부분을 기술한다: "루미스가 한국 사역에 배치시킨 가장 능력 있는 권서인(勸書, colporteur)은 의심할 바 없이 알렉산더 피더스(Alexander A. Pieters)로 알려진 젊은 러시아계 유대인이다. 루미스는 이 젊은 유대인을 나가사키의 일본 주재 선교사 앨버투스 피더스(Albertus Pieters)의 집에서 1895년에 처음 만났다.... 아직 피더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불확실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한국에서 성경반포 사역을 착수할 것을 권하는 헨리 루미스를 만났다." 헨리 루미스와의 역사적 만남은 피득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세상의 출세를 위해 미국으로 가려던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파송 받은 것이다. 당시 조선으로 성경보급 사업을 확장하려는 미국성서공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피득은 너무도 적격자였다. [출처: 박용규, 소논문, "알렉산더 피더스(Alexander Albert Pieters, 1871-1958):성경번역자, 찬송가, 복음전도자(1895-1911)" 중에서]

3. 초기 한국선교의 전략적 특징

- (1) 한국인들의 자발적/ 능동적 요구에 따른 전례: 높은 수용성 (열심)
- (2)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옴: 말씀 위에 건강한 기초 형성

- (3) 피선교지(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의료/ 교육 등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편견 및 오해를 먼저 불식한 후 복음을 전파함
- (4) 건강한 교회 전통: 전도, 봉사, 교육에 평등한 참여 기회 부여와 구성원들의 열심

4. Comity Arrangement 우의적(연합적) 분할

한국에서 사역한 초기 서양 선교사들은 그 출신 배경(나라와 교단 교파)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밀한 교제와 사역에 있어서의 협력을 이루었다. 특히 이들은 조선 땅을 복음화 하기 위하여, 최초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지역들을 따라, 교단과 교파별로 한 지역씩 분할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협의하고 결정하였다. 이를 ‘우의적 분할’(Comity Arrangement)라고 한다. 이 우의적인 분할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각자 속한 교단과 교파에 따라 어떤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인적, 재정적 자원이 중복 투자되거나 선교사 간에 사역지가 겹침으로 인한 갈등이나 불편함을 피할 수 있었다.

우의적 (연합적) 분할의 예:

- 미 북장로교 -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지방 복음화 담당
- 미 남장로교 - 전라도 지방 담당
- 캐나다 장로교 - 함경도 지방
- 감리교 - 경기도와 인천, 충청도, 강원도, 관서지방
- 호주 장로교 - 경상남도와 부산 지방(오늘의 고신 교단)

5. 초기 한국교회의 주요 특징들

- (1) 사경회와 새벽기도의 전국 확산
- (2) 날연보(Day Offering, 1904)와 성미(헌신):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주로 한 달 가운데 며칠씩을 오로지 전도를 위해 헌신하며 드리는 ‘날연보’를 작성하고 정한 날에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나와 팀을 지어 이웃 마을로 전도를 다님.
- (3) 쌀교인(Rice Christian)에서 참교인(Born Again Christian)으로
- (4) 전도부인과 권서인 (내외법영향)
- (5) 교회의 자발적인 배가 (p.71 에 나오는 전형적인 배가운동이 일어남)
- (6) 디아스포라 및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림 - 선교의 완성된 열매의 모습
- (7) 헌신된 엘리트 출신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옴

6. 한국 최초의 목사들

한국에서 최초로 안수받은 목사는 감리교 목사인 김창식 목사이다. 그는 서양 선교사 집의 행랑아범 출신으로, 여러 선교사들로부터의 오랜 훈련과 복음을 위한 펍박, 그리고 교육을 거쳐 1901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로 안수받음. 특히 김창식 목사는 제임스 홀(Dr. James Hall, 최초의 평양 의료선교사, <조선회상>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셔우드 홀 박사의 부친) 선교사의 행랑아범-전도여행 보조자(조사)-그리고 개인제자 훈련을 받은 영향으로, 순행목회에 주력하여 영변, 수원, 해주 지역에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한편 장로교에서는 1907년 평양신학교에서 첫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목사로 임직시켰는데, 바로 7인의 장로교 최초 목사들이다 - 서경조, 이기풍, 길선주,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한승백 목사.

7. 초기 한국 기독교의 상황화 전략

한국 기독교가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윤리와 도덕을 제시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특히 수 천 년 동안 내려온 한민족의 온갖 구습과 폐습들을 기독교는 담대히 추방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축첩제도, 도박과 술, 담배, 그리고 관혼상례에 있어서 기독교는 조선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아름다우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모범들을 제시하였다.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가난하고 낮은 데 처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문화는 그야말로 호기심과 흥미와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 **주초(술 담배) 문제:**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이 교인들 사이에 그대로 잔존해 있었다. 신자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이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도박은 좀 더 일찍 교회에서 사라졌으나, 술과 담배는 그 습관적인 특성상 오래 지속되었다. 초기 한국교회의 노회 소집 공문에, ‘타바고는 주초 교회에서 준비하오니 곱방대만 지니고 오시면 됩니다’라는 광고가 나갈 정도로,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옛 양반들이 점잖은 자세로 피우던 그 곱방대 흡연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선교사들의 권면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스스로 깨달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생각이 한국교회로부터 모든 깨끗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습관들을 몰아내게 되었다.
- **축첩제도의 개선:** 성경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신자들이 차츰 축첩제도가 잘못된 폐습임을 인정하고 개선, 폐지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부인이 둘 이상인 사람들(지도자들 포함)이 있었으나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특히 평양대부흥운동을 전후하여 급속도로 이 폐습은 대대적인 회개 운동과 함께 급속도로 사라졌다.
- **관혼상례 문화의 개선:** 전통적인 관혼상례 역시 지나친 허례허식과 우상 숭배적인 요소, 그리고 비인격적인 요소들이 많았다. 기독교가 제시한 문화는 서양문화 그대로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정서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 의식과 의무 부여에 있어서 전혀 새롭고 신선한 관혼상례로 대체되었다. 조상 제사제도 역시 추도예배 등으로 혁신 대체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개인과 집안의 모든 관혼상례 의식과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독교화된 사람들은 해방감과 함께 즐거움과 자유함, 그리고 큰 일이 닥칠 때마다 교회와 이웃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 **한국교회의 아름답고 건전한 문화전통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형성되어 온 과정을 보면** 참으로 성결의 영 성령님께서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하여 초창기 지도자들에게 지혜롭고 일치된 마음과 과감한 결단의 모범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성경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음으로써 오는 결단이요 민족적인 변화

였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비신자들의 시선은 부러움과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의 인품과 생활을 보고 자신도 변화하고자 교회로 나아왔고 전도에 응했다.

-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경을 토대로 한 비판적, 적극적 상황화 전략은 오늘날 세계 선교현장 어디에서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이다.

8. 네비우스 선교정책(1890년 John Nevius)

19세기 세계선교의 방향을 바꾼 획기적인 이론으로 선교지 성도들과 교회가 스스로 전도(선교)하고 스스로 재정독립을 추구하며, 선교사가 아닌 자체 지도자들에 의해 치리하더록 하는 정책.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네비우스 선교사가 조선의 서양 선교사들 연합 수련회에 강사로 와서 소개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전략으로, 자급(Self-support: 성도들 자체 헌금과 성미 등으로 재정적,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 자전(Self-propagation: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서 전도하여 부흥을 경험함), 자치(Self-governmet: 교회가 스스로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그 지도자[혹은 당회]의 인도 하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치리를 받음) 3대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 네비우스 선교정책 아이디어의 근원은 헨리 벤이다 - Henry Ben 은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이며, 1860년 광범위한 연구와 자료분석을 통한 자립교회, 자급교회, 자립선교 원칙을 세계선교정책에 채택할 것을 권고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네비우스 선교사는 자신이 이 정책을 중국에서 적용해 본 결과, 중국에서는 잘 맞지 않지만 조선 교회와 조선 사람들에게는 맞을 것이라며 선교사들에게 소개하였고, 조선의 선교사들이 이 정책을 적극 펼쳐 사역한 결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네비우스 정책의 원리

- 선교사(교회)의 우선순위는 복음전도이다.
- 모든 권위의 근거는 성경이다.
- 자전(스스로 전도하게 하자)
- 자치(스스로 다스리게 하자)
- 자립(재정에 있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 조직적인 성경연구(네비우스 7단계 성경연구,
- 배우면서 동시에 낮은 단계의 사람을 가르치게 함
- 엄격한 치리 - 교회의 권위를 높임
- 성도간 및 지역교회 간의 협력
- 선교사의 무간섭(언제나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도와 줌)
- 극빈자를 위한 경제원조 (사과나무 도입, 재배 권장)

구체적인 네비우스 방법들 (열 가지)

1. 상류계급보다 근로계급을 상대로 전도
2. 부녀자들에게 전도, 기독교 소녀들에게 교육
3. 초등수준의 기독교학교 경영. 젊은이를 키워라
4. 교역자도 이런 교육 통해 배출될 것을 주목하라

5. 잘 번역된 성서를 현지인에게 보급하라
6. 모든 종교서적은 순 한국어로 쓰여지도록
7. 자급하는 교회와 개인 (사과나무 보급)
8. 동족의 전도에 의해서 부흥되도록 전도 교육에 진력해야 한다
9. 교제가 잦은 의료 선교사들이 가르침과 모범 보임
10. 선교사에게 치료받은 사람은 고향을 방문, 그곳에서 선교사처럼 전도하라.

9.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 본 문제점과 교훈들

- (1) 문화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함: 서구 문명을 복음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척도로 한국의 상황을 판단함으로 현실적인 문제의 배경을 제대로 파악 못한 실수들이 초기에 있었다.
- (2) 우월감: 각종 선교사역에 한국인들을 지도자로 기용하는데 주저함 - 경제권, 행사 진행권 등을 불허용(단지 봉사자로 참여케 함).
- (3) 지나친 부 획득: 서양식 주택, 서양식 별장을 금강산과 동해안 등지에 건립하는 등 서양의 생활양식을 대부분 그대로 들여오으로써 조선사람들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줌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선교사들의 안식이 절대 필요하였음). 그 결과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이 희석되고, 단지 부자가 되기위한 믿음이란 인식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으로 자리 잡음 - 이러한 인식은 후에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으로 연결.
- (4) 배울 점: 선교사는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 필요(피선교국의 모든 것). 우월한 입장에서 미개한 토착민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이나 태도는 금물. 현지인을 가능하면 속히 지도자로 세워라. 자신을 현지인과 동일화 하라.

[보충 자료 2] (Supplemental Readings 2)

21 세기 세계 선교의 21 가지 특징들

(* *Missions in the 3rd Millennium: 21 Key Trends for the 21st Century*)

CT (Christianity Today) 지의 편집위원인 Stan Guthrie 는 21 세기에 나타날 세계 선교의 특징들을 21 가지로 정리하여 위의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를 요약하며 미션 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s)의 관점에서 해설을 덧붙인다. - 김경환 선교사 (Barnabas Kyunghwan Kim, D. Min in Missions, President of KIM Mission)

1.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형성 (New Paradigms for Churches and Agencies)

A. 21 세기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협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된다.

B. 지역 교회가 갖추어야 할 9 가지 요소: 1. 교회의 초점을 바깥으로 돌림. 2. 예산의 30%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 3. 선교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4. 선교 이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용. 5.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자발적인 선교사가 나옴. 6.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7. 담임 목사가 선교를 알고 선교로 이끄는 목회를 함. 8. 선교지의 다른 교회와 협력함. 9. 지역사회 전도를 위한 강력한 프로그램 운용.

C. 선교단체들이 갖추어야 할 패러다임: 선교 단체는 전문성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지역교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교회 들은 점차 선교단체를 통한 선교사 훈련, 파송 및 감독과 관리를 선호한다.

D. 교회와 선교 단체는 상호 비판 (mutual criticism)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 (mutual respect) 하며 거룩한 공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2. 선교지 현지 사역자 (자국민)들을 발굴 및 후원하는 추세 (Supporting National Workers)

많은 경우 선교사들은 현지인 사역자들을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조력자로만 생각하고 취급한다. 하지만 이제는 선교 현지인 사역자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발굴하여 자기 종족과 나라를 위해 사역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서양 선교사 한 가정의 매월 \$50,000-\$75,000 불을 필요로 하는 반면 현지인 자국민 사역자 (native missionaries)는 매월 \$50-120 불 밖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지인 사역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자칫 그 현지인으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서양교회만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게으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단점).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 선정, 자질을 먼저 갖추어 주는 것과 지속적이고 지혜로운 감독 (accountability) 이다. Dr. Robertson McQuilkin: “*Stop Sending Money! Breaking the Cycle of Missions Dependency.*” 자칫 선의의 재정후원도 현지인 사역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 Checkbook Evangelism (돈만 보내는 선교후원) 보다는 직접 가서 현지인과 상황을 익히고, 현지인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적절하게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때로는 돈 자체보다도 기술, 훈련방법, 조직 행정, 인사관리 등등 다양한 앞선 경험과 자산을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다.

3. 선교사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불안/ 어려움들 (Missionary “Malaise”)

재정 (돈) 문제 많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해외 선교 사역 가운데 그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건강이나 언어습득, 문화충격 혹은 고독함 또는 핍박이나 박해 같은 것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다. 대부분 선교사들은 건강과 자녀교육 그리고 노후대책과 안식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4. 선교사 케어 문제의 대두 (Missionary Care)

현대 선교학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역시 선교사 케어(보살핌)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선교사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필요와 정신적인 상담, 특히 선교지에서 당하는 핍박, 질병, 부부문제, 자녀문제, 탈진 (burnout)과 고독감, 정신적 질환 등 극한 상황에 처한 선교사와 그 가족을 어떻게 돌보아주고 회복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많은 선교사들, 특히 그 가족들이 더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father of modern missions)로 존경 받는 윌리엄 캐리의 부인 Dorothea 조차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선교지에 가기를 꺼려했던 선교사의 부인과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선교지에서 직접 겪게 되는 현지인들과 그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영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고통은 오직 당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담은 보고서만 요구하고 심지어 ‘천국에서 다시 보자’는 식으로 순교까지 요구한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파송 이후 선교지에서 잘 생활하고 사역하도록 돕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요구되는 것이다.

5. 신학적 격변 (Theological Drift)

세계 신학의 흐름은 근본주의 (보수)와 급진주의 (진보)로 나뉘어졌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온통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가운데 세계 개신교회는 복음주의 (Evangelical), 오순절 계통 (Pentecostal), 그리고 은사주의 (Charismatic) 등 3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류에 속한 교회와 신자들끼리는 이제 옛날처럼 날카로운 잣대로 서로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것은 무척 고무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온갖 유사 기독교 신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소위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뉴 에이지 운동 (New Age Movement) 들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종교다원주의 (Pluralism)가 여러 모양으로 대두되고 있다. 종말론과 내세관에 있어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지옥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보편구원설 (Universalism) 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잘못된 신학으로 무장하면 평생 선교지에서 고생해서 얻은 영혼들과 함께 자신조차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과 가운데 “그리스도의 유일성” 참조).

6. 여성 선교사들 (Women in Missions)

선교 인력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2분의 1 이상 이요 이젠 3분의 2 에도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마디로 여성들에 의해 확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1517년 종교개혁으로 단혔던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 기회는 미국 남북전쟁(1861~ 1865) 이후 이른바 “제 2의 선교시대” 곧 여성과 평신도가 세계 선교에 주류를 이루는 시대로 다시 활짝 열렸다. 1,2 차 세계 대전으로 더 많은 여성들에 의해 선교는 주도되기 시작하여, 수 많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여성 선교사에 의해 복음을

접하였고 수 많은 교회가 여성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수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스러져갔다. 그리고 여성들의 역할은 세계 선교 현장 곳곳에서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성 사역자들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활용해야 하며 신분과 (리더쉽 기회 부여 등) 직책과 사역의 역할에서 결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8 과 “선교에 참여한 여성들 Women in Mission” 참고).

7. 10/40 창 (The “10/40 Window”) – 복음에 대한 강력한 저항지대 (Resistant Belt)

AD 2000 and Beyond Movement 를 주도하는 루이스 & 도리스 부쉬 부부가 십 수 년 전에 이 개념을 이론화한 이후,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21 세기 세계 선교의 관심은 10/40 창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 등 54 개국,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운 32 억 이상의 인구가 포함되는 이 지역은 모슬렘, 힌두, 불교 등 기독교에 저항하는 주요 종교들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82%가 집중되어 있으나 선교사들은 전체의 겨우 3% 가 이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지역에 보내지는 선교비는 세계 크리스천 가정들의 전체 수입 가운데 겨우 0.01 %이다 (*9 과 그림들 참고).

8. 2000 년 전도계획 (Year 2000 Evangelism Plans)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개인에게 복음을!”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이라는 모토로 무장한 이 세계복음화 정신과 열정은 비록 2000 년 12 월 31 일 까지도 완전 성취되지는 못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 복음화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지금도 세계에는 인구 1 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1700 여 개의 “Unreached Peoples”(미접촉 종족)이 있고 그들 대부분이 2-5% 미만의 복음주의 혹은 광의의 기독교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더욱 급속한 성경번역과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영화 (Jesus Movie, CCC 제작 보급)는 지금까지 1500 여 언어로 번역되어 50 억 이상의 인구가 이 영화를 보았다 (*주 교재 9 과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업데이트 된 통계 수치를 참고하라).

9.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의 중요성 (Prayer as Warfare)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의명분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다. 중보기도란 바로 나와 내 자녀와 가정과 내 나라만 위해 기도하던 태도와 영역에서 벗어나 온 세계를 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한 지역을 위해 여러 개인과 교회가 교파와 신학적 차이를 초월하고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지역의 영적 수위(spiritual water-level)을 높여주시고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신다. 기도산책 (prayer walk), 기도여행 (prayer tourism, prayer drive), 기도합주회 (prayer concert)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있다.

10. 단기 선교의 폭발적 증가 (The Short-Term Missions Explosion)

21 세기는 단기선교가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고 진행될 것이다. 50 여 년 전 (2 차 대전과 한국전쟁 과병 이후) 국제오엠 선교회 (OM)와 예수전도단 (YWAM)등에 의해 시작되고 베이비 부머들에 의해 활성화된 이 획기적인 선교전략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세계 선교에

전후방이란 개념은 없다. 선교를 모르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으며,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예외 없이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익숙해져야 한다. 단기선교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인해 선교현장이 교회 속으로, 교회가 선교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장-단기 선교사들 간의 인간적인 긴장관계와 갈등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1. 협력 사역의 중요성 (Partnership)

이제는 개인 중심, 개 교회 중심, 혹은 어느 한 선교단체가 어떤 지역이나 사역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synergic effect) 를 극대화해야 한다. 서로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와 교회, 선교 단체와 단체,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협력은 선교지에서는 물론 그 구성원들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격려와 도전이 된다. 이를 위해 지도자들 간의 협력이 우선이다 (* 15 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협력” 참조).

12. 상황화 문제 (Contextualization)

복음과 기독교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현지 문화에 대한 비판과 파괴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유지해 주면서 그 문화를 복음과 성경적으로 비판, 수용, 발전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상황화는 자칫 혼합주의로 흐를 수 있으므로 성경적인 지식과 관점을 현지인들에게 먼저 가르친 후에 그들 스스로가 상황화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10 과의 문화와 상황화에 관한 글들 참조).

13. “과정으로서의 선교” 대 “프로젝트로서의 선교” (“Missions as Process” vs. “Missions as Project”)

<과정으로서의 선교>란, 전통적인 선교단체, 교회 그리고 훈련기관들에 의해 지속되어 온 선교활동들을 일컫는 것이다. 이들의 초점은 지상대명이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집단 (among every people group)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이다. 한편 <프로젝트로서의 선교>란, 새로운 선교동원 단체들과 교회들 그리고 개인 사역자들에 의한 선교 개념인데, 그들이 초점은 우선 미전도(미접촉) 종족과 복음에 최소 접촉된 종족 그룹들에게 맞춰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선교는 후자 중심으로, 세부적이며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14. 자비량 선교: 선교로서의 사업 (Tentmaking: Business As Mission)

세부적이고 전문적이며 안정적인 선교 전략의 구체적인 모델이 바로 자비량 선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 선교단체들이 창의적인 접근지역 (핍박이 심해 지혜로운 방식과 모양으로 들어가서 사역해야 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주로 이 방식을 적용하는데, 특히 모슬렘과 힌두, 사회주의국가에 적합하다. 갈수록 자비량 선교사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권할 만하고 바람직한 경향이다.

15. 총체적 선교 (Holism: Physical and Spiritual Ministry)

Mission Perspectives 주 교재 요약 해설 집 2 과 마지막 부분에 잠시 언급한 “복음의 양손” (Both Hands of the Gospel) 개념이 바로 총체적 선교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다. 21 세기 선교는 언제나 복음과 함께 그들의 필요에도 귀 기울이며 부담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복음전파와 섬김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복음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복음과 지역사회 개발: 동일시하지도 말고 나누지도 말라!” – 로잔 언약 (*11-12 과 내용 참조).

16. 기독교의 세계화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ity)

복음이 세계에 확산되고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독교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진정한 거듭남과 변화를 도외시킨 단순한 기독교화 내지는 기독교 확산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수많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그 결과 기독교인이 80% 이상이면서도 종족간에 처참한 전쟁과 살육이 이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의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종족 싸움 같은 어이없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 카톨릭의 선교 역시 양적인 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오늘날 대부분의 카톨릭 국가들처럼 명목뿐인 신앙, 세속화되고 화석화된 종교로 전락했다.

17. 은사주의의 부흥 (The Charismatic Boom: 100 년 만에 6 억 신자로 성장)

현재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은사주의와 오순절 계통 교회들이다. 이들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도간의 교제와 교회 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선교에 총력을 모은다.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남미 대륙으로부터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역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대부분 이 은사주의 운동의 결과들이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유럽과 대양 주에서도 이 오순절과 은사주의로 인해 죽었던 교회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있다. 한편 신학적인 공론과 비판을 일삼던 보수주의와 근본주의 교회들은 미주와 대양주 그리고 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통해 급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세에 그 신실하고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을 믿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은사주의가 너무 영적 체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18. 국제 선교 단체들의 성숙 (The Maturing of International Missionary Movements)

애초에 세계 선교를 주도한 것은 선교단체들이라기보다는 교단 본부와 선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전에는 선교 현지에서도 신학과 어느 교단 교파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학적인 이슈와 지식, 세례 여부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능력이 강조되는 “제자화” (discipleship)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조직의 힘과 권위주의로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개개인을 제자화 시키는 역할은 선교단체들이 더 잘 해 왔고 그들에 의해 형성된 교회와 공동체는 성숙하고,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오래 지속된다. 지역 교회와 교단 파송 선교사들도 변해야 한다.

19. 세계화된 문화 (Global Culture)

이제 더 이상 국경이나 민족간의 경계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고로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라고 자랑하면 오늘날 세계의 흐름 속에, 특히 세계 선교 운동에 동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교와 문화인류학에서는 “민족우월주의”

(Ethnocentrism) 이라고 경계하며 우리가 만나는 세계 속의 사람들이 우리를 폐쇄적이고 이상한 종족 집단으로 쳐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 복음도 그들이 존중 되고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귀 기울여지고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모든 문화가 다 옳은 것은 아니며 종종 복음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 타 종교들의 저항 (Religious Reactionaries)

21 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상이나 이념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사상과 이념 간의 냉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종교 간의 극심한 대결과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독교 진리가 유일성과 절대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인상과 도전을 타종교인들에게 주며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는 더더욱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고 수 많은 순교자가 속출할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그만큼 더 많은 희생을 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더욱 지혜로운 접근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종교에 대해 양보 혹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들을 적대하는 세력(종교)들을 향해 어떻게 상대해야 하며, 어디까지 인내, 혹은 투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사랑으로”만 외치다가는 머지않아 우리 세대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21 세기 안에, 계시록에 기록된 최후의 환난과 같은 심각한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회교신자(무슬림)들의 주요 국가 이민 현황** - 현재 유럽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종교적 이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민을 오고 있는 무슬림(이슬람교도)의 수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2001 년도 모슬렘 비율은 프랑스 (5 백 9 십 2 만명; 인구의 10%), 독일(300 만, 3.7%), 영국(120 만, 2%), 네덜란드 (845,000 명, 5.4%), 덴마크 (163,000 명, 3%) 등이며 유럽 전체로는 약 5 천만 명이 된다. 미국의 무슬림 수는 약 800 만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이다. 전 세계 인구 65 억 명 중 기독교인이 20 억인 한편, 모슬렘은 15 억 이상을 차지한다. 이슬람교는 엄청난 자연 성장과 40 만 이슬람 선교사들을 앞세운 공격적인 전파로 기독교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들의 선교전략은, 중동 산유부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대규모 무슬림 선교재단을 통해 선교기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그들이 성전(holy war, jihad)라 주장하는 전쟁지역으로 파송하여 민병대 혹은 자살 테러로 희생하도록 하며, 선교비로 유학생들을 보내기도 할 뿐아니라 세계 각국 대학에서 유학생들을 선발하여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도 한다.

21. 박해와 종교적 자유 (Persecution and Religious Liberty)

중국, 북한, 인도, 수단과 이란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에서 매년 평균 16 만 5 천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세계적인 언론들은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묵인한다. 이러한 세상 언론들의 미온적인 반응은 참으로 영적이고 신비한 현상이다. 특히 모슬렘과 힌두, 그리고 불교 국가들과 중국에서 신앙 생활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에 노출되어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핍박과 박해 아래서 복음은 더욱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위로 방문하고, 여러 모양으로 지원해야 한다 (* 12 과 “세계 필요 현황” 참조).

22. What's the Next?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계 선교를 바라보라. 세계 복음화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복음화가 끝날 것이다”와 같은 단순한 구호나 어떤 신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 개개인과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선교단체들과 지도자들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스스로 변화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분포만 보아도 진정한 복음화가 아직까지 얼마나 요원한 일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최소한 50% 이상의 선교사역자들이 현재의 사역지에서 선교사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그 없는 곳에 새로운 선교사를 그만큼 보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건설적인 선교사 재배치(redeployment)를 포함해서 중복투자,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교회, 단체들간의 갈등, 돈을 앞세운 무작위적인 투자와 그로 인한 선교지 사람들과 교회의 타락, 그리고 소모적인 경쟁 문제,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사역에 치중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는 자연 재해, 정치, 사회적 격변, 도덕적 가치관의 추락, 그리고 종교적 진리체계의 혼란 등이 교회와 선교 단체들로 하여금 더 긴밀한 협력과 총체적인 사역,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2022년 봄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 선교의 흐름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세계 선교의 가장 두드러지는 새로운 트렌드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한 선교이다. 최첨단 휴대폰 (Cellphone) 기기와 5G 서비스를 통한 youtube.com 이나 facebook.com, 그리고 twitter.com 등을 통한 유비쿼터스적인 의사소통 및 메시지 전달방식은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던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있다. KIMMission 역시 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퍼스펙티브스 -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전과목을 88회 유튜브 영상 (한국어) 강의로 제작하여 업로드 하였고,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선교동역자들과 관심자들이 시청하며 공부하고 있다. www.KIMMission.org 를 참고하라.

[보충 자료 3] (Supplemental Readings 3)

세계 선교 개관 (World Mission Survey)

지금 유럽은 기독교의 영향에서 떠났는가? (Is This 'Post-Christian Europe'?)

유럽의 기독교계는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선교운동의 선두에 서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자신이 가진 신앙을 전해 주긴했지만 막상 자신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수만명의 유럽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 태평양 군도의 광활한 지역들에 복음의 불을 밝혔다. 하지만 70년간 유럽 심장부와 소련에 있던 기독교계의 불꽃은 풍전등화처럼 깜박이다가 점차 희미해지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마치 방사성 원소와 같은 강력한 세속주의로 인해 붕괴되었다.

하지만 유럽에서 기독교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다. 유럽에서의 변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명목적인 기독교는 사라지고, 마치 고목이 쓰러진 자리에 새순들이 돋아나듯이 아직은 연약하지만 진정한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여러 국가들(독일, 스웨덴 등)에서 국교로 인정받아 오던 특정교단들(성공회와 Luther 교)이 국교제도의 폐지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명목적인 기독교인 양상과 정부의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표면적인 기독교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명목상의 크리스천과 단순히 직업으로 성직에 종사하던 샅꾼들이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반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주의 성경공부, 셀교회(Cell-based church) 운동, 연합기도 운동,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들의 부흥 등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유럽과 구 소련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부 유럽과 북유럽에서 잃은 분량을 동유럽과 구 소련지역에서 되찾는 현상이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도 철의 장막 뒤에는 사실상 서구보다 더 많은 독실한 복음주의 신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이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부터 수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데올로기와 싸우며 온갖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다. 구소련이 무너진 후 이러한 에너지들이 동유럽 구소련 지역의 엄청난게 다양한 인종들과 러시아 연방 안에 있는 수십 개 공화국들을 향해 뻗어 나갔다. 한국인 디아스포라들 역시 여러 유럽 제국으로 흩어져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 백명의 선교사들이 서유럽은 물론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에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전에는 서부 유럽과 북유럽으로부터 파송받아 나온 선교사들 대부분이 국교회에 속한 이들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이 복음주의 독립교회들이나 오순절과 은사주의 교회 출신들로 대체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동유럽과 구소련 (유라시아) 지역들로부터도 제 3의 선교 역량이 분출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시종일관 주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법칙이기 때문이다. 축복을 받고서도 그 민족이(나라가)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체없이 다른 민족에게로 횃불을 옮기신다. 서유럽과 북유럽의 기존교회 들이

세속주의와 무사안일에 빠져 도태된 반면 새로운 복음주의 교회들과 동유럽-유라시아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성숙에 쓰임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직까지 더 진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는 무슬림들에 대한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국제오엠선교회를 비롯한 많은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이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는 무슬림 이주자들에 대한 복음 전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미미한 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장점은, 무슬림 국가들에는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다양한 기독교 선교활동을 서부 유럽국가들에서는 마음껏 활용하면서 자유로이 무슬림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부 유럽국가들은 오늘날 기독교 진리와 모슬렘이 대대적으로 접전을 벌이는 영적 전투장이 되었다.

남미 - 선교의 도전을 머뭇거리지 않고 받아들임

Latin America - No Longer Slow to Accept the Challenge of Missios

수세기 동안 천주교의 비성경적 혼합주의에 의해 복음이 왜곡되고 가리워졌던 남미 대륙에 이제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교회 성장과 최대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3,000 개 이상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 과테말라의 한 거리에는 사방 5Km 이내에 5 천명 이상 모이는 교회 4 개가 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는 2 천명 이상의 교회가 10 개 이상 있고 세계 최대의 교회도 그곳에 있다.

성령님께서 영광 중에 주도하시는 복음주의 운동은 강하고 용맹스러우며, 여러 곳에서 일반적인 인구 성장률보다 두 세 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 세기 초만해도 라틴 아메리카에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성경을 읽는 교회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1940 년대에 이르러 오순절 운동이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흥하기까지 진정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한 세대 후, 1970 년대이후부터 신 오순절 운동(은사주의 운동)이 융성하여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중상층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랄프 윈터 박사가 과테말라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떠날 때인 1967 년 과테말라 인구 중 5%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오늘날은 35%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제는 남미 전체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1 억명 이상에 이른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저명한 부흥사요 선교지도자인 루이스 부쉬 (Luis Bush)는, “남미는 더 이상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입니다”라고 단언한다.

[보충 자료 4] (Supplemental Readings 4)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급을 노래한 복음 송 가사 소개]

감사합니다! (* youtube.com 에서 “땡큐 송 선교”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 어느날 꿈 속에서 천국에 올라가니 당신도 거기 계셨지요.
황금빛 천국길과 수정 같은 바닷가를 우리 함께 거닐었어요.
천군천사 음악소리 듣고 있을 때, 누군가 등뒤에서 당신 이름을 불렀지요.
돌아다보니 그 젊은 청년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왔지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잠깐만요. 제 나이 여덟 살, 주일학교 학생일 때, 선생님이 바로 저를 가르치셨고
주일마다 선생님은 성경공부 시작 전 우릴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죠. 어느 주일인가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예수님을 내 맘 속에 주님으로 모셨답니다.”

합창 후렴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저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께 인도하신 선생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때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앞에 와서 하는 말
“그 때를 기억하세요? 언젠가 선교사 한 분이 당신 교회에 왔을 때
그 선교사님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 흘리시던 일을.
그 시간 당신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선교사님께 드렸지요.
주님이 그 헌금을 통해 제가 오늘 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셨답니다.”

합창 후렴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저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께 인도하신 선생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다가오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지요.
그 사람들 모두가 당신이 베푼 사랑으로 인해 주님께로 인도된 이들,
당신이 주님께 드린 그 작은 정성이 맺은 열매들이었지요.
세상에서는 몰랐으나 지금 천국에서는 드러나고 나타나는군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도 감격의 눈물은 끊임 없이 없지요.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 하나님 보좌앞에 세우실 때 하시는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둘러선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의 상급, 너의
면류관이란다!”

합창 후렴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저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께 인도하신 선생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당신이 드린 모든 것으로 인해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사 번역: 김경환)

[영문 가사]

Thank You!

I dreamed I went to heaven, and you were there with me.
We walked upon the streets of gold, beside the crystal sea.
We heard the angels singing then someone called your name.
You turned and saw this young man and he was smiling as he came.
And he said "Friend, you may not know me now"
And then he said "But wait"
"You used to teach my Sunday school when I was only eight.
And every week you would say a prayer, before the class would start.
And one day when you said that prayer, I asked Jesus in my heart."

Chorus: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a life that was change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Then another man stood before you and said,
"Remember the time, a missionary came to your church, his pictures made you cry? You
didn't have much money, but you gave it anyway. Jesus took the
gift you gave and that's why I'm here today."

Chorus: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a life that was change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One by one they came, far as the eye could see.
Each life somehow touched by your generosity.
Little things that you had done sacrifices made
Unnoticed on the earth in heaven now proclaimed.
And I know up in heaven you're not supposed to cry
But I am almost sure there are tears in your eyes
As Jesus took your hand and you stood before the Lord
He said, "My child, look around you for great is your reward."

Chorus: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a life that was changed.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I am so glad you gave.
I am so glad you gave.**

[보충 자료 5] (Supplemental Note)

Perspectives – Simplified Lesson English Note (Example)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Be a Channel of Blessing for the Peoples of the World

Dr. Jungyong Kim, Ph. D

*본 세미나를 영어로 강의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김 미션 파송 전문인 선교사이신 김정용 박사님/장로님/서울대-카이스트 박사/현 에티오피아 국립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STU) in Adama, Ethiopia 교수님의 강의교안을 실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Preface

God created the cosmos...created the earth...peoples...languages and cultures. Despite the rebellion and consequent fall of mankind, God is on a global mission to restore people, cultures, and even our created world.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is a four-part overview of this great redemption plan as seen through four different lenses: Biblical, Historical, Cultural, and Strategic perspectives*.

As we quickly survey these four lenses, we will better understand the heart and mind of God as He works His purpose out in our world. And as we see His eternal purpose, we can get in step with Him, His word, His world, His people, and His particular role He would have for you and me. To do this would bring noble fulfillment to you and more importantly bring glory to God. Anything less is ignoble and degrading the majesty of God.

Barnabas Kim, D.Min. in Missions, BCC, M.Div, B.A.
President,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We would like to give credit for these four lenses to the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class that is sponsored by the US Center for World Mission. The ethos of this class has influenced "Blessing the Nations". (www.perspectives.org)

I. Biblical Perspective

World Population Clock: <http://www.census.gov/popclock/>

World Population: 7,343,282,678

U.S. Population: 324,197,665 (on 9 August 2016)

Top 10 Most Populous Countries

1. China 1,373,541,278
2. India 1,266,883,598
3. United States 323,995,528
4. Indonesia 258,316,051
5. Brazil 205,823,665
6. Pakistan 201,995,540
7. Nigeria 186,053,386
8. Bangladesh 171,696,855
9. Russia 142,355,415
10. Japan 126,702,133

From www.joshuaproject.net (2012)

Global Statistics

	Peoples-by-Country	Individuals
All People Groups	16,650	7.05 billion
Unreached People Groups	7,183	2.90 billion
% Unreached Peoples	43.1 %	41.2 %

Religion Facts

- 3,494 groups are primarily Muslim, totaling nearly 1,476,000,000 individuals.
 - 2,660 groups are primarily Hindu, totaling about 987,000,000 individuals.
 - 584 groups are primarily Buddhist, totaling nearly 619,000,000 individuals.
 - Of the world's 16,650 ethnic people groups by country, 6,810 (41%) are primarily Christian, totaling over 2,271,000,000, or nearly one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 Of 237 total countries, 163 (69%) are Christian-majority countries.
- Total population for these countries is 2,517,000,000.

God Reveals His Heart to Change His World

#1 PROLOGUE of the Bible (Genesis 1-11)

- Timeline from "Panorama of the Bible", www.bild.fellowshipnwa.org

In the beginning...

Genesis 1-11	Genesis 12-50
Universal in scope	Birth of one nation
Much time passes by	Little time passes by
From Adam and Eve to 70 nations different languages begin; distinctive peoples begin to form	From Abraham and Sarah to 70 descendants

Events Prominent

People Prominent

#2 PATRIARCHS (Genesis 12-50)

“The Bible actually begins with the theme of missions in the book of Genesis and maintains that driving passion throughout the entire Old Testament and on into the New Testament. If an Old Testament “Great Commission” must be identified, then it will be Genesis 12:3 –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braham].” This is the earliest statement of the fact that it will be God’s purpose and plan to see that the message of his grace and blessing comes to every person on the planet earth.”

- Walter C. Kaiser,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 p. 7

Genesis 12:1-3 (God Makes Astounding Promises to Abraham and Sarah!)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2 And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3.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him who dishonor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Translation by Walt Kaiser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all the people of the earth may be blessed through you. In order that you may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So that all the people on earth may be blessed through you.”

People Groups Definition:

“For evangelistic purposes, a people group is the largest group within which the gospel can spread as a church planting movement without encountering barriers of understanding or acceptance.”

-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p. 536.

“Out of all the nations,
God chose one nation,
to reach the rest of the nations.”

- Dr Todd Ahrend, The Traveling Team

Mandate #1: “Go from your country”

1. Abraham was given three promises if he leaves Ur:

- a. Abraham will be a great nation
- b. God will personally bless him
- c. Abraham will have a great name

2. Abraham’s leaving Ur sets up God’s global purpose (“so that” vs 2) in using Abraham to be a blessing.

Mandate #2: “Be a blessing” – a channel of blessing

1. Three promises of God to Abraham if he obeys in being a blessing:
 - a. God will bless those who bless Abraham
 - b. God will curse those who curse Abraham
 - c. God will bless the families of the earth **through** Abraham (Galatians 3:8, 16; Acts 3:25-26; cf. Romans 9:5)
“Families of the earth” = all the peoples, all the tribes or nations, a people group

2. **The meaning of blessing:** “...refers to God’s gracious favor and power bestowed on those who respond to Him by faith (Genesis 15:6; Psalm 67). The blessing of His favor draws us into relationship with Himself, resulting in peace, wellbeing and salvation. The blessing of His power affects the practical realities of life, resulting in good harvests, long life, wealth, children and miraculous works. Thus, blessing is both a relational term, and a power term.”
(Rick Love, “Blessing the Nations in the 21st Century: a 3D Approach to Apostolic Ministry.”)

Why We Do What We Do

What God is doing: Blessed us to be a blessing to the nations

Why God is doing this: His glory, His renown, His global recognition for who He is

The Ultimate Objective: to glorify (honor) God (all of us!)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1 Cor 10:31

When our fathers were in Egypt, they gave no thought to your miracles; they did not remember your many kindnesses, and they rebelled by the sea, the Red Sea. Yet he saved them for his name’s sake, to make his mighty power known. Psalm 106:7-8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ippians 2:9-11

Keep your conduct among the Gentiles honorable, so that when they speak against you as evildoers,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God on the day of visitation.

1 Peter 2:12 ESV

“Missions is not the ultimate goal of the church. Worship is. Missions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Worship is ultimate, not missions, because God is ultimate, not man...Worship, therefore is the fuel and goal of missions.”

- John Piper, Perspectives Reader, p 64

Promise repeated and restated:

To Abraham: “Abraham will surely become a great and powerful nation, and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him.” Genesis 18:18

Again, to Abraham: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Genesis 22:18

To Isaac: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will give them all these lands,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Genesis 26:4

To Jacob: "Your descendants will be like the dust of the earth, and you will spread out to the west and to the east,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nd your offspring." Genesis 28:14

Thousands of years later the Apostle Paul comments on the promise to Abraham **and applies them to the Gentiles** (nations) who would be justified by faith through Christ.

"The Scripture foresaw that God would justify the Gentiles by faith and announced the gospel in advance to Abraham: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Galatians 3:8

"You are the sons of the prophets and of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your ancestors, saying to Abraham, 'And in your descendants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26 God raised up his servant and sent him first to you, to bless you by turning each one of you from your iniquities." Acts 3:25-26

----- Who are the True Israel and the True Hebrew? (The Spiritual Hebrews)

#3 REDEMPTION AND WANDERING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The events in the book of Exodus (the whole of the Exodus event) magnify God to the Egyptians and the rest of the viewing world. This event is so big, it is talked about by all peoples in that area. The word was out on the Israelites! The plagues were not just to liberate the Israelites but to glorify God.

Exodus 9:14, 16

"The Lord is giving a message to Moses to deliver to Pharaoh saying... 'I will send the full force of my plagues against you and against your officials and your people, so you may know that there is no one like me in all the earth...But I have raised you [Pharaoh] up for this very purpose, that I might show you my power and that my name might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Exodus 19:4-6 Eagles' Wings of God

In the 3rd month after the Israelites left Egypt – on the very day they came to the desert of Sinai, and Israel camped there in the desert in front of the mountain...Then Moses went up to God, and the Lord called to him from the mountain and said,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house of Jacob and what you are to tell the people of Israel: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and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Exodus 22:21

"Do not mistreat or oppress a foreigner, for you were foreigners in Egypt."

1 Kings 8:41-43

“As for the foreigner who does not belong to your people Israel but has come from a distant land because of your name-- 42 for men will hear of your great name and your mighty hand and your outstretched arm--when he comes and prays toward this temple, 43 then hear from heaven, your dwelling place, and do whatever the foreigner asks of you,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ay know your name and fear you, as do your own people Israel, and may know that this house I have built bears your Name.”

--Does this have any application to International Students at the ([Jimma Institute of Technology \(JIT\) Jimma University?](#))

#4 The Hymn Book for the Nations

“The book of Psalms is one of the greatest missionary books in the world. Missionary preaching is supported in the Psalms by more than 175 references of a universal note relating to the nations of the world.” -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pp. 115-116

“Jealousy for the name of Christ is the most compelling of all missionary motives.”

- John R. W. Stott, *The Epistles of John*

Psalm 67:1-7 “*Let the Nations Be Glad!*” (John Piper’s Book)
(*The Lord’s Prayer in the OT*)

- 1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us, (Selah)**
- 2 that your ways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 3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 4 May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for you rule the peoples justly and guide the nations of the earth. (Selah)**
- 5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 6 Then the land will yield its harvest, and God, our God, will bless us.**
- 7 God will bless u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fear him.”**

Psalm 117 ESV

Praise the Lord, all nations! Extol him, all peoples!

2 For great is his steadfast love toward us, and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endures forever.

Praise the Lord!

Romans 15:11 ESV (quotes Psalm 117)

And again, “Praise the Lord, all you Gentiles, and let all the peoples extol him.”

#5 The Prophets

“The prophets never tire of reminding Israel that her election is not a privilege which she may selfishly keep for herself; election is a call to service. It involves a duty to witness among the nations.”

- Johannes Verkuyl,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 44

Isaiah 49:6

He says: “It is too small a thing for you to be my servant to restore the tribes of Jacob and bring back those of Israel I have kept. I will also mak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my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3:45-49 (quotes Isaiah 49:6)

“When the Jews saw the crowds,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and talked abusively against what Paul was saying. 46 Then Paul and Barnabas answered them boldly: “We had to speak the word of God to you first. Since you reject it and do not consider yourselves worthy of eternal life, we now turn to the Gentiles. 47 For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us: ‘I have mad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48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were glad and honored the word of the Lord; and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49 The word of the Lord spread through the whole region.”

John 14:6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 **The Uniqueness of Christ** – Charles Van Engen, Fuller Theology Seminary

● **The Supremacy of Christ** – Ajith Fernando, Youth for Christ in Sri Lanka

Acts 4:12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6 Life of Christ (Gospels)

“It all started by Jesus calling a few men to follow Him. This revealed immediately the direction His evangelistic strategy would take. His concern was not with programs to reach the multitudes, but with men whom the multitudes would follow. Remarkable as it may seem, Jesus started to gather these men before He ever organized an evangelistic campaign or even preached a sermon in public. Men were to be His method of winning the world to God.”

- Robert E.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p. 21

Life and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Matthew 8:5-13 (Jesus and the Centurion) “10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nd said to those following him, ‘Truly I tell you,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11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12 **But the subjects of the kingdom will be thrown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Other examples of Jesus crossing into the Gentile world:

- Jesus’ teaching concerning Elijah and Naaman – Luke 4:16-30
- Jesus and the Samaritan Woman – John 4:4-42
- Jesus and the Syrophenician Woman and her daughter – Mark 7:24-30/**Matthew 15:21-28**
- Jesus and the Gadarene demoniac – Mark 5:1-20

Matthew 24:14 -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What, if any, implications are there for the return of Christ?

Matthew 28:19-20 (Mark 16:14; Luke 24:44-48; John 20:19-23)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Acts 9:15-16

(Paul’s Damascus Road Conversion/Call to Suffer for the Gentiles)

“But the Lord said to Ananias,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proclaim my name to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to the people of Israel. 16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Epistles (Letters)

#7 THE CHURCH AGE (Acts, Epistles)

Romans 1:5

“Through him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call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for his name’s sake.”

Romans 10:14-15 NASB

“How then will they call 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lieved?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will they hear without a preacher? 15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Jus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of good things!””

Romans 15:8-12

Note the OT quotes:

“For I tell you that Christ has become a servant of the Jewson behalf of God’s truth, to confirm the promises made to the patriarchs 9so that the Gentiles may glorify God for his mercy, as it is written:

‘Therefore, I will praise you among the Gentiles; I will sing hymns to your name.’ 10Again, it says,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11And again, ‘Praise the Lord, all you Gentiles, and sing praises to him, all you peoples.’ 12And again, Isaiah says, ‘The Root of Jesse will spring up, one who will arise to rule over the nations; the Gentiles will hope in him.’”

Ephesians 3:8-10

The strategic place of the local church “Although I am less than the least of all God’s people, this grace was given me: to preach to the Gentiles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9and to make plain to everyone the administration of this mystery, which for ages past was kept hidden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10His intent was that now, through the church, the manifold wisdom of God should be made known to the rulers and authorities in the heavenly realms,…”

Worship

“That which glorifies God by recognizing His glory and by honoring Him with the offerings of the lesser, but worthy glories of the nations. Worship not only delights and reveals God, it fulfills God’s love for people by bringing them to a place of their highest honor before Him.”

- Perspectives Study Guide, p. 14

“Where passion for God is weak, zeal for missions will be weak. Churches that are not centered on the exaltation of the majesty and beauty of God will scarcely kindle a fervent desire to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For His glory in global worship, God purposes to overcome evil by redeeming a people who will and obey Him within every people.”

- Steve Hawthorne

#8 FINAL CONSUMMATION

The final book and “preview of coming attractions”

Revelation 5:9-10 (Peoples Purchased by the Blood of the Lamb)

“You are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to open its seals, because you were slain, and with your blood you purchased for God persons from every tribe and language and people and nation. 10 You have made them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serve our God, and they will reign on the earth.”

Revelation 7:9-10 (Peoples Worshipping God and the Lamb in Heaven)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in front of the Lamb. They were wearing white robes and were holding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10 And they cried out in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II. Historical Perspective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The Living God is God of History!

Alister McGrath said that “Studying church history . . . is like being at a Bible study with a great company of people who thought about those questions that were bothering you and others.”

“**Church history** . . . demonstrates the working of God. More specifically, it gives evidence that the Holy Spirit is working through and among His people, the church of God. It is the same Spirit that was working in that early Christian community that is still at work today in the community of faith. In other words, history provides a further resource for understanding the movement of God in the entire community of faith. We affirm that there is continuity between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and the community today, because we serve one God and are the one people of that God. Hence, every sector of church history is valuable, because it is the same Spirit moving through every stage of history. Church history is His story, and it tells of God’s faithfulness to the community of believers as they have carried forth His truth and have given animation to His

character. Just as Christ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church, through the Son and by the Spirit, is also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Church history is the story of how the community reflects that invisible God.”

- James Detrich, Probe Ministries www.probe.org

“**The history of missions** is all about weak, barely competent people who believed the One who sent them could accomplish His purposes even through the likes of them! There are only two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the weak ones who make themselves available to God and the weak ones who don’t.”

- Greg Livingsto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 741

“**I have but one passion - it is He, it is He alone. The world is the field, and the field is the world; and henceforth that country shall be my home where I can be most used in winning souls for Christ.**”

- Count Zinzendorf (1700-1769)

What Happened after Acts 28?

Why Study History of the Church and Missions?

1. The Bible is a history book. If you check an online concordance for the word “remember”, the NASB will get 227 hits!

• The books that Luke wrote (Luke and Acts) were expressly written to record an orderly account of the events of eyewitnesses concerning Jesus Christ and the subsequent history after He ascended into heaven. History was important enough for God to have Luke to compile it. (Luke 1:1-4; Acts 1:1-3)

• The Bible contains **salvation history**. It begins with a small hint as God killed animals to cover the shame of Adam and Eve’s sin in Genesis 3 to the final consummation of all His glorious acts of redemption.

2. “If you don’t learn from history you are doomed to repeat the same errors.”
3. . Studying famous lives from the past gives us inspiration to live for the future as we see real people living out their faith in courageous ways.
4. “...Christians need to study history, so that we can become better skilled to answer the nagging questions that either critics ask or that we ourselves are wrestling with.”
- James Detrich (www.probe.org)
5. “Historical inquiry allows us to understand contemporary context. So, the definition professional historians work with (for history) is ‘change over time.’ This means we chart what happened, when it happened, why it happened, who did it, and (perhaps most important for this context) the long-term consequences.” - Dr. Jared Phillips

Flow of Church History

The Church is persecuted – “the blood of martyrs is the seed of the church.”

- Tertull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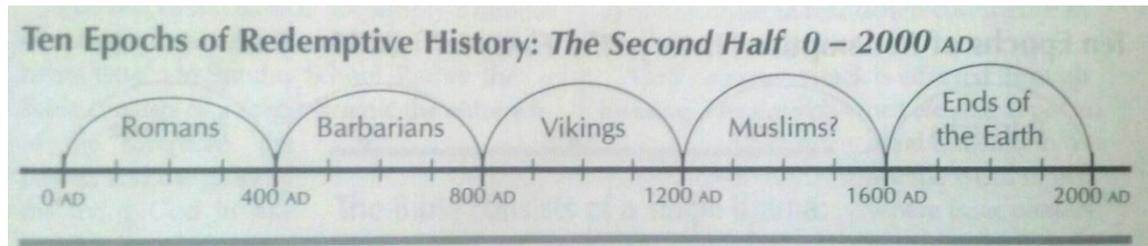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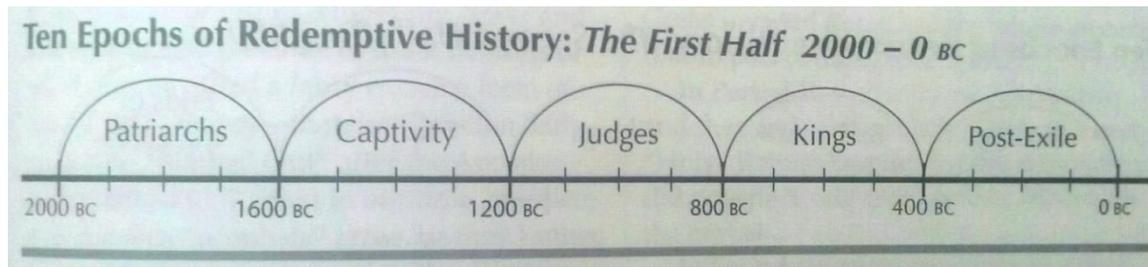
“In that age everyone was a missionary”

- John Foxe, Book of Martyrs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 Sodalities and Modalities

Sodality structures are second-decision, task oriented, structured fellowships (for example, a mission agency, or a military force). Modality structures are inclusive, nurture-oriented, structured fellowships (for example, a church congregation or secular tow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The Study Guide. 4th Edition. By Steven C. Hawthorne, 2009 p. 66



The Three Eras of Modern Mission History

Three Eras. When Ralph Winter first framed the Three Eras of Protestant mission, he characterized them as three bursts of activity, each focused on advancing the gospel in unreached parts or populations of the world. Yvonne Wood Honeycutt summarizes the Three Eras.

1. The First Era: To the Coastlands. William Carey did more than any other person to lift the vision of Protestants to the importance of fulfilling the commission of Christ. But Carey also saw the crucial need to form mission structures. Carey's *Enquiry* had widespread influence, awakening mission interest in Europe and in other parts of the Protestant world. Most mission structures of this era emerged from Europe with ties to denominations.

* **Father of Modern Christian Missions:** William Carey's Life Motto –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Isaiah 54:2-3,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 stretch your tent curtains wide, do not hold back; lengthen your cords, strengthen your stakes. For you will spread out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your descendants will dispossess nations and settle in their desolate cities.")

The location of Carey's mission to Serampore, India was typical of many of the mission efforts of that day. First Era missions primarily operated in the coastal trade cities of the colonial powers; thus, the generalization that they focused on the "coastlands." Two important features of this era: an astonishing readiness to sacrifice and keen insight into mission strategy.

2. The Second Era: To the Inland Areas. Hudson Taylor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leaders of the next era. He called for efforts to complete the task of evangelizing the inland areas of China that were largely untouched by the gospel. Eventually he felt he had to launch a mission structure in order to carry out this focus. The newly formed mission was typical of the many “faith missions” which arose during this time, which were independent of denominational control. The recruits of this era sometimes ignored much of the developed missiological wisdom of the earlier era but eventually planted churches in almost every geographic region. By 1940, the reality of the establishment of churches in every part of the world was celebrated as the “great new fact of our time.” To many, world evangelization appeared to be virtually finished. Some missions began to bring missionaries home from mission fields, presuming that the day of missions was over.

3. The Third Era: To the Unreached Peoples. This era was set in motion by Cameron Townsend and Donald McGavran and clarified by a fifth figure: Ralph Winter. Townsend focused attention on the linguistic groups lacking a Bible translation, and McGavran pointed out bypassed social groupings. The two approaches were ethnolinguistic (“horizontal” groupings viewed by linguistic or ethnic differences) and sociocultural (“vertical” groupings taking into account the subtle cultural traditions and prejudices). These two ways of viewing the mission turned the question from “where?” (or in what place mission was being done) to the question of “whom?” (or for what people was mission being aimed). McGavran focused on studying people movements, which drew attention to people-specific mission, churches and priorities. By focusing on the languages that lacked translations, Townsend turned attention toward the linguistically defined groups that had not been evangelized. But it was Ralph Winter who brought the insights of McGavran and Townsend together, using McGavran’s idea of people groups and extending Townsend’s idea of which people lacked sufficient testimony to follow Christ. Winter identified which people groups had already been evangelized to the point that the gospel would continue without outside help, and which people groups would require a special mission effort to bring about a sustainable movement to Christ. Ralph Winter and others developed the term “unreached peoples.” Many new service and mobilization mission structures emerged. Non-western or Majority World mission agencies are beginning to surpass the numbers and influence of earlier missions. McGavran often declared that the present hour was the sunrise, and not the sunset of missions.

- Father of “People Group” concept. He paved the way for systematic church growth around the world. “Peoples become Christian as a wave of decisions for Christ sweeps through the group mind...This may be called reaction. Each decision sets off others and the sum total powerfully affect every individual.”

Single Women in the World Missions

“Unlike the single women who for the most part raised their status in life by entering foreign missions, the student volunteers were mainly young men who in the eyes of the world lowered their status; and, unlike the women, they generally went to the field married or else married soon after they arrived. In the minds of many people, it was commendable that the Gladys Aylward’s, the Maude Cary’s, and the Johanna Veenstra’s went to the distant

shores to evangelize the 'heathen,' for all they would have amounted to was parlor maids or stenographers anyway; but to send brilliant young university graduates to 'waste' their lives among the 'heathen' were a crying shame."
- Ruth A. Tucker, From Jerusalem to Iran Jaya, p. 261

"More people have followed Christ in the last 100 years than in all of the previous centuries combined." - Perspectives Study Guide, page 73

Some Lessons:

- God's method is using ordinary people who do extraordinary things because their faith and obedience in God empowers them.
- The men and women of our past broke from the pack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often their local churches. They chose the road 'less traveled'. God used people with creative and revolutionary ideas that often resulted in opposition but also significant advancement of the kingdom.
- The advance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has come at great cost in terms of convenience, health, career, marriage and family, with some dying for their faith. Jesus told us this would be the case (Jn. 15:18-27).
- Correct doctrine is incredibly important!
- You can change the world and never leave home. Although it is critical to press into the unreached and unengaged peoples, history shows mobilization at home is important. (e.g. John R. Mott, A. T. Pierson, John Piper, The Traveling Team).
- Cross cultural work or missions often attracts visionaries, task oriented, purpose driven and even prideful and arrogant people. There is no substitute for humble servant leadership.
- Jesus is building His Church globally. Just like He said He would (Matt. 16:13-20; 28:16-20)
- The work of the kingdom of God advanced in part because of prayer movements. (e.g., The Moravians 24-7 prayer movement).
- Many if not all of the mission agencies or other global organizations started out incredibly small and seemingly have failed except for the fact that a leader believed God for incredible things and persevered and God blessed. (Examples: Cameron Townsend, Amy Carmichael, Bill Bright, George Mueller, Zinzendorf, William Carey, Lottie Moon, Dawson Trotman and perhaps you).
- Women are often the unsung heroines.

III. Cultural Perspective

Understanding Culture

Acts 15: New English Translation (NET)

1. “Now some men came down from Judea and began to teach the brothers,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of Moses, you cannot be saved.’
2. When Paul and Barnabas had a major argument and debate with them, the church appointed Paul and Barnabas and some others from among them to go up to meet with the apostles and elders in Jerusalem about this point of disagreement....
5. But some from the religious party of the Pharisees who had believed stood up and said, ‘It is necessary to circumcise the Gentiles and to order them to observe the law of Moses.’”
6. “Both the apostles and the elders met together to deliberate about this matter.
7. After there had been much debate, Peter stood up and said to them, ‘Brothers, you know that some time ago God chose me to preach to the Gentiles so they would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believe. 8. And God, who knows the heart, has testified to them by giving them the Holy Spirit just as he did to us, 9 and he made no distinction between them and us, cleansing their hearts by faith.
10. So now why are you putting God to the test by placing on the neck of the disciples a yoke that neither our ancestors nor we have been able to bear? 11. On the contrary, we believe that we are saved throug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in the same way as they are.’”

[James speaks:] 19. “Therefore, I conclude that we should not cause extra difficulty for those among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20. but that we should write them a letter telling them to **abstain from things defiled by idols** and from **sexual immorality** an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 and from blood...**”

If the world were a village of 1,000 people, it would include:

- 584 Asians
- 124 Africans
- 95 East and West Europeans
- 84 Latin Americans
- 55 Soviets (including for the moment Lithuanians, Latvians, Estonians and other national groups)
- 52 North Americans
- 6 Australians and New Zealanders

The people of the village have considerable difficulty in communicating:

- 165 people speak Mandarin
- 86 English
- 83 Hindi/Urdu
- 64 Spanish
- 58 Russian
- 37 Arabic

That list accounts for the mother tongues of only half the villagers. The other half speaks (in descending order of frequency) Bengali, Portuguese, Indonesian, Japanese, German, French and 200 other languages.

In this village of 1,000 there are:

- 329 Christians (among them 187 Catholics, 84 Protestants, 31 Orthodox)
- 178 Muslims
- 167 “non-religious”
- 132 Hindus
- 60 Buddhists
- 45 atheists
- 3 Jews
- 86 all other religions

-Taken from Donna Meadows, <http://www.gdrc.org/uem/1000-village.html>

Worldview:

“...a set of presuppositions or assumptions which we hold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about the make-up of our world.” - James Sire, *Discipleship of the Mind: Learning to Love God in the Ways We Think*, pp. 29-30

“...the deep level of culture, is the culturally structured set of assumptions (including values and commitments or allegiances) underlying how a people perceive and respond to reality. Worldview is not separate from culture. It is included in culture as the deepest level presuppositions upon which people base their lives.” - Perspectives Reader

- “People may not live what they profess, but they will always live what they believe.” - Tim Warner
- **Worldview functions like a filter through which we view and interpret our world.**
- Because all cultures have different filters, if we are not careful, **we can be guilty of judging others through our filter which could lead to culture shock.**

The Wall and the Canyon – the E-Scale and the P-Scale

By Steve Hawthorne

“There are two parts to the missionary task. The first is to see that the gospel is understood in such a way that Christ and His salvation are revealed. The second is to see that the gospel is received in such a way that Christ is openly followed.”

The E-Scale (Evangelism Scale) compares the cultural distances that Christians need to move in order to communicate the gospel. **The P Scale** (People Scale) is the cultural distance that potential believers need to move in order to join the nearest church.

Wall of Communication

- Barrier of understanding
- Challenge faced by missionaries
- To communicate the gospel
- Miracle of revelation
 - Seen on the “E-Scale”
 - “Become like”

E-Scale

E0: evangelism of churchgoing members
E1: reaching one’s own culture across the barrier of “church culture”
E2: is cross-culture evangelism into but different culture

Canyon of Conversion

- Barrier of acceptance
- Challenge faced by respondents
- To follow Christ
- Miracle of repentance
 - Seen on the “P-scale”
 - “Remain like”

P-Scale

P0: people within a culturally relevant church
P1... people have a culturally relevant church close to them
P2: people in contact with a similar similar cultures in which a culturally

E3: taking the gospel to culture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messenger relevant church exists
 P3: people in contact with, if any, are very foreign and composed of people very different from themselves

-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4th Edition, pp. 140-141

Definition of Culture

The sum total of the way a group of people think and act. It is an integrated system of beliefs, values, customs and institutions, which binds a society together and gives it a sense of identity, dignity, security, and continuity. "...a system of meanings and values that shape one's behavior." "...an integrated system of learned behavior patterns that are characteristic of the member of any given society. Culture refers to the total way of life of particular groups of people. It includes everything that a group of people thinks, says, does, and makes – its a system of attitudes and feelings. **Culture is learned and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y this definition, we can see that a particular culture would consist of at least the following:

- Manners
- Customs
- Beliefs
- Ceremonies
- Rituals
- Laws (written and unwritten)
- Language
- Arts and artifacts
- Tools
- Social institutions
- Religious beliefs
- Myths and legends
- Knowledge
 - Values
- Concept of self
- Morals
- Ideals

-L. Robert Kohls, Survival Kit for Overseas Living. 3rd Edition, pp. 23-24

A. Objective Culture: the visible part of culture that we see and most easily changed: eye contact, greetings, food, clothing, initiative, time, space consciousness, volume.

B. Subjective Culture: the invisible part of culture, that which drives or motivates the visible...motives, beliefs, assumptions, belief about gender roles, feelings, concept of truth, authority roles, and worldview.

Global Outreach: Some Guiding Principles

- All peoples of all cultures are eternally valuable to God.
- Our world with redeemed peoples, cultures, and environment is a foreshadowing of heaven ("new heaven and new earth" Revelation 21:1).
- All Christians are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Great Commission.
- The church is responsible to identify, train, and send workers whom God has called to go.
- Planting healthy, thriving, reproducing churches is the best way to bring about transformation in any people and culture (self-governing, self-propagating, self-supporting, self-instructing churches).
- Prayer "**here**" changes things "**there**" and in the process changes us.
- Followers of Christ reproduce new believers.

- Small groups reproduce new small groups.
- Churches reproduce new churches.
- Believers are either called to go or send (often a combination of both).
- Church-based teams are our preferred method.
- Limitations of time and money move us to be strategic in our stewardship, yet we listen to the Holy Spirit's leading. We form objective plans yet are open to the Holy Spirit "trumping" any of them.
- We partner with mission agencies (believing both the church and mission agency together form a prudent, expedient, and symbiotic relationship) to train, send, and retain healthy missionaries.
- We want healthy, thriving missionary families.
- The need is urgent. Time is running out.
- Be a missionary **here first**.

C. Illustration: iceberg – objective is above water; subjective is below water

D. Factors that affect the rate of adaptation in objective culture:

1. Age: the younger the easier to change.
 2. Community: if one remains in a community that retains much of the culture they came from, it makes change harder for the new culture.
 3. Religion/faith: normally keeps one from changing or if someone converts to a faith in his new culture, much of the subjective culture of his old lifestyle is hard to adapt over time. He might be Christian on the outside but there is quite a bit of Muslim on the inside.
 4. Education: generally, more education speeds the change.
 5. Employment: generally, more employment in the new culture, the faster the change, if they remain in employment with a group from their homeland, it slows the change. (e.g., A Chinese person in America working in a Chinese restaurant).
 6. English proficiency: greater proficiency means more adjustment to the new culture.
 7. Reason for coming to the US: people wanting to come to the US adapt more readily than people coming against their will.
 8. Intent to stay in the country: if yes, this speeds adjustment. if temporary, they tend to not adjust to the new culture.
- It is believed that it takes four generations for a given culture to totally assimilate into a new culture.

Typical Responses to Different Cultures

A. Xenophobia: fear of another culture which can be at the root of racism, hate groups and crimes.

B. Ethnocentrism: the belief that one's own culture, race, or ethnicity is the best.

- Normally we judge what we consider the worst behavior of other cultures by what we consider the best values of our culture.

C. Forced Assimilation: a close cousin to ethnocentrism, this response welcomes other cultures as

long as they are forced to become like me (e.g., English only laws; Sharia Law).

D. Segregation: different races and culture groups should remain separate from each other; “separate

but equal” or “separate but not equal” (e.g., Louis Farrakhan: “African American Only” schools).

E. Acceptance: willing to coexist, accommodate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those of another culture.

All cultures should be respected and are equal.

F. Celebration: recognizing God’s unique creation of different cultures and that He values diversity (goes beyond acceptance to valuing and embracing).

Culture Shock is the emotional stress that a person experiences by being in a culture different from one’s own. Symptoms are insecurity, irritation, a critical spirit, discouragement, withdrawal, rejection, or feelings of failure and guilt.

Reverse Culture Shock:

Missionaries are often caught between two cultures...not real comfortable or confident in their home or their field assignment.

- A. Initial euphoria
- B. Irritability and hostility
- C. Gradual adjustment
- D. Adaptation

- Something amazing happens when you enter into another culture. You begin to learn some things about God, about other peoples, and about yourself that you may not have learned at all or learned so quickly.
- You learn that God is the God of all cultures. When you listen to worship in another language and hear Bible teaching in another language, all of a sudden God becomes much bigger than before. Can God really understand the roughly 6000 languages in our world and at the same time?!
- You learn that other people from other cultures are very similar to you. They love family and kids. They value peace. They want to have reliable jobs, food on the table and their kids to live in safety and get a quality education.
- You begin to sense the things that make “them” and “us”. And you begin to enjoy and appreciate the differences.
- You learn that just because something is different in another culture, that does not mean it is wrong.
It is just different.
- Sometimes you begin to see in yourself some prejudices that need to be dealt with. Everyone tends to be ethnocentric.
- You now begin to sense the world of our missionaries and the unique challenges they face daily.

Skills that Help You Adjust to a New Culture

- A. Tolerance for ambiguity
- B. Low goal/task orientation
- C. Open-mindedness
- D. Non-judgmental
- E. Empathy
- F. Communication
- G. Flexibility; adaptability
- H. Curiosity

Tips for Entering into Cross Cultural Living

A. Be conscious of the stages in your adaptation:

- Interest in the new culture
- Stress and criticism of it (accuser)
- Truce with the culture
- Acceptance of the culture
- Appreciation of the new culture (learner and trader)

B. Expect some negative reactions.

C. Think about your role in the culture.

D. Be a learner (not a teacher).

E. Emphasize mastering the language.

F. Develop an understanding of your hosts.

G. Reflect Christ.

H. Appreciate the values of the culture.

I. Allow yourself to be vulnerable.

J. Maintain your health.

K. Stay open to others.

L. Be adequately prepared beforehand.

I. Sense of humor

J. Warmth in human relationships (good friend, neighbor and trader)

K. Motivation

L. Self-reliance

M. Strong sense of self (self-reflection, self-confidence and self-care)

N. Tolerance for differences

O. Perceptiveness (wisdom, insight and discernment)

P. Ability to fail (self-courage)

[Good Reading Resources]

Culture Shock: Dealing with Stress in Cross-Cultural Living by Myron Loss,

- Best suited for those who will live overseas, simple, understandable.

From Foreign to Familiar: A Guide to Understanding Hot – and Cold – Climate Cultures by Sarah A. Lanier

- This book we use as part of the training for those going on Short Term Missions (STM). It is fairly short and full of practical advice. Written by an experienced overseas worker, she discusses topics like: relationship vs. task orientation; direct vs. indirect communication; individual vs. group identity and other categories of comparison. 128 pages.

Cross-Cultural Connections: Stepping Out and Fitting In Around the World by Duane Elmer

- A more academic approach but very understandable. If you want to go deeper, this is a good book.

Cross-Cultural Servanthood: Serving the World in Christlike Humility by Duane Elmer

- Elmer in the subtitle states that Christlike humility is a missing character trait in much of our work in other cultures. Most evangelical circles subscribe to the servanthood leadership model and this book develops that theme. Character matters. very practical for leaders of Short-Term Missions.

A Beginner's Guide to Crossing Cultures – making friends in a multicultural world by Patty Lane

- Similar to Elmer's book above, a more academic and detailed analysis of how we should approach and respond to cultures. A good read.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Fourth Edition, edited by Ralph D. Winter and Steve C. Hawthorne

- This is the standard text for the class that goes by the same name. It may be the best one volume book on missions. There are a variety of authors both living and dead and edited by an able duo, the late Dr. Ralph Winter (founder of the USCWM) and Steve C. Hawthorne. 780 pages.

Culture and Communication

A. Contextualization: “presenting the gospel within the context of cultural and social forms that are recognized by the respondent community.”

- Contextualizing the message itself so the local culture understands
- Contextualizing the messengers themselves as (they who live within a culture and identify with them to better communicate to the host culture)
- Illustration: Redemptive Analogy of Don Richardson (*Move, Peace Child*)
- Illustration: Using the telling of stories (it is estimated that 2/3 of the earth are primary oral learners)

Some Lessons:

1. Since God created all people and cultures, then there is something inherently good within every culture that we must not only accept but celebrate. Think about what every culture would be like without sin.
2. [Take the initiative to engage a new culture here in Jimma, Ethiopia.](#)
3. Consider being a host family for an International Student or people from other regions.
4. Learn to speak a new language.

5. Principles from Duane Elmer, *Cross-Cultural Servanthood*:

- Cultivate **openness**: the ability to welcome people into your presence and make them feel safe.
- Cultivate **acceptance**: the ability to communicate value, worth, and esteem to another person.
- Cultivate **trust**: the ability to build confidence in relationships so that both parties believe the other will not intentionally hurt them but will act in their best interest.
- Cultivate **learning**: the ability to glean relevant information about, from and with other people.
- Cultivate **understanding**: the ability to see patterns of behavior and values that reveal the integrity of a people.
- Cultivate **servicing**: the ability to relate to people in such a way that their dignity as human beings is affirmed and they are empowered to live God-glorifying lives.

IV. Strategic Perspective

“Each week approximately 3500 new churches are started somewhere in our world.”

- Dr Bobby Gupta

Average Annual Growth Rate (AAGR)

- Between the years 1960 and 1985, the Church worldwide experienced an AAGR of 1%.
- In 1985, a sharp acceleration began which resulted in an AAGR of 3% through 1990.
- The first five years of this decade saw annual growth soar to 5%.
- The final five years of the decade saw a rate of 7% growth in the kingdom.
- At an AAGR of 7.5%, the world would be 50% Christian within 25 years!
(City Reaching: On the Road to Community Transformation, Jack Dennison)

The Strategy

Our Vision of Global Outreach: *To see healthy indigenous church planting movements within every people group on the planet as quickly as possible.*

What Is A World Christian?

“A disciple who realizes that whatever ministry or activities God has given him, it is to be done wholeheartedly as a means toward the overall goal of reaching the nations. It is a person who balances the Great Commission with the Greatest Commandment, loving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nd loving others as yourself.”

- Bob Sjogren, Bill and Amy Sterns, Run with The Vision, p. 196

“A world-class Christian is one whose lifestyle and obedience is compatible, in cooperation, and in accord with what God is doing and wants to do in our world.”

- Paul Borthwick, How to Be A World Class Christian, p. 24

“World Christians are day to day disciples for whom Christ’s global cause has become the integrating, overriding priority for all that He is for them. Like disciples should, they actively investigate all that their Master’s Great Commission means. Then they act on what they learn.”

- David Bryant, In the Gap, p. 93

Definitions

Missions: “Any cross-cultural endeavor outside of your local congregation to obey the Great Commission by proclaiming the gospel of Christ, making disciples and gathering these disciples into local churches.”

Commitment)

- APMC (Advancing Churches in Missions)

Missionary: “I believe that being a missionary in the truest sense of the word is taking the Gospel where it has never been before, or at least to a different culture or a different language group. A true missionary is someone who will risk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lost of this world.”

- Keith Green in his tract, “Why You Should Be A Missionary”

Healthy Missions-Active Church: “A healthy missions-active church is one that takes an aggressive

posture toward world evangelization. The congregation sees itself as a key component in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and mobilizes its resources to do all that it can in this task.”

- APMC

Dynamic Equivalence Church – Dr. Charles Kraft

*** The Strategy of Suffering / Suffering and Martyrdom – God’s Strategy in the World (Colossians 1:24)**

-Dr. Arthur Glasser, Prof. of Fuller Theol. Seminary, Pasadena, California, USA

Practices of a World Christian

A. Goer: Christianity is a “go to” group. We exist for the non-members of our local church.

Mark 16:15 Jesus said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B. Sender/Supporter: Those in the church who “hold the rope” for those who go. Senders are those who stay home but do what they can to support, encourage, pray, give money, and serve. In short, they do whatever is necessary to help the goers get there and help them be fruitful.

3 John 5-8 “Dear friend, you are faithful in what you are doing for the brothers, even though they are strangers to you. 6 They have told the church about your love. You will do well to send them on their way in a manner worthy of God. 7 It was for the sake of the Name that they went out, receiving no help from the pagans. 8 We ought therefore to show hospitality to such men so that we may work together for the truth.”

Jesus Made a Big Deal about Being Sent by His Father:

- “For I did not speak of my own accord, but the Father who sent m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John 12:49
- Approximately 37 times John uses this phraseology of the Father sending the Son.

Jesus Made a Big Deal About Doing What His Father Sent Him to Do

- “My food,”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John 4:34 (6:38; 9:4)

Jesus Made a Big Deal about Our Being Sent

- Jesus prayed: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John 17:18
- Jesus’ commission: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John 20:21

● **Good Quotes**

“Mission points to a central action: the act of being sent with a commission to carry out the will of a superior. It is God who commissions and God who sends. And it is this word of “sending” that lexically links the Old Testament with the New Testament. The Hebrew word “to send” *salahi*, is found over eight hundred times. Over two hundred times God is the subject of the verb in the Old

Testament. The Greek New Testament word “to send” is *apostell*. Interestingly enough, it is this Greek verb (or a compound of it) that is used to translate three fourths of the passages in the Greek Septuagint (Greek version of the Hebrew Scriptures) where God is the subject of this verb.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divine sending of anyone on a mission is the will of the One who sent the emissary.” - Walter C. Kaiser,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 pp. 11-12 (emphasis added).

“God’s primary goal is not to get each of us into the Great Commission. His goal is to get the Great Commission into us!”
- David Bryant

“It is insufficient to proclaim that the church of God has a mission in the world. Rather, the God of mission has a Church in the world.”- Tim Dearborn, Reader, p. 79 “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 Lausanne Covenant

● What a World Christian can do as a Sender/Supporter?

1. Praying for the global cause to grow

- Operation World • Global Prayer Digest
- Use a world map • Use the international section of the newspaper or news on internet
- Missionary Newsletters • Pray for the Nations regularly

2. Growing as a influencer for the global cause of Christ

- What are you thinking about? What are you reading?
- Hudson Taylor (1832-1905): “If I had a thousand pounds, China should have it; If I had a thousand lives, China should have them. No, not China, but Christ”
- What is your purpose here on earth? (Rick Warren, *Purpose Driven Life*)
- Action point: “Leaders are readers.” Read a book!

3. Investing money in the missionary cause

- Most missionaries are under-funded
- About 1 % of church giving goes to work among the unreached; \$0.96 of each dollar given stays in the US
- Giving can begin when you have discretionary money, not a big salary
“During the Vietnam war there were 9 people supporting each man on the front line.”
– Neil Pirolo, *Serving as Senders*
“Missions is not what the church does for the missionary, but what the church does through the missionary.”
- Tom Julian, *Antioch Revisited*, p. 89

4. Encouraging missionaries on the field (moral support through good communication and logistical support)

- The “out of sight, out of mind” principle. • Sending things...care packages.
- 30% of missionaries do not stay for a second term after learning the language and culture.
- Invite missionaries to your community group.
- Invite them to have dinner with your family. • Pick one or two families to focus on.

5. Going on a short-term mission trip (generally 2 years or less)

Advantages of Short-Term Mission (STM) Trips:

- Almost all long-term workers have been on a short term trip first; it is a mobilization tool.
- Helps the church understand other cultures and missionary life.
- Can encourage the missionary. • Can inject some ministry momentum.
- Can advance the work there if partnering with long term workers.

Disadvantages of STM’s:

- Disengages the missionary from his work. • Can set back the ministry in sensitive areas.
- Costs a lot of money.

Goals of short-term trips:

- Glorifies God. • Recruits people to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Increases prayer and giving for missions. • Encourages missionary and the ministry.
- Recruits long term workers.
- Helps with the long-term work: catalytic events (medical clinics, business seminars), missionary care (retreats, counseling) bringing back fresh vision, and prayer for the long-term work.

6. Adopting a Wartime Lifestyle – a Simple Life!

- Queen Mary in Long Beach, CA. Museum has two parts: peace time and war
- Avoid debt like the plague! **Live below your means.**
- Purpose to give • Keep a simple lifestyle
- Drive your car until it drops dead • Retirement...where is that in the Bible?!
- **Cautions: However,** be careful about having a judgmental spirit or self-righteous attitude.
- Keep Christ central

C. Welcomer: helping missionaries when they return home (re-entry support)

- Returning missionaries need a number of support services in order to be effective at home as well as to recharge.
- What needs would missionary families have when they return home? • How can we help?
- Provide a home to live in while in the US
- Help them re-engage the American culture – schools, places to buy things, medical care
- Provide meaningful platforms for them to share their heart and ministry
- Help them raise support

Embracer: Showing hospitality to **International Students and Workers** – another form of welcoming...and **Strategic value of reaching this unique group:**

- Speak at least two languages fluently • Know their home culture well
- Future leaders; respected for their education
- Already have many relationships underway back home
- Do not need visas to go to their own countries
- Can open doors for foreign “tentmakers”
- Great place for missionary training – if you have a burden for Sudan...you should be reaching out to Sudanese Students right here.
- Great place for your family to minister – kids love students. Students love kids.

D. Mobilizer: bringing the church/people/fund into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Definition: influencing people to become world Christians
- Invite others to join you at “Prayer for the Nations”
- Invite someone to go on a STM
- Help pay for someone to do one of the above

- Missions’ education begins with the kids and is integrated through all age levels. “It is reported that 85% of those missionaries who go overseas for the long haul made a decision for Jesus Christ and/or missions before the age of 16.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se made the decision between the ages of ten and twelve.” - Run With the Vision, p. 220

E. Intercessor: Praying for the Missions and Missionaries

Psalm 2:8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A praying intercessor is stronger than a nation that has no prayer (to the Lord)!” – John Knox

Business As Mission (BAM)

A. Definitions:

- Tent Making: Using a business or other platform to have a presence in a foreign culture for the purposes of ministry. “Historically, tentmakers are missions-committed Christians who, like Paul, support themselves in secular work, as they engage in cross-cultural evangelism on the job and in free time.” (Ruth Siemens); also see Acts 20:33-35
- Business As Mission: Sometimes called “Great Commission Companies” or “Kingdom Business”. These are businesses that are created and managed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 cause of Christ in less-reached and/or less-developed parts of the world. (Perspectives, p. 760)
- Microenterprise Development: seeks to help the world’s poorest people start and run successful, God-honoring businesses, often with the help of small loans. (Perspectives, p. 761)

B. Advantages of BAM:

1. Essential for creative access countries
2. Natural way to be with people – “All my time is God’s time.” – Ruth Siemens
3. Can generate income for your support and other purpose, like community development.
4. Can use your gifts and talents in “non-ministry” work. Won’t be perceived as a religious worker by the nationals, possibly loaded with preconceptions. “You are saying and doing these religious things because you are paid to do it.”

5. Paul’s example: why did he do it?

a. Credibility: so as not to put an obstacle in the way of the gospel (1 Cor. 9:12; 2 Cor. 6:3f)

b. Identification: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c. Modeling: integrity in the marketplace

***2Thes. 3:7-9** “For you yourselves know how you ought to follow our example. We were not idle when we were with you, 8 nor did we eat anyone’s food without paying for it. On the contrary, we worked night and day, laboring and toiling so that we would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9. We did this, not because we do not have the right to such help, but in order to make ourselves a model for you to follow.”

● **Good Reading for Business as Mission**

Tent Making: Business as Mission, Patrick Lai

Great Commission Companies: The Emerging Role of Business in Missions,

Steve Rundle and Tom A. Steffen

On Kingdom Business, Tetsunao Yamamori and Kenneth A. Eldred

Business As a Calling: Work and the Examined Life, Michael Novak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Muhammad Yunus

*** Four Essentials for a *Godly Workplace Lifestyle* (Ruth Siemens):**

1. personal integrity
2. quality work
3. caring relationships
4. brief, fitting comments about God

C. Disadvantages of BAM:

- Spend more time in business than ministry
- What if your business is really successful?
- Are you a missionary or businessman?

Becoming a World Christian

“The history of missions is all about weak, barely competent people who believed the One who sent them could accomplish His Purposes even through the likes of them! There are only two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the weak ones who make themselves available to God and the weak ones who don’t.”
-Greg Livingstone, Perspectives, p. 741

A. Be a lifelong follower and worshiper of God!

Size of your God determines the significance of your mission in life!

“Where passion for God is weak, zeal for missions will be weak. Churches that are not centered on the exaltation of the majesty and beauty of God will scarcely kindle a fervent desire to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B. Catch the Vision: What would Jesus have for you to do?

C. Grow the Vision: What are the next steps for you?

D. Share the Vision: With whom will you pursue vision?

Practical Things - A World Christian Should Remember and do:

1. Keep Jesus the main thing.

2. Mission flows out of a clear **mission statement**

3. Money: • Have support criteria in place early

• Self-supporting or self-sustaining work is always a good idea; not all missionaries or projects fit into this though
•Book: *Missions and Money* by Jonathan J. Bonk

4. Partner with mission agencies: get to know them if possible; try to visit their headquarters, build relationships.

“Never concede to doing something so small that it could be accomplished entirely in your lifetime. Be a part of something that began before you were born and will continue onward toward the fulfillment of all that God has purposed to accomplish. God has uniquely formed you to be part of this significant movement.” - Ralph Winter, founder, USCWM

Summary Conclusion:

Taking a look at where we have come:

- **The lens of Scripture** clearly points to a God glorifying mission to redeem peoples from every people group on the planet through being a Blessing, a Channel of Blessing for the Nations.
- **The lens of History** gives example after example of great men and women of the faith who in obedience to the Scripture advance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into new unreached peoples.
- **The lens of Culture** compels us to advance this gospel using appropriate and relevant methods, still anchored to the truth of Scripture.
- **The lens of Strategy** provides clear action steps for all in the Body of Christ.

찬미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www.KIMMission.org



